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申仁淑

메이크업에 있어서 色彩의 效果와
表現技法에 관한 研究

The study of the tint effect
and technique in make-up.

2000年 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李 先 珠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申仁淑

메이크업에 있어서 色彩의 效果와
表現技法에 관한 研究

The study of the tint effect
and technique in make-up.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 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李 先 珠

李先珠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0年 2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표현기법과 색채조화에 관한 상관성을 연구하여 보다 폭 넓은 색채의 바리에이션과 절제를 통하여 토털패션의 한 부분인 메이크업에 색이 가지는 이미지를 연결시켜 다양한 미를 추구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장의 영역 중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뷰티와 패션 메이크업으로 한정하여 색채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색채 표현 재료를 구사하여 색채에 의해 얼굴에 표현되는 메이크업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교정 메이크업 패턴과 각각의 얼굴 부위에 적용되어 개성있게 표현되는 색채 효과를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범위를 국한하였다. 또한 앞으로 메이크업 유행 색상을 예측할 수 있게 20세기 패션사에서 보여지는 메이크업 유행색 및 패턴을 고찰하여 메이크업에서 색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패션과 색채, 인간의 얼굴과 신체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외 패션 및 화장을 다른 잡지를 바탕으로 사진과 일러스트를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색을 물리적으로 이루는 세가지 요소인 색상, 명도, 채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그 3요소가 메이크업 효과에 극대화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도와 채도는 얼굴 형태를 교정해 주거나 눈, 입술을 보다 더 깊이있고 볼륨감있게 만들어 준다.

둘째, 색상과 색조가 가지는 상징적 이미지에 따라 메이크업의 많은 변화를 알 수 있다. Vivid, Strong, Bright, Pale, Very pale, Light grayish, Light, Grayish,

Dull, Deep, Dark, Dark grayish 등 이들 색조의 서로 다른 색채 이미지에 의해 메이크업의 패턴이 다양하게 구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패션과 메이크업의 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색상에 의한 조화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조화되며 발전되어 왔다. 의상색에 따라 메이크업의 색조를 달리하여, 보다 세련된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자기 만족과 정신적인 풍족함을 높여 여성에게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넷째, 20세기 패션사에 나타난 메이크업 유행색상과 패턴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자유로운 내적 미의식의 표출로써 다양하게 나타났다. 빠르게 변화해온 패션의 실루엣과 색상의 조화속에서 메이크업 패턴과 유행색을 창조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정보화, 국제화된 세계속에서 각 시즌마다 패션스타일과 색상이 함께 바뀌고 분위기를 연출해 가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표현기법과 조화로운 색상의 사용은 패션의 토털화를 추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토털패션으로서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은 색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그 색상의 조화는 점점 더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높여 주는 화장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여성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고유색상에 조화로운 메이크업 포인트 색상의 사용과 절제, 패션 색채의 조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개성화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외적미와 자신감에서 얻어지는 내적 존재가 함께 표출되어 감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 매체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메이크업은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하며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자아 인식과 자신감을 얻게 하는 관리행위로써 현대와 나아가 앞으로 변화된 모습의 인간에게 있어 더욱 필수적인 생활문화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것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가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색상의 폭넓은 구사로 우리의 화장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이크업 이미지가 색채 심리적인 측면에 많이 좌우되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표현 테크닉에 있어서 폭 넓은 실험과 경험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본 논문은 메이크업이 새로운 실용 학문으로 자리 매김하려는 시점에서 하나의 시도이고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학문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目 次

초 록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범위 및 방법	2
II. 얼굴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메이크업 색채 표현 기법과 재료 ...	5
1. 메이크업의 색채 표현 재료	5
2. 얼굴 부위별 색채 적용 효과	8
3. 메이크업 기법을 통한 색채 표현 기법	18
III. 색채 적용을 통한 안면이미지 표현 기법	31
1. 색조를 적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표현 기법	31
2. 토탈 코디네이트 개념의 계절 이미지 메이크업	49
3. 개성적 이미지 연출을 위한 메이크업 기법의 제언	52
IV. 메이크업에 나타난 색채의 유행적 특성	54
1. 시대별 화장문화에 나타난 색채의 유행적 특성	54
2. 세기말 메이크업 색채의 유행성	79
V. 結 論	85
參考文獻	88
ABSTRACT	93

表目次

표1. 피부톤에 따른 특징	10
표2. 피부의 색상 구분	13
표3. 피부의 명도 구분	13
표4. 피부의 채도 구분	13
표5. 아이새도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16
표6. 불연지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17
표7. 립스틱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18
표8. 립스틱 색상과 연령의 조화	18
표9. 색의 3속성이 주는 이미지	19
표10. 색조의 색채 이미지	34
표11. 계통색 분류	36
표12. 의상색과 메이크업 포인트 색상의 조화	50

그림 目次

그림1. 피부색의 조성	11
그림2. 미용색상환	14
그림3. 얼굴의 기본 음영	21
그림4. 둥근형 얼굴의 음영	22
그림5. 긴형 얼굴의 음영	22
그림6. 사각형 얼굴의 음영	22
그림7. 역삼각형 얼굴의 음영	22
그림8. 삼각형 얼굴의 음영	23
그림9. 다이아몬드형 얼굴의 음영	23
그림10. 아이새도의 기본 음영	24
그림11. 눈꼬리에 음영이 들어간 눈	25
그림12. 눈앞머리에 음영이 들어간 눈	25
그림13. 눈앞머리와 꼬리에 음영이 들어간 눈	25
그림14.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이 있는 눈	25
그림15. 얼굴의 기본도	26
그림16. 짧은 코에 들어가는 음영	27
그림17. 긴코에 들어가는 음영	27
그림18. 콧날과 콧망울이 퍼져 있는 코에 들어가는 음영	27
그림19. 입술그리는 방법과 입술선의 3가지 기본형	28
그림20. 입술 형태별 수정법	29
그림21. 립스틱의 색상과 명암의 차이	30
그림22. 색의 3속성	32
그림23. 먼셀 색상환	33
그림24. 색조의 기본도	35

그림25. 비비드톤 이미지	37
그림26. 스트롱톤 이미지	38
그림27. 브라이트톤 이미지	39
그림28. 페일톤 이미지	40
그림29. 베리페일톤 이미지	41
그림30. 라이트그레이시톤 이미지	42
그림31. 라이트톤 이미지	43
그림32. 그레이시톤 이미지	44
그림33. 덜톤 이미지	45
그림34. 딥톤 이미지	46
그림35. 다크톤 이미지	47
그림36. 다크그레이시톤 이미지	48
그림37. 색으로 묘사되는 계절이미지 메이크업 일러스트	51
그림38. 오리엔탈풍의 색채화장	57
그림39. 1920년대 전형적인 Flapper Clara Bow	60
그림40. Gloria Swanson	60
그림41. Greta Garbo의 신비스러운 성숙미	62
그림42. Marlene Dietrich의 가늘고 긴 눈썹	62
그림43. Ketherine Hepburn	63
그림44. 50년대 화장	66
그림45. Elizabeth Taylor	66
그림46. Grace Kelly의 완벽한 숙녀다움	66
그림47. Audrey Hepburn의 굽은 눈썹	66
그림48. Marilyn Monro	66
그림49. Brigitte Bardot	67
그림50. 과장되게 붙인 인조 속눈썹	69

그림51. 옵아트 패턴을 응용한 눈화장.....	69
그림52. 기하학적 패턴의 아이섀도.....	69
그림53. 흰색 아이섀도와 립스틱	70
그림54. Twiggy	70
그림55. Hippies	71
그림56. 60년대 젊은 남녀의 모습	72
그림57. Zandra Rhodes 환타지 화장	72
그림58. 환타지 경향의 화장	72
그림59. 핑크 스타일과 화장	74
그림60. 핑크 스타일과 화장	74
그림61. Androgynous 남녀 화장	76
그림62. 마돈나의 에로틱한 이미지	77
그림63. 여성의 체형미 대회	78
그림64. 레트로 이미지 메이크업.....	81
그림65. 히피 이미지 메이크업	81
그림66. 아이라인을 강조한 메이크업	82
그림67. 사이버 이미지 메이크업	83

I. 序 論

1. 연구의 목적

고도로 발전된 현대산업사회에서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외에도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메이크업에 의해 자신의 외모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한다. 특히 컬러 TV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인 효과 즉, 자기 이미지가 좋아짐에 따라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는 생산적이고 삶에 의욕을 불러 일으켜 준다.

누구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려 하는데, 그 욕망의 한 표출로써 인간은 메이크업을 하며 아름답게 보이고자 치장하는 한 요소로써 메이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미적가치로써 메이크업은 한 시대를 이해하는 사회적, 문화적환경을 그대로 반영해가며 발전되어왔다.

아름다움은 형태와 색채와 재료의 미가 종합되어 생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 형태와 색채이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외모가 형태라면 거기에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완성되는 것이 메이크업이라 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멋을 내려는 욕망을 가지고있다. 미의식은 대중매체와 패션의 발달로 획일화 된 미가 아닌 개성의 발로로써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표현의 수단으로 패션디자인은 감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매체의 수단으로 인식되고있다. 패션디자인은 근본적으로 미의 추구에 목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감의 추구, 정신적

인 풍족함을 얻기 위한 조형예술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 역시 토털패션의 개념에서 존재하며 색채와 깊은 상관성을 가진다. 사람의 몸에 인위적으로 색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소품을 포함한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가 해당이 된다고 본다.

동일한 얼굴형과 메이크업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색채조화의 변화에 따라 화려하거나, 지적인 이미지 또는 천박한 분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색채조화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는 메이크업 연출은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내고 자신감을 부여하여 준다.

본 논문에서는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형태와 색채조화에 관한 상관성을 연구하여 보다 폭 넓은 색채의 바리에이션과 절제를 통하여 토털패션의 한 부분인 메이크업에 색이 가지는 이미지를 연결시켜 다양한 미를 추구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분장은 크게 그 목적에 따라 일반 분장과 특수 분장으로 나뉘는데 일반 분장은 인간을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목적을 둔 뷰티 메이크업과 앵커 또는 아나운서 등 그 사람의 생김새와 개성을 살려 자연스럽게 연출하여 주는 스트레이트 메이크업, 사진, 포스터, CF 등의 광고 메이크업, 패션메이크업, 무대메이크업 등으로 나뉘며 특수 분장은 나이나 성격 등을 대본이 요구하는 대로 연출하는 캐릭터 메이크업과 시대극 메이크업, 노인 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몬스터 메이크업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분장의 영역 중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뷰티와 패션 메이크업으로 한정하여 색채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색채 표현

1) 나경남, 화장품 광고를 위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2, p.1

재료를 구사하여 색채에 의해 얼굴에 표현되는 메이크업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교정 메이크업 패턴과 각각의 얼굴 부위에 적용되어 개성있게 표현되는 색채 효과를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범위를 국한하였다. 또한 앞으로 메이크업 유행 색상을 예측할 수 있게 시대별 화장문화의 유행적 특성을 간략하게나마 고찰하였다.

원칙적으로 메이크업은 표현 형태 및 색상의 미묘한 차이를 구체적인 실물로 접해야 하나 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로 사진자료 및 그림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색채는 이성에 의하기도 하며 감성에 의하기도 하는 심리학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따라 작용하는 미묘한 점을 인식할 때 단어 및 표현어휘의 부족으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잡지 매체의 조합과 일러스트로 보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색의 속성에 근거하여 메이크업에 표현된 배색이미지로 제한한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패션과 색채, 인간의 얼굴과 신체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외 패션 및 화장을 다른 잡지를 바탕으로 사진과 일러스트를 제시하여 메이크업에 나타난 색에 관하여 색의 3속성을 중점적으로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문헌적 자료를 토대로 골상학, 명암, 색채, 메이크업 테크닉 등의 관련자료를 사진 및 일러스트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색의 본질을 이해하여 메이크업에 응용하고 배색의 효과를 살려 폭 넓은 패턴을 구사하고자 한다.

둘째 명암에 의해 교정되고 개성화 되는 메이크업을 조형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이상적 여성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색의 상징적 표정과 색상의 효과로 인해 표현되는 메이크업을 일러스트와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20세기 화장문화에 나타난 유행색과 테크닉의 변천을 10년 단위로 기술하여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해 가며 발전되어 오는 화장문화를 정립해 보며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발전된 화장문화를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얼굴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메이크업 색채 표현 기법과 재료

1. 메이크업의 색채 표현 재료

메이크업에 관한 뛰어난 기술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재료나 도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메이크업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완성하기가 어렵다. 메이크업 재료와 도구의 올바른 선택은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할 때나 일반 여성이 보다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메이크업에 대해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정확히 알아 두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기본 메이크업 재료

- ① 베이스 - 피부의 결을 모아주고 광택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최적의 피부를 유지하도록 해준다.
- ② 파운데이션 - 피부의 자연색조에 맞게 색상을 교정하고 피부색을 일정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준다. 커버력에 따라 유성과 수성으로 나뉜다.
- ③ 컨실러 - 결점을 부분적으로 커버하는데 사용한다.
- ④ 파우더 - 피부를 보송하게 마무리하거나 화사하게 컬러감을 주기 위해 사용한다.
- ⑤ 콤팩트 파우더 -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덧바를 때 사용하여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 준다.
- ⑥ 눈썹펜슬 - 눈썹을 그리는데 사용한다.
- ⑦ 아이새도 -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눈매의 깊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크게 매트한 타입과 크림타입으로 나뉜다.

- ⑧ 아이라이너 - 눈을 또렷하고 선명히 표현해준다. 효과에 따라 리퀴드, 케익, 펜슬타입이 있다.
- ⑨ 마스크라 - 아이메이크업의 마무리로 눈을 보다 선명하고 초롱초롱하게 표현한다.
- ⑩ 립펜슬 - 입술 윤곽을 선명히 할 때나 수정하여 그릴 때 사용한다.
- ⑪ 립스틱 - 입술색을 생기있고 화사하게 표현해주어 볼륨감을 형성한다.
- ⑫ 볼연지 - 얼굴색에 화사함을 더하여 여성미를 표현하여 준다.

2) 특수분장 재료

- ① 라텍스(Latex) - 암모니아수에 생강을 유화시킨 보통의 공업용 라텍스와 분장용 라텍스 등 종류는 다양하다. 주름이나 얼굴형을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재료이다.
- ② 더마왁스(Derma Wax) - 얼굴 부분을 변형시키기 위한 소프트 왁스이다.
- ③ 인조피(Blood Paint) - 상처, 사고, 전쟁 등 피를 흘리는 상황에 필요하다.
- ④ 블랙왁스(Black Wax) - 치아가 빠진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녹여서 치아에 발라줘야 한다.
- ⑤ 노즈퍼티(Nose Putty) - 코와 얼굴의 뼈가 있는 부분에 사용한다.
- ⑥ 금속질분(Metallic Make-up) - 흔히 환상적인 장면에서 이용하며 온몸에 바른 금속 페인트가 숨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데군데 분장을 제거하여 피부가 숨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⑦ 무라즈(Moulage) - 석고상이나 석고를 떼내는데 사용하는 재료로 알지네이트와 같은 성분이다.
- ⑧ 비누(Soap) - 눈썹은 없애고 그 위에 필요한 눈썹을 첨가할 목적에는 강도가 약한 비누가 사용된다.
- ⑨ 포마드 - 머리카락에 광택을 주거나 다루기 어려운 머리결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 ⑩ 눈썹왁스 - 눈썹을 감추는데 사용한다.
- ⑪ 실러(Sealers) - 라텍스나 왁스위에 발라서 빨리 마르고 단단하게 해준다.
- ⑫ 탈지면 - 스피리트껌에 라텍스와 배합하여 얼굴을 변형시킬 때 사용한다.
- ⑬ 스타 스프레이(Sta-spray) - 고착 스프레이 용도이다.
- ⑭ 다텍스(Datex) - 입체감이 있는 주름살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 ⑮ 블래스코 엑스트라(Blasco Extra) - 대머리의 빛깔을 희미하게 하는 독특한 제품이다.
- ⑯ 블랙모아 - 머리가 벗겨진 부분에 사용한다.
- ⑰ 수염망 - 수염을 뜨는데 사용한다.
- ⑱ 수염재료 - 생사를 염색하거나 나일론실 21데니아를 섞어 사용한다.
- ⑲ 스피리트껌(Spirit Gum) - 수염 붙이는 접착제로 자가 제조를 원하면 99% 주정 알코올에 소나무액을 용해시키면 된다.
- ⑳ 드라이 찰콜(Dry Charcoal) - 석탄가루
- ㉑ 베스트 씨크 더스(Best Thick Duse) - 상처, 고름
- ㉒ 무비 더스트(Movie Dust) - 총먼지
- ㉓ 폼 코트(Foam Coat) - 진짜 살처럼 보이기 위해 흑 같은 것을 붙이고 한번 덮어주는 재료이다.

3) 메이크업 도구

- ① 스펀지 - 베이스 또는 파운데이션을 펴발라 줄 때 사용한다.
- ② 퍼프 -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눌러주어 매트한 피부표현을 해주는 파우더를 사용할 때 필요하다.
- ③ 면봉 - 메이크업을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펴 발라주도록 하는데 필요하며 잘 못된 곳을 교정하는데에도 사용된다.
- ④ 브러시 - 색상을 부드럽게 잘 펴 발라 줄 때 사용하며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브러시가 필요하다. 솔은 부드러워야 하고(특히 담비털이 최고이며,

자연모가 합성인조털보다 더 좋다.) 잘 고정되어져 있어야 하며 깨끗해야 한다.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볼터치용 브러시, 아이새도용 브러시, 눈썹빗, 립스틱 브러시, 아이라이너 브러시, 파우더 브러시가 준비되어야 한다.

⑤ 족집게 또는 눈썹칼-눈썹을 정리하여 줄 때 사용한다.

⑥ 아이래시컬 - 일명 뷰러라고 표현하며 속눈썹에 컬링을 줄 때 사용한다.

이렇듯 메이크업은 다양한 재료와 여러 가지 색상들이 존재하며 각 색상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예술의 세계인 것이다. 얼굴이 캔버스가 되고 자신의 피부가 캔버스의 천이 되며, 화장품이 재료가 되는 것이다.

2. 얼굴 부위별 색채적용 효과

메이크업 화장품은 표현재료로 불리워지기도 하지만 인공적으로 색을 만들어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메이크업에 색상을 조화시키기 이전에 선천적인 자신의 고유 색상을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선천적인 자신의 고유색상(즉 피부색, 머리색, 눈동자색등)에 어떤 색상 계열을 어떻게 적용시켜 메이크업을 완성시키는가, 한단계 더 나아가 의상색상과 잘 맞추어질 때 색의 조화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1) 피부색

색의 세계에는 누구나가 말하는 색채미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조화미를 뜻하는데 색을 서로 맞추는 관계에 대해 소홀한 감이 있다.²⁾ 메이크업에서의 색채라 하면 먼저 얼굴색을 떠올리며 이 얼굴의 피부색이 사실상 대단히 중요하다.

2) 김용훈, 멋과 맵시의 색채와 디자인, 세진사, 1994, p112

얼굴색의 정도에 따라서 눈썹, 입술, 눈, 머리의 모양과 색을 조성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굴의 색(피부색)에 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색 전체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해 진짜색개념을 간과하는 수가 있으나 자주 보는 사람의 얼굴색에 관한 깊은 의미에 대해서도 무의식중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햇볕에 타지 않게 한다든지, 적당한 색으로 태운다든지, 검은 피부색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한다든지 하는 경우와는 달리 비단 얼굴색에 머무르지 않고, 메이크업 할 때의 색의 바탕 혹은 의상색과의 조화를 위한 상대 색의 존재가치의 뜻 등에서 의식하는 얼굴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한다.

피부는 신체의 가장 큰 기관이며 신체 외부의 외관이다. 신체의 색과 재질은 의복색과 재질은 지각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하게 보이는 피부색을 갖길 원한다. 사실 건강과 병약은 종종 색채의 표현으로써 묘사된다. “장미빛의 홍조”, “불그르레한 안색”, “누런 황달” 등의 표현이다. 명도는 건강의 표시로서 인지되지는 않지만 어떤 서양문화에서는 흰 피부와 사람들이 “햇볕에 잘 그을린 황갈색”을 건강이 좋은 것으로 연상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피부의 명도가 얼마나 밝으나 또는 어두우나에 관계없이 색상과 채도는 대체로 건강과 연상된다. 빨강쪽으로 기우는 기본 색상들은 좋은 건강 상태를, 노랑은 비정상적으로 나쁜 건강 상태를 표현한다. 채도가 선명할수록 좋은 건강 상태를, 채도가 탁할수록 체질이 약한 또는 민감한 체력, 병에 걸린 상태를 표현한다. 이러한 연상들은 범문화적이며 범민족적이다.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 피부색의 기본 색상은 주황색 기미의 빨강에서 주황색기미의 노랑에 이르는 색상 범위에 있다. “적” 또는 “황”이라는 인종에 대한 사회적 표시에도 불구하고 순빨강 또는 순노랑 피부를 기본 색상으로 가진 사람은 없음을 보여 준다. 일부의 아프리카인, 유럽인, 북미인의 집단들은 빨강색 쪽으로 더 많이 기울며, 일부의 아시아인, 지중해 연안의 집단들은 노랑색 쪽으로 더 많이 기운다. 어떠한 인간 집단도 피부색으로 녹색, 파랑,

보라를 주된 색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표1. 피부톤에 따른 특징

피부톤	피부특징
흰 피부	혈색은 없으나 희고 화사해 보이는 피부
희고 붉은 피부	희면서 붉은 피부
노르스름한 피부	노르스름하고 약간 창백해 보이는 피부
질은 황갈색 피부	전체적으로 검어 보이는 피부

피부의 본래색은 손목 안쪽을 확인해 보면 된다. 푸른 빛을 띠는 피부는 피부표면 근처에 혈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밝은색이 혈색을 좋아 보이게 한다. 노란빛이 많이 도는 피부색은 연한 노랑이나 베이지색을 사용했을 경우 황갈색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살리고 또 수정함으로써 보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위한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역시 최소한 자기 얼굴색에 대한 일가견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화장품을 고르는 일, 메이크업의 화장료를 연구하거나 패션의 컬러를 공부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인간의 피부는 인체의 외표기관인 살결로서 외계와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5관 가운데서 촉각을 맡고 있으나 외견상으로는 ‘피부표면의 문제’ 로써 ‘피부의 질’ ‘살결’ 또는 ‘색’ 에 관한 것이 미용과 관계하고 있다.

색의 존재와 관계되는 전문부분은 표피(表皮)와 진피(眞皮)에 관한 지식의 일부인데 먼저 표피부터 알아보자.

표피는 피부의 가장 꺼플인 최외층을 이루고 있고 표면이면서

- ① 각질층(角質層)
- ② 담명층(淡明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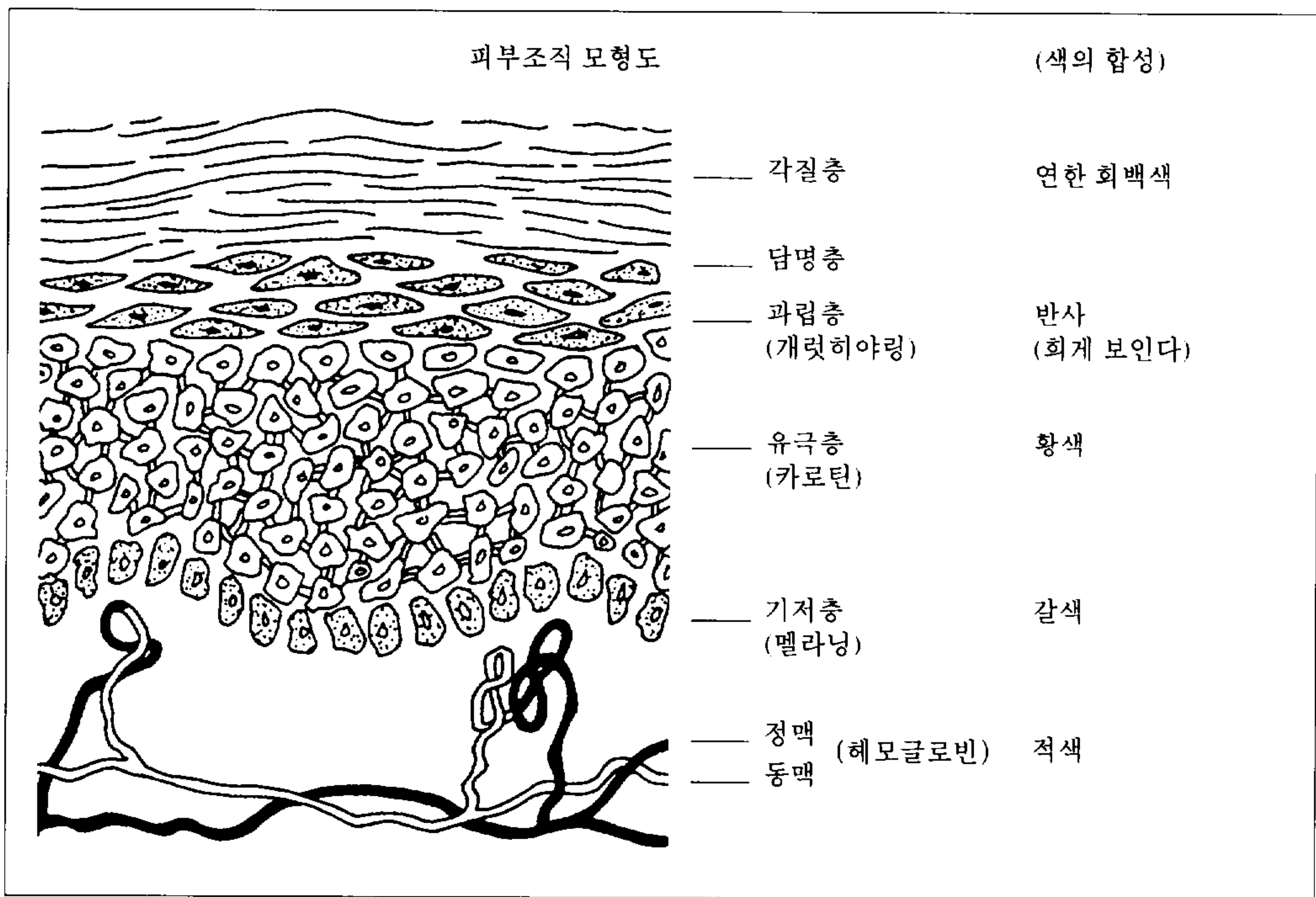
3)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p121

- ③ 과립층(顆粒層)
- ④ 유극층(有棘層)
- ⑤ 기저층(基底層)

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조직으로 형성되었다.

이 가운데 ⑤의 기저층은 끊임없이 표피세포의 신생과 보급을 맡고 있으므로 ④의 유극층을 포함해서 '종자층(種子層)' 이라고도 불리운다. 종자층에서 만들어진 신생 표피 세포는 상층을 향해서 추켜 올려지고 변화하여 최후로 ①의 표피 각질층이 되어 표면에서 탈락되어 가는 조직을 보충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1. 피부색의 조성



피부색의 성립이 표피에 포함되고 있는 피부색소의 합성조건이나 케라토히야린의 다소량에 따라 크게는 인종을 나눌 정도의 피부색에 차이를 낳게 하고, 동일 민족 가운데서도 개인차를 생기게 한다. 또 동일 인물이라도 어린이에서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점차 연령을 겹쳐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황변현상(黃變現象)인 흰색 계열의 노랑색이 진해지는 현상으로 피부색이나 눈이 공막(鞏膜)에 약간의 색이 이동하거나 때로는 일시적으로 햇볕에 타서 검어진 피부색이 곧 제자리로 돌아가는 변화도 있다.

이들은 어느것이나 피부색소의 배합, 상황에 의한 것이고 핍색 현상도 여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얼굴색을 분류, 정리하기로 한다.

색채상의 분류인 이상, 그리고 피부색이 모두 유채색의 범위에 드는 한색의 3속성에 따라 다루는 것이 편리하나 실제의 색기를 파악하기란 미묘하다.

보통 흰 피부, 보통 피부, 검은 피부등으로 밝기의 범위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3속성 가운데서도 명도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른 속성에 관해서도 알아보자.

피부에서 색의 분류수가 반드시 많을 필요는 없고 디자인상의 편의가 적을 수록 편리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두가지 분류법을 들어보자.

먼저 먼셀표기계에 기인한 분류법으로 먼셀표기법에서는 어느 피부색은 3YR7/3로 표기한다. 3YR는 '색상'을, 7은 '명도'를, 3은 '채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색상의 구분을 정한다. 먼셀색상의 10.0R-10.0YR의 범위는 한국인(동양인)의 피부색 색상의 분포도로 간주되고 있다.⁴⁾

다음에 명도 구분을 정한다. 그리고 최후의 채도 구분에 대해서는 피부색을 구분하기 위한 표현은 아니지만, 피부색을 굳이 나타내려는 경우는 색상, 명도, 채도의 순에 따른다. 그리고 채도라는 것은 원래 색의 강함, 약함, 선명함, 둔함의 정도를 꼽은 요소이나 여기서는 그것을 혈색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메이크업 화장품의 볼터치는 그곳의 혈색을 보완해서 생기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쓰이나 볼터치를 지나치게 바르면 메이크업을 실패로 이끌어 버린다. 왜냐하면 전체의 조화와 균형상 그곳의 채도를 너무 올렸기 때문이다.

4) 김용훈, 앞의 책, p116

표2. 피부의 색상 구분

먼셀색상	색 별	피부색 구분
10.0R	핑크	백인에 가까운 핑크
3.0YR	내츄럴	핑크 느낌의 피부
6.5YR	크림	한국인에 많은 보통피부
10.0YR	크림	황기미의 피부

표3. 피부의 명도 구분

먼셀명도	피부색 구분
7.5-8.0/	흰 얼굴
7.0/	보통(의 흰)
6-5/	검은 얼굴

표4. 피부의 채도 구분

먼셀채도	피부색 구분
/2	맑지 않은 혈색
/3-4	건강색
/4-5	혈색이 좋다.

선천적 고유색상 중 하나인 머리색도 변화를 시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얼굴의 기본틀로서 일정시간 동안 그 색상이 유지된다. 그에 따라 화장품도 맞춰 선택되어져야 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머리색은 얼굴에 사용할 색상의 터치에 영향을 미친다.⁵⁾ 특히 립스틱색을 좌우한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머리색과 입술색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머리색이 밝을수록 립스틱색도 밝아지는 것이 어울리고 짙은 머리색에는 짙은 입술색이 어울린다. 생생하고 뚜렷한 입술은 머리색의 톤이 밝은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고 창백한 입술은 짙은 머리에 의해 죽어 보이게 된다.

5) Diana Lewis Jewell, MAKING UP by REX, Clarkson N. Potter, Inc. New York, 1986, p30

눈동자색도 색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눈동자 색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정 색상들만이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칼라 렌즈의 보급으로 꼭 한가지 색상을 써야 함은 아니고 테크닉을 어울리게 잘 구사한다면 여러 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을 토대로 메이크업의 부분별 포인트 색상 만족도를 알아보고 색채적용 효과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아이새도와 색의 조화

새도는 그늘, 어둠등을 말한다. 색으로 말하면 어두운색이 그늘의 색이 된다. 아이새도라고 불리는 화장품도 역시 눈에 음영을 만들어 주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원래는 무대 메이크업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나 점차 일반화된 것이다. 아이새도는 사용 목적이 주로 눈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음영이 있는 표정미를 만드는데 있으니 색의 선택이 중요하겠다.⁶⁾ 먼저 피부색과 아이새도 색상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표를 이용해 알아 보고자 한다.(표5)

아이새도와 연결되며 얼굴 표정 변화에 한 몫을 하는 눈썹이 주는 각 색상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흑색 - 개성적인 느낌을 주며 눈이 크고 피부가 흰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회색 - 침착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자연스러워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린다.

갈색 - 세련된 느낌을 주며 건강하고 약간 그을린 듯한 피부에 잘 어울린다.⁷⁾

아이새도 색상의 효과를 높여 주기 위하여 눈썹의 색상도 고려하여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6) 이학재, 분장의 길, 자유문학사, 1994, p74

7) 김희숙. 이은임, 앞의 책, p174

표5. 아이세도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색의종류	피부 색	효 과
갈색계	메이크업의 기본색	자연스러운 음영 및 차분한 느낌을 준다.
청색계	일반적으로 어떤 피부색이나 잘 어울린다.	눈을 가장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색
녹색계	다갈색 피부에 잘 어울린다.	건강한 인상과 젊음을 연출한다.
회색계	흰 피부에 어울린다.	약간 나이든 흰피부색과 조화되어 효과를 낸다.
보라색계	핑크계, 피부색이 흰 경우에 잘 어울린다.	요염한 느낌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적색계	핑크계, 피부색이 흰 경우	가련한 귀여움과 젊음을 연출한다.

3) 불연지색의 조화

불연지는 안색을 좋게 하고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 사용되며 사용색상에 따라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개성있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부색과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불연지 색상에 따른 느낌은 크게

핑크계 - 우아하고 여성다운 느낌

오렌지계 -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

브라운계 -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불연지와 립스틱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연결하여 주는 것은 통일 원리를 살리려는 것이나 혈색소를 보완하는 뜻에서 얹게 쓰이는 것이므로 참고로 하도록 한다.

표6. 불연지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불연지 색종류	피부색	립스틱 색상
핑크계열	회고 화사해 보이는 피부	핑크, 퍼플계
오렌지 계열	약간의 황기미를 띄는 피부	오렌지, 코랄
브라운 계열	다갈색 피부	브라운, 레드브라운

4) 립스틱색의 조화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어느 시대에서나 눈과 입술이라는데 의의가 있을 수 없다. 입술의 표정을 크게 좌우하는 것에 '색'이 한 몫을 한다는데도 마찬가지다. 색은 그 직관적인 성질 때문에 보는 이에게 주는 인상이 직접적이므로 이 '입술 이미지의 색을 선택'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립스틱 색상이 주는 이미지는 아래와 같고, 피부색과 조화되는 립스틱 색상을 표를 이용해 알아보자.(표7)

레드 - 대표적 컬러. 정열, 매혹의 대명사로 가장 어른스러운 색상이며 지적이고 엘레강스하다.

핑크 - 온화하고 청초하고 귀여운 느낌. 가장 여성스럽다.

퍼플 - 침착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 은은한 인상을 준다.

오렌지 - 발랄하고 활동적이다.

브라운 -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느낌. 연한 색상은 눈에 띄이지 않게 자연스럽고 아주 진한 색상은 세련되고 특별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이외에 연령에 맞추어 립스틱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표7. 립스틱 색상과 피부색의 조화

피부색	흰피부	핑크기를 띄는 피부	한국인에 많은 보통피부(노란 피부)	짙은 황갈색 피부
립스틱				

표8. 립스틱 색상과 연령의 조화

연령	40 - 50대	30대	20대
특징	일반적인 로즈계 되도록 채도가 낮은 것이 조화됨	적색계 활기, 정열	오렌지계 청초
비고	립스틱은 연령으로 나눌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이행이란 젊은이부터 연배가 됨에 따라 오렌지-레드-로즈(퍼플)의 변화로서 생각되어짐		

3. 메이크업 기법을 통한 색채 표현 기법

색의 3속성 중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도야말로 메이크업에서의 얼굴형 수정을 할 때 꼭 필요한 존재라 하겠다.

밝고 어두움을 적절히 표현하는 명암의 기법이야말로 메이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색이 가지는 성질 중 진출, 후퇴색과 팽창, 수축색도 연관이 깊다 하겠다. 이렇게 색채의 조화, 명암의 법칙을 메이크업에 이용하여 착시 효과를 얻어내어 좀 더 이상형의 얼굴에 가깝게 만들어 준다.

표9. 색의 3속성이 주는 이미지

분류	타입	이미지 특색	색상	이미지	
색상	난색	따뜻하다 자발적이다 활기차다	Red	정열적인, 즐거운, 활발한	
			Orange	활기찬, 즐거운, 건강한	
			Yellow	활기찬, 유쾌한, 낙천적인	
	중간색	수동적이다 침착하다 평범하다	Yellow green	편안한, 신선한	
			Green	편안한, 조용한, 발랄한	
			Purple	고상한, 신비한, 불안정한	
			Red purple	매혹적인, 정열적인	
	한색	냉정하다 수동적이다 조용하다	Blue green	침착한, 편안한	
			Blue	고독한, 침착한	
			Purplish blue	신비한, 고독한, 고상한	
	명암	고명도	낙천적이다 명랑하다	흰색 무색	순수한 산뜻한 온화한
		중명도	침착하다	취색	침착한 관대한
저명도		엄숙하다 비관적이다.	진한 회색 검정색	엄숙한 우울한	
채도	고채도	신선하다 활기차다	선명한 색상	온화한 저속한	
	중채도	온화하다 편안하다 조용하다	온화한 색상	온화한 온순한	
	저채도	침착하다 세련되다	희미하고 가라 앉은 색상	담백한 단순한	

1) 얼굴 형태와 명암

먼저, 얼굴의 형태를 파악한 다음 돌출되어 보이고자 하는 부위나 넓어 보이고 싶은 부위에 얼굴 기본색보다 1-3단계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반대로 들어가 보이고 싶은 부위나 좁아 보이고 싶은 부위에 얼굴 기본색보다 1-3단계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밝은 톤과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서로 경계가 지지 않게 그라데이션을 해준다. 명암은 그 차이가 심하지 않고 서로 연관성있게 이어져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꼭 알맞은 색상이 없을 때에는 세가지 원색(RED, YELLOW, BLUE)을 써서 어떤색이든지 알맞은 색상을 만들 수 있다. 하이라이트와 색도 컬러로 자주 사용되는 색상으로는 WHITE, YELLOW(ORANGE), BROWN, BLUE, RED BLACK 등의 색을 주로 사용하며 이 색들을 적당한 비율로 혼색하여 여러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⁸⁾ 우리들은 하이라이트와 색도 컬러를 적당히 조화시켜 모든 윤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베이스 컬러와 하이라이트 및 색도의 경계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라데이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색배합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표현하고자하는 윤곽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얼굴형은 보통 7가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얼굴형에 따라 음영을 달리 줌으로써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계란형 - 이마선은 턱선보다 약간 넓으며 완전한 균형을 갖춘 얼굴형으로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다.

등근형 - 볼과 턱선이 넓고 헤어라인이 둥글며 얼굴이 전체적으로 짧은 형이다.

긴형 - 긴코의 소유자이며 얼굴 전체적으로 사각의 좁고 긴 얼굴형이다.

사각형 - 헤어라인과 볼선이 직선적이며 이마가 넓고 사각의 턱선과 전체적으로 얼굴이 네모난 형이다.

8) 공연예술총서⑤ 분장, 예니출판사, 1996, p49

역삼각형 - 이마가 넓고 크며 양미간이 넓고 턱선이 좁으며 광대뼈가 높게 자리잡은 얼굴형이다.

삼각형 - 헤어라인이 일정치 않으며 넓은 턱선, 양쪽 광대뼈 사이에 좁으며 양미간이 좁은 얼굴형이다.

다이아몬드형 - 좁은 이마, 높고 볼거진 광대뼈, 좁고 뾰족한 턱을 가진 얼굴형이다.

각 형태별 명암의 위치는 일러스트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얼굴형별 명암이 메이크업에 적용되는 사례

그림3. 얼굴의 기본음영



그림4. 등근형 얼굴의 음영



그림5. 긴형 얼굴의 음영



그림6. 사각형 얼굴의 음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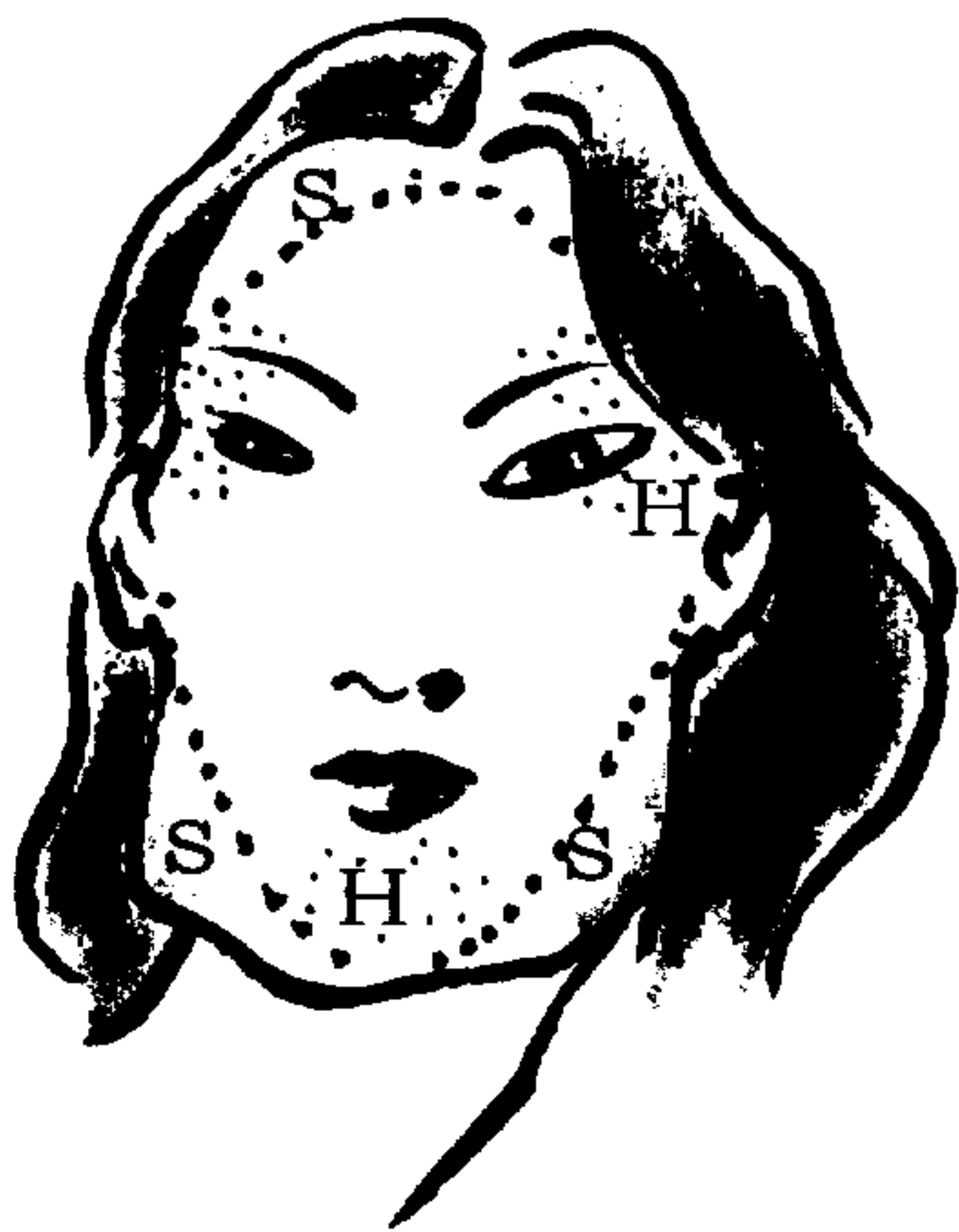


그림7. 역삼각형 얼굴의 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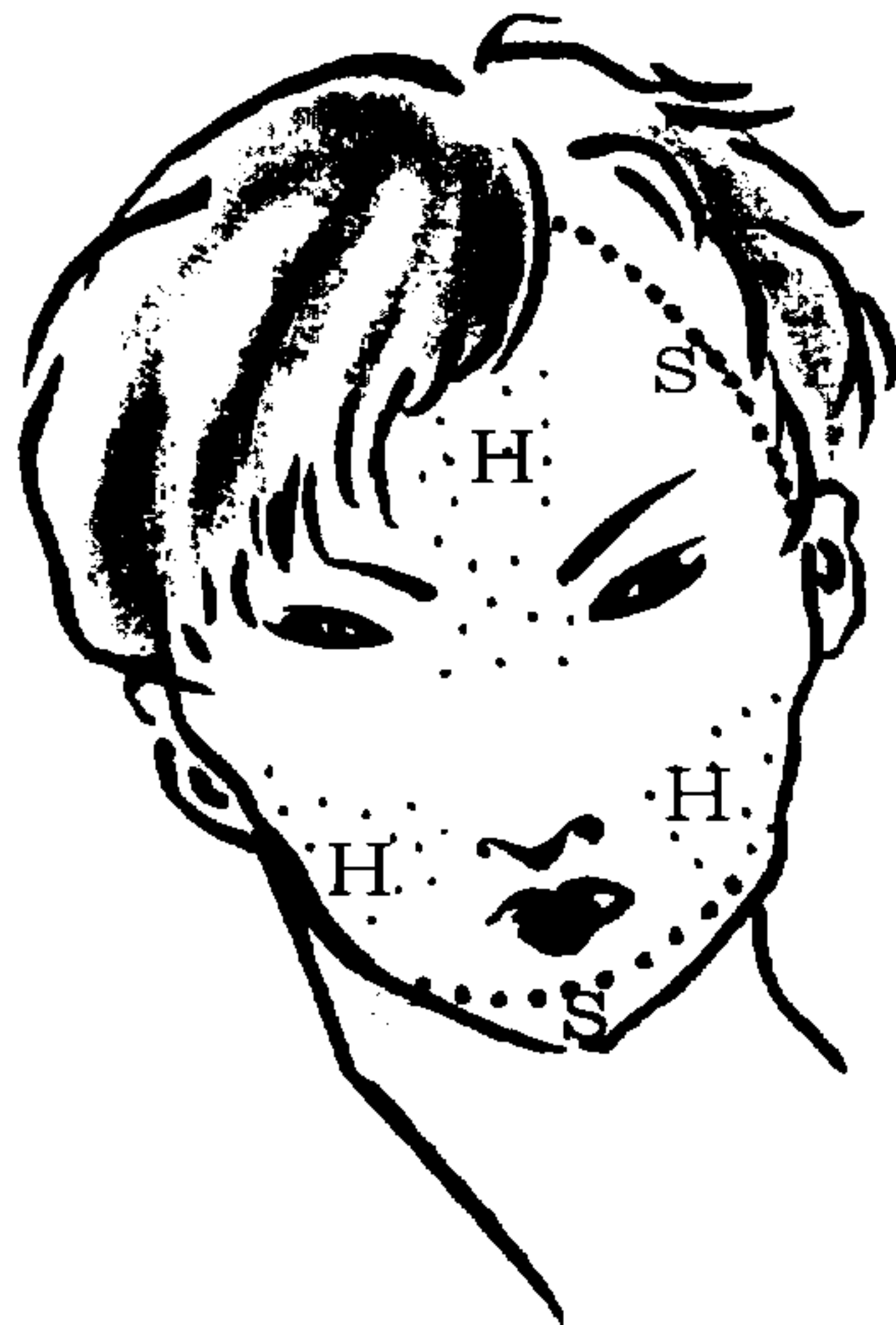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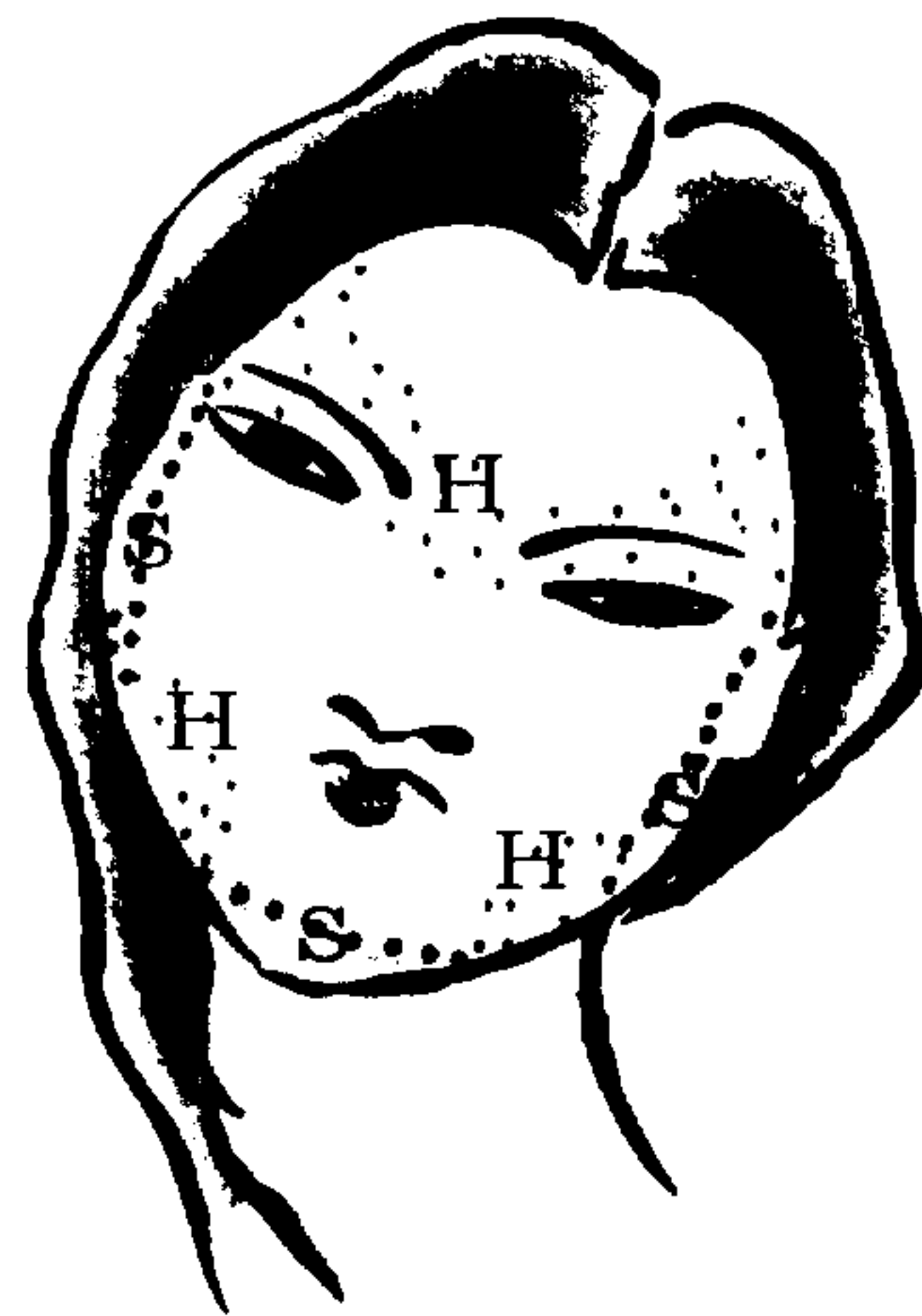


그림8. 삼각형 얼굴의 음영



그림9. 다이아몬드형 얼굴의 음영



2) 눈형태과 명암

실제로 아이새도는 음영색이다. 깊이있는 눈매로 표현해 주는 새도 컬러에 하이라이트 컬러, 액센트 컬러를 가미하여 장점을 살리고 결점을 보완하여 눈매를 보다 더 아름답게 한다.

눈꼬리에 음영이 들어간 눈 -

양미간이 좁아 답답해 보이는 인상일 경우. 눈앞머리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눈꼬리에 액센트를 주어 밸런스를 맞추어 준다.

눈앞머리에 음영이 들어간 눈 -

양미간이 넓으며 콧대가 낮아 전체적으로 얼굴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인상으로 눈앞머리에 액센트를 주어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눈앞머리와 꼬리부분에 음영이 들어간 눈 -

눈썹과 눈사이가 넓어 평면적인 눈을 서양인처럼 보다 크고 깊이있게 연출하는데 효과적이다. 눈앞머리와 눈꼬리에 액센트를 주어 음영을 표현하고 눈 중앙 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준다.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이 있는 눈 -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을 경우 눈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작아 보인다. 이럴 때는 아이홀 부분에서 눈썹뼈위로 음영을 넣어 눈에 굴곡을 넣어 준다. 그리고 눈꺼플 부분으로 색도 포인트를 길게 넣어 주어 눈을 선명히 한다.

그림10. 아이새도의 기본 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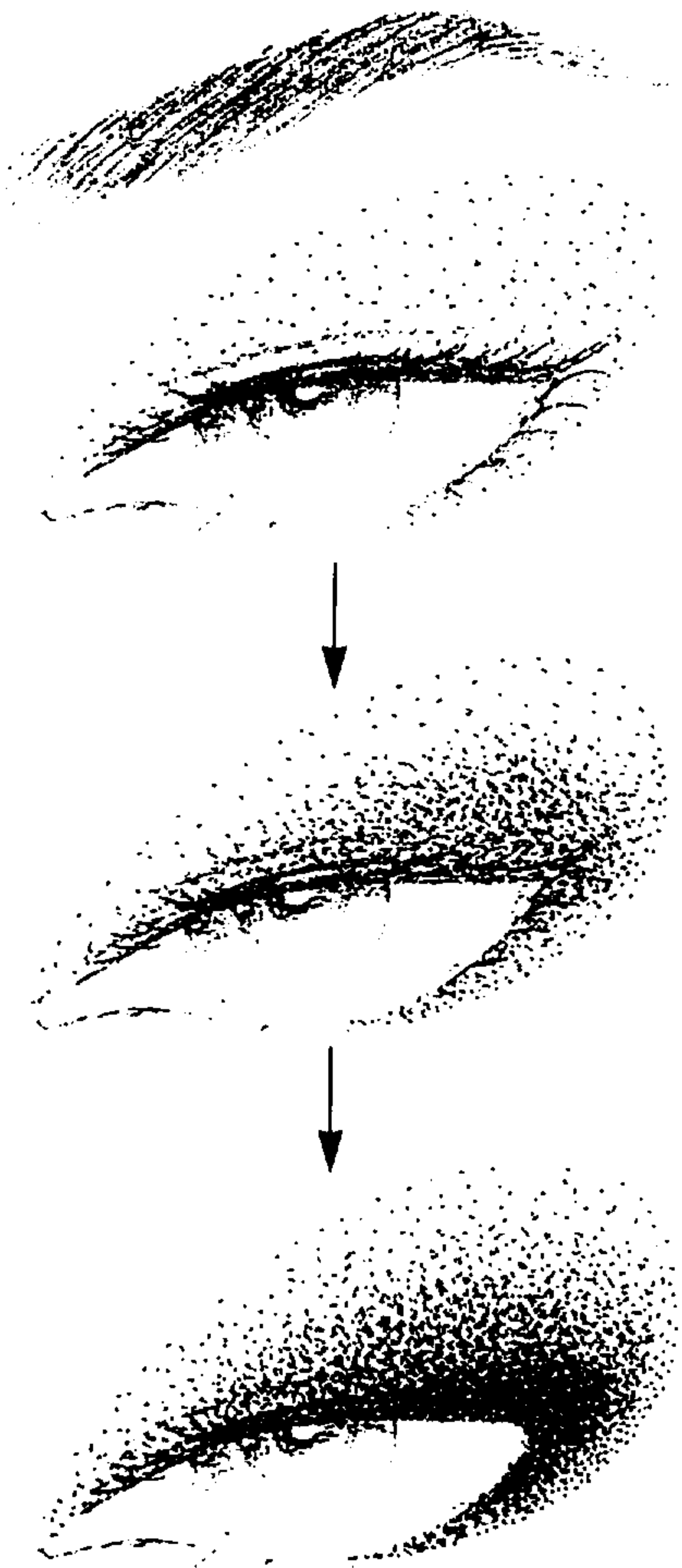


그림11. 눈꼬리에 음영이 들어간 눈



그림12. 눈앞머리에 음영이 들어간 눈



그림13. 눈앞머리와 꼬리에 음영이 들어간 눈



그림14.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이 있는 눈



3) 코형태와 명암

코는 얼굴의 각 부분과 모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코의 음영은 양볼과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정면에서 너무 두드러져 보이지 않아야 한다.

기본형 - 얼굴이 안정되고 건강해 보이며 수려한 느낌을 준다.

얼굴을 3등분하였을 때 그 1/3의 비율이 되는 코라 하겠다.

< 얼굴의 3등분 구분 >⁹⁾

- 1) 헤어라인에서 눈썹머리까지
- 2) 눈썹머리에서 콧망울까지
- 3) 콧망울에서 턱선까지(그림15)

9) 이학재, 앞의 책, p40

짧은코 - 명랑하고 낙천적으로 보이는 형태로써 눈썹머리에서 코끝까지 세로로 길게 그라데이션한다.

긴 코 - 지적으로 보이거나 비관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는 형태로써 눈머리에서 눈꺼플 주위에 새도를 하고 눈썹머리까지 음영을 연장시키지 않는다.

콧날과 콧망울이 퍼져 있는 형태 -

성격이 원만해 보이며 행동적으로 보이는 형태로써 양미간에 하이 라이트를 조금 넓게 주어 콧등이 지나치게 가늘어 보이지 않게 하며 콧망울에도 새딩을 준다.

그림15. 얼굴의 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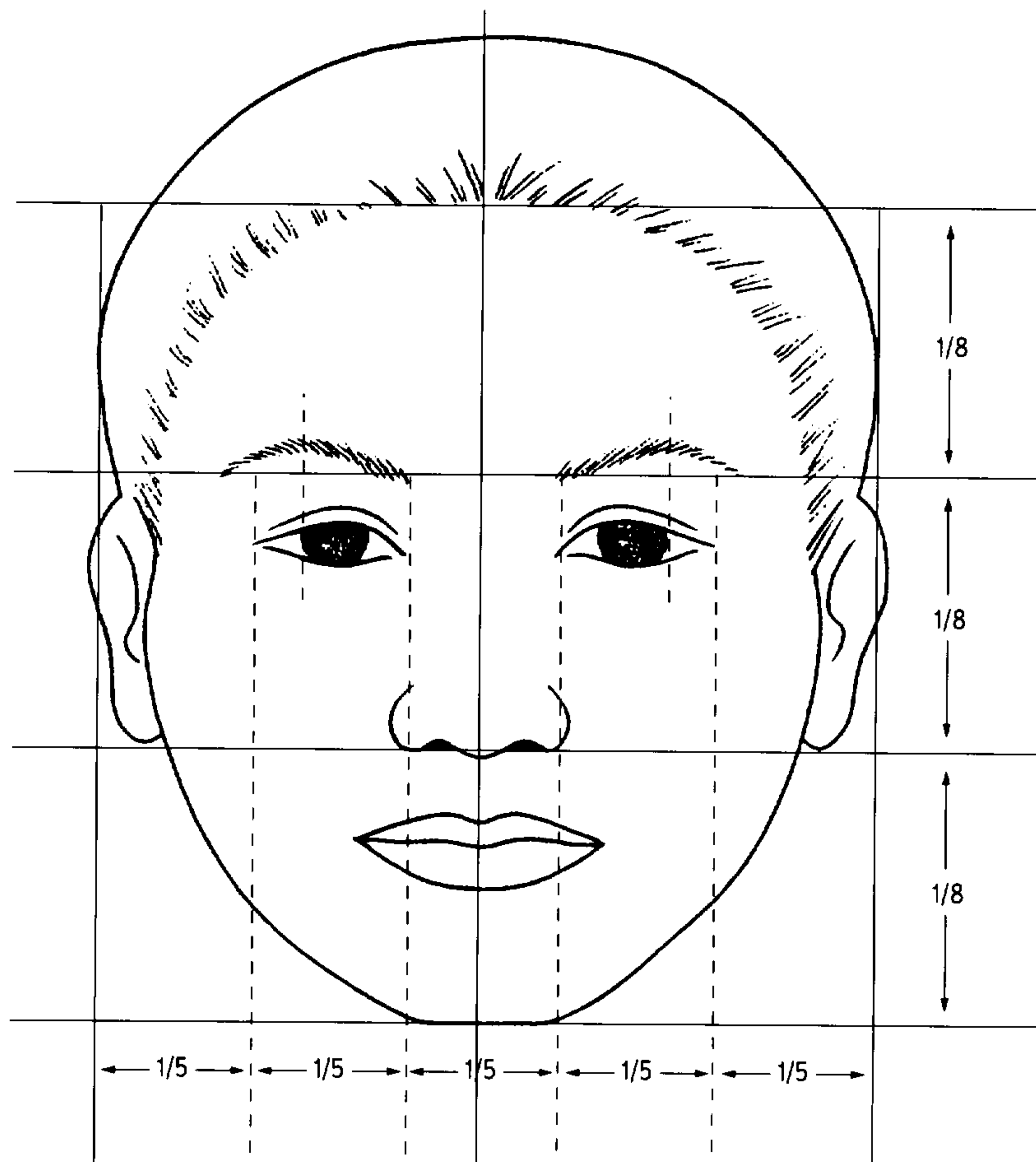


그림16. 짧은코에 들어가는 음영



그림17. 긴코에 들어가는 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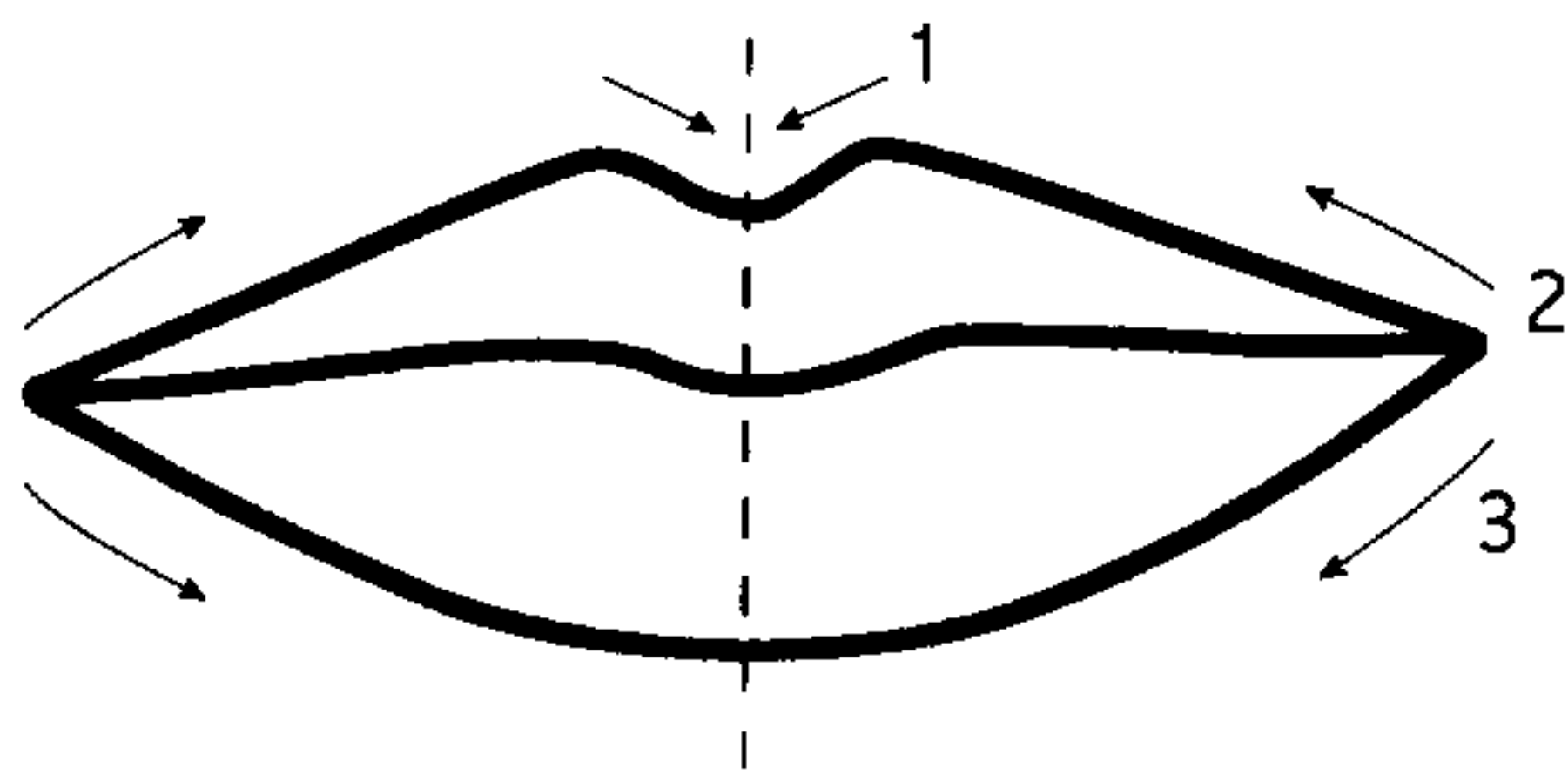
그림18. 콧날과 콧망울이 퍼져 있는 형태에 들어가는 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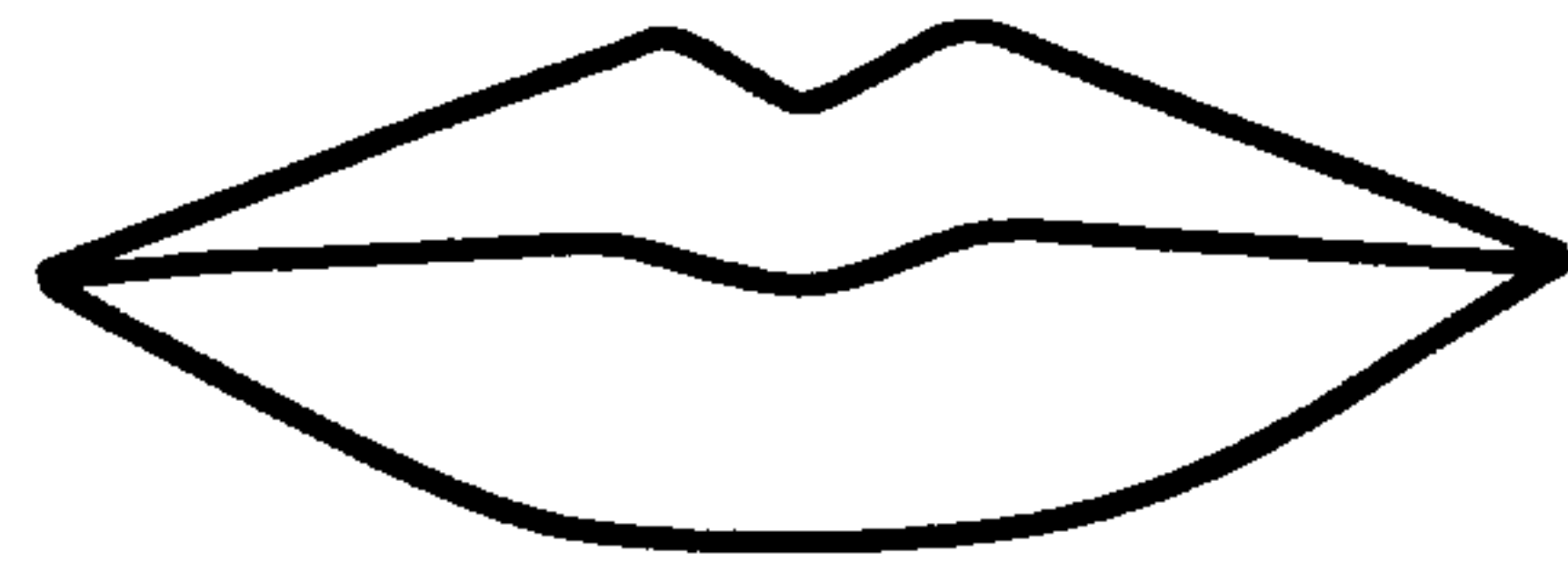
4) 입술형태와 명암

입술은 여성들의 매력을 표출함에 있어 가장 먼저 시선을 받는 부분이다. 건강하고 활력적이며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제일의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입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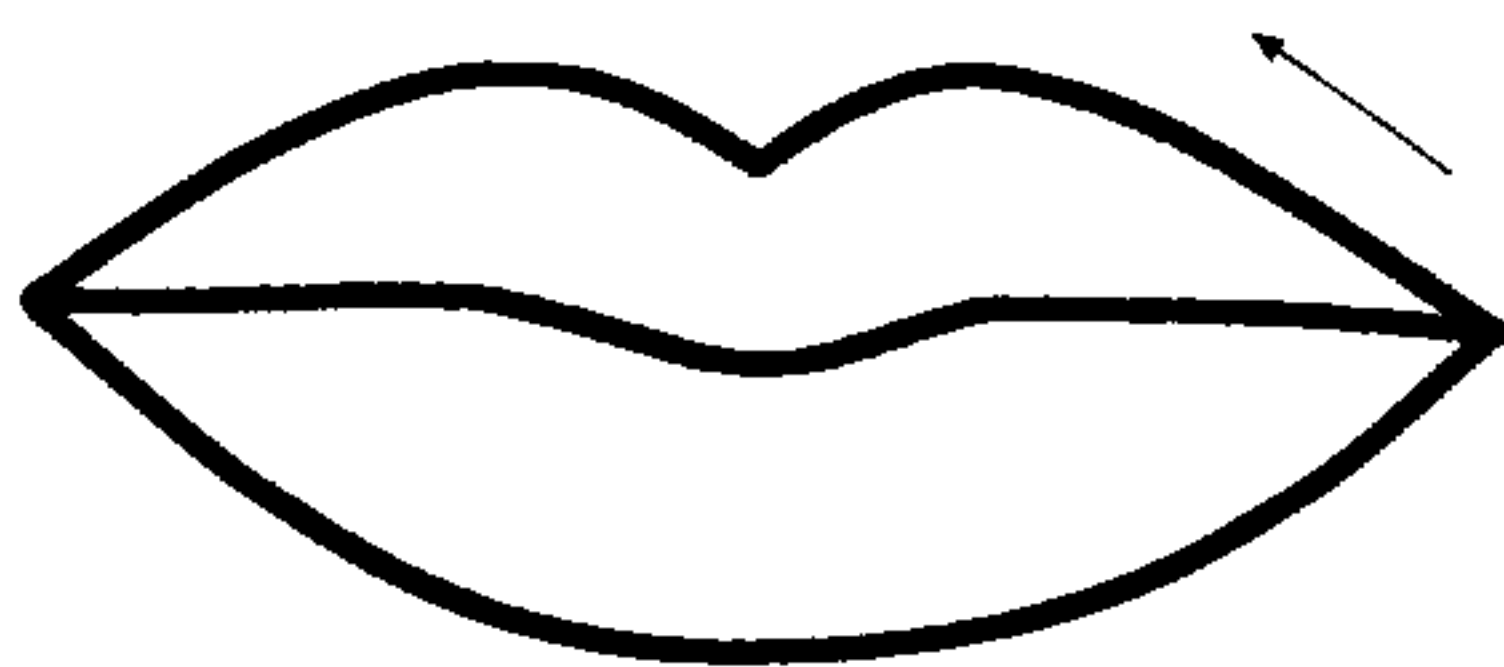
그림 19. 입술 그리는 방법과 입술선의 3가지 기본형



아래입술을 윗입술보다 조금 도톰하게 그린다



직선형-활동적이고 날카로우며 지적인 느낌



아웃 커브-부드럽고 원만하여 여성다운 느낌



인 커브-밝고 젊은 느낌을 주며 발랄한 현대미

그림20. 입술 형태별 수정법

출처. Teruko Kobayash, The Best Make-up, 유신문화사,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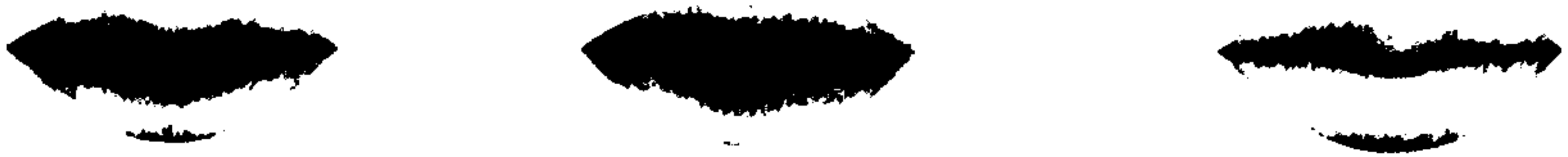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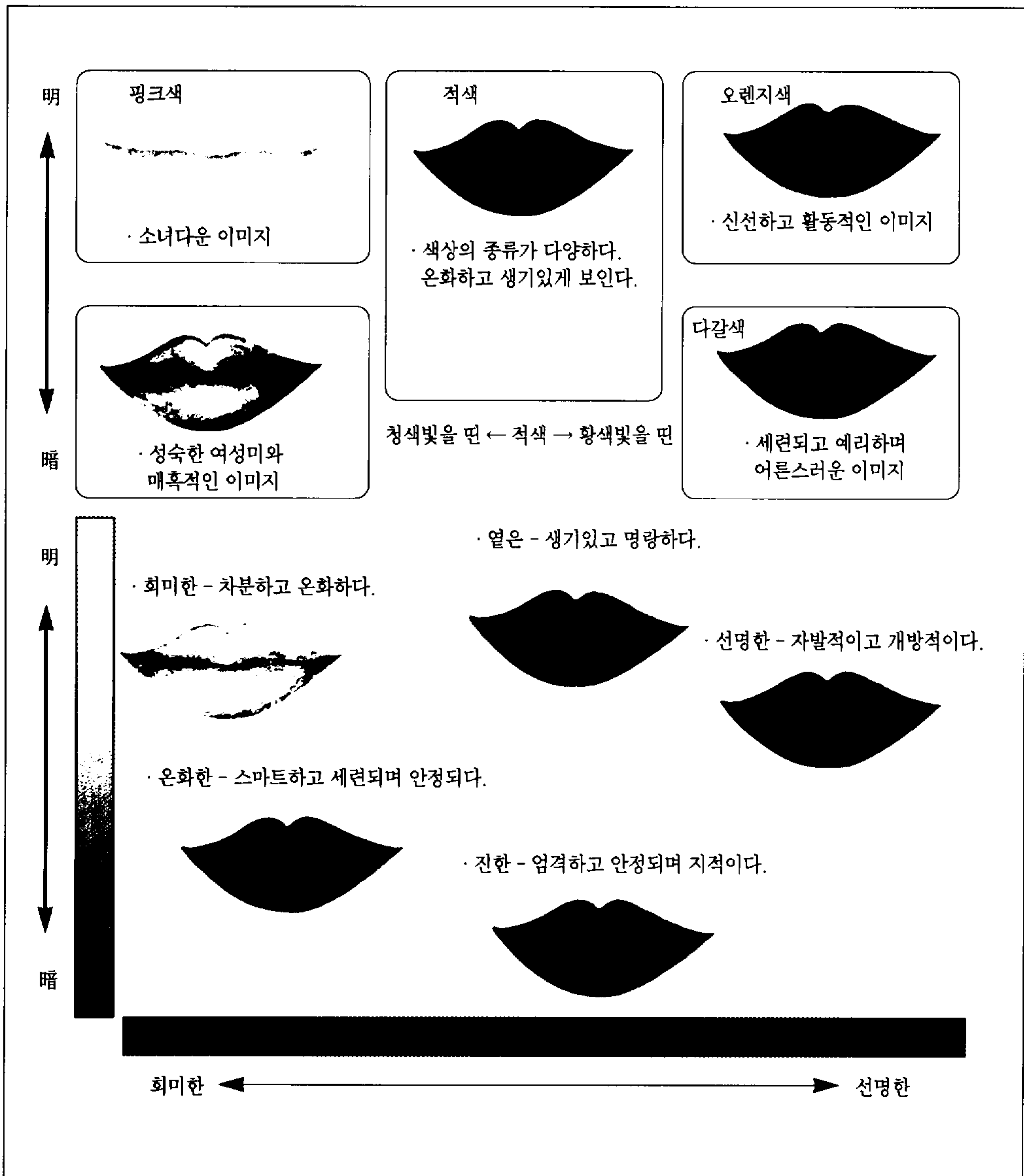
<p>너무 두꺼운 입술</p>	 <p>완성된 형태 실제 입술선보다 1mm 안으로 그린다.</p>
<p>너무 얇은 입술</p>	 <p>완성된 형태 실제 입술선보다 1mm 밖으로 그린다.</p>
<p>양끝이 처진 입술</p>	 <p>완성된 형태 끝 부분을 5mm정도 올려서 그린다.</p>
<p>튀어 나온 입술</p>	 <p>완성된 형태 선을 날카롭게 그리고 중앙부를 진하게 표현한다.</p>
<p>윤곽이 회미한 입술</p>	 <p>완성된 형태 윗 입술의 중앙 부분을 그려준다.</p>

그림21. 립스틱의 색상과 명암의 차이

출처. Teruko Kobayash, The Best Make-up, 유신문화사, p49



III. 색채적용을 통한 안면 이미지 표현 기법

조형예술(造形藝術)은 형태와 색채, 그리고 재료가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중 색채는 가장 중요하다. 색이란 아름답고 추한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색들이 어떻게 배색되느냐에 따라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추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서로 융합하여 미적 효과를 나타내며 메이크업에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색채 효과는 색을 나타내는 색채 언어와 이론들을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색채 감각을 필요로 한다.¹¹⁾

1. 색조를 적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표현 기법

우리를 둘러싼 색채의 세계는 참으로 놀랄 만큼 풍부하게 충만되어 있다.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이나 모두에게 색채가 주어져 있고, 또 자연스럽게 안겨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색채의 세계를 그대로 향유한다는 데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색은 안으려고 하는 처지에 있는 이른바 여러가지 작업에 있어서는 색을 향유하기에 앞서 색을 다루는 솜씨가 있어야 하니 그 지식을 터득하고 색에 대한 감각을 높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는 현대적인 색채 개념의 과학적인 전문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새로운 색채학이고 나아가서는 색채 공학이다.¹²⁾

우리의 눈을 통하여 색을 시각적으로 전달받게 되는데 색을 대별하면 무채색과 유채색의 두가지가 된다. 제아무리 무수한 색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분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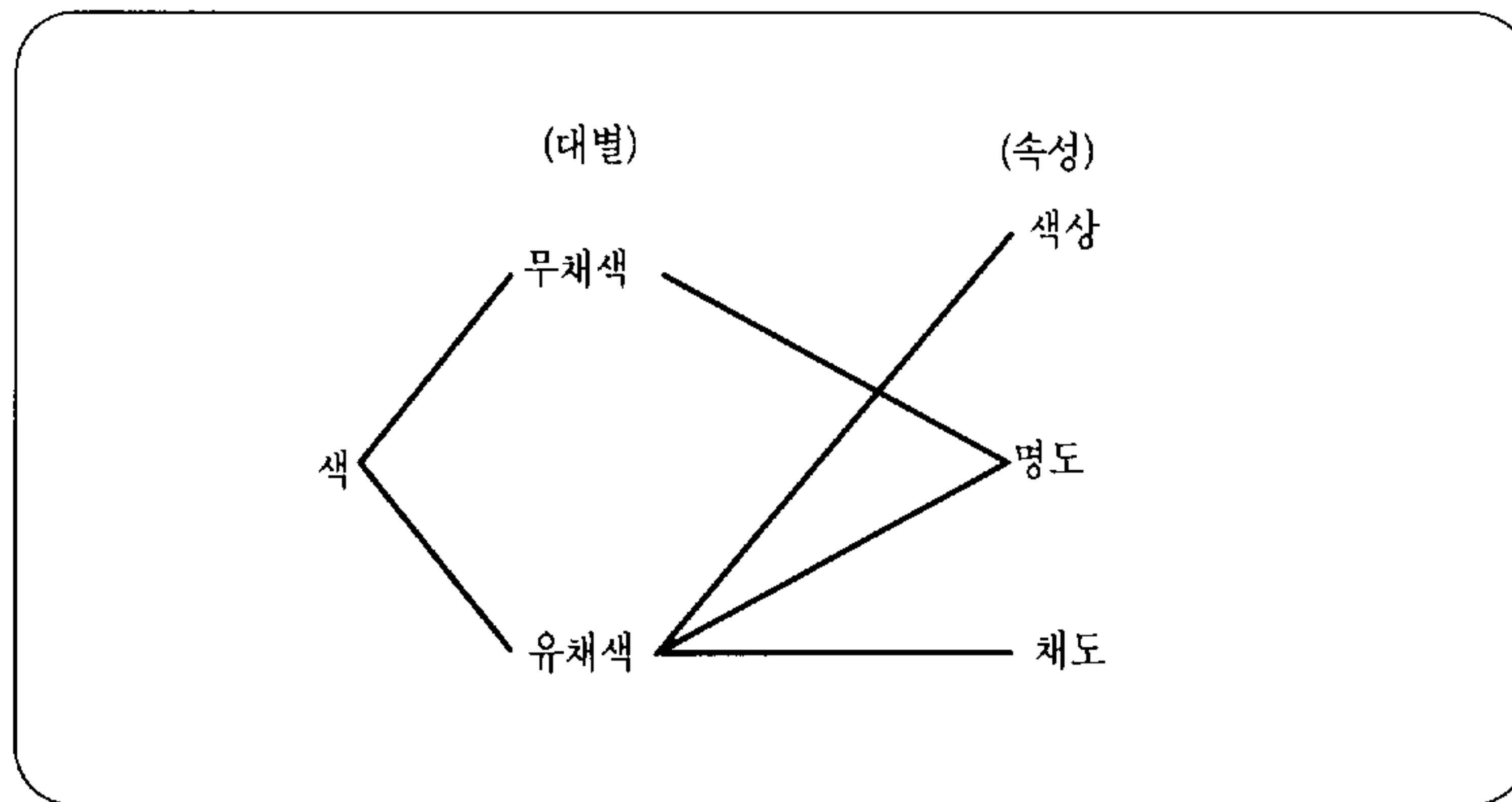
10) 최용훈,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87, p6

11) 김희숙, 이은임, 앞의 책, p115

12) 김효주, 한국여성의 복식색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p9

단계에서는 무채색과 유채색의 두 가지로 밖에는 분류되지 않을뿐 아니라 갖가지 색들도 실은 이 두 종류 이외에 있을 수 없다.

그림22. 색의 3속성



그 가운데 하나 무채색이 지닌 속성은 오직 하나 명도이다. 색에는 밝고 어두움의 구별이 반드시 있는데, 그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를 '명도' (Value)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장 밝은 색이 흰색이고, 가장 어두운 색이 검정이며, 그 사이에 회색들이 여러가지 단계의 명도차에 의한 회색이 된다. 이 구별은 밝기만의 성질로 분류한 것으로, 이것은 다른 속성인 색상이나 채도와는 독립된 속성이다. 이러한 색을 무채색이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채색이란 색상과 채도가 없는 명도만으로 이루어지는 명암의 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채색은 색채 개념에서는 색이 아니라 명암의 농담도라고도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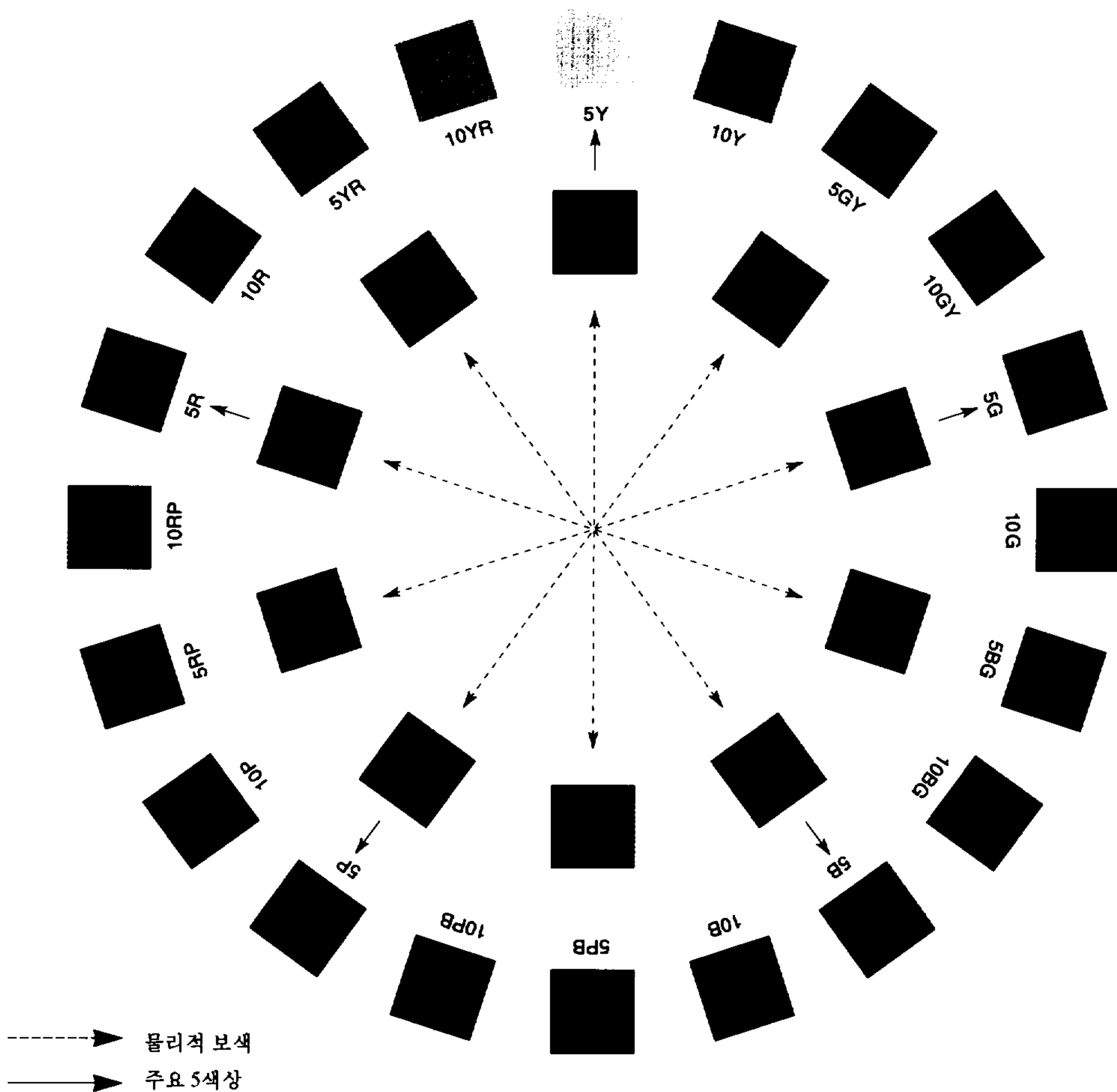
그러면 유채색은 어떠한가. 가령 빨강색을 예로 해서 설명한다면 빨강이란 먼저 '색상' (Hue)을 나타내는 구분이 된다. 그것은 무채색에는 없었던 속성으로 유채색으로서는 최초로 나타나는 속성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색상 '빨강'에 속하는 색에는 밝은 빨강도 있고, 어두운 빨강도 있기 마련이니 이들을 구분짓는 속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채색의 제2의 속성에 명도가 요소로 따르게 된다. 이처럼 유채색은 색상별, 명도별로 분류되는 색군이라 하겠는데, 또 거기에는 빨강색이면서 탁한 것이 있고, 선명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하나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속성을 '채도' (Chroma)라고 일컫게 된다. 결국 채도는 유채색의 색이 명암의 요소가 아닌 선명한가, 탁한가를 구별하는 제 3의 속성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유채색은 무채색의 백색, 회색, 흑색의 계열에 속하는 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포함한 각종의 색채본체(色彩本體) 혹은 컬러시스템으로 정리, 계열화, 분류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이치에서 대표적인 색채 체계로는 기본적인 먼셀 컬러 시스템(그림23), 실용적인 오스트발트 컬러 시스템 등이 있다.

그림23. 먼셀 색상환



색조(色調, Tone)는 명도와 채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같은 색상을 지닌 색이라도 명암, 농담, 강함, 약함 등의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고 정리한 것이다.

하나의 색상 가운데 여러가지 색조를 12가지 범위로 분류하여 vivid, strong, bright, pale, very pale, light grayisy, light, grayisy, dull, deep, dark, dark grayish 등이다.

표10. 색조의 색채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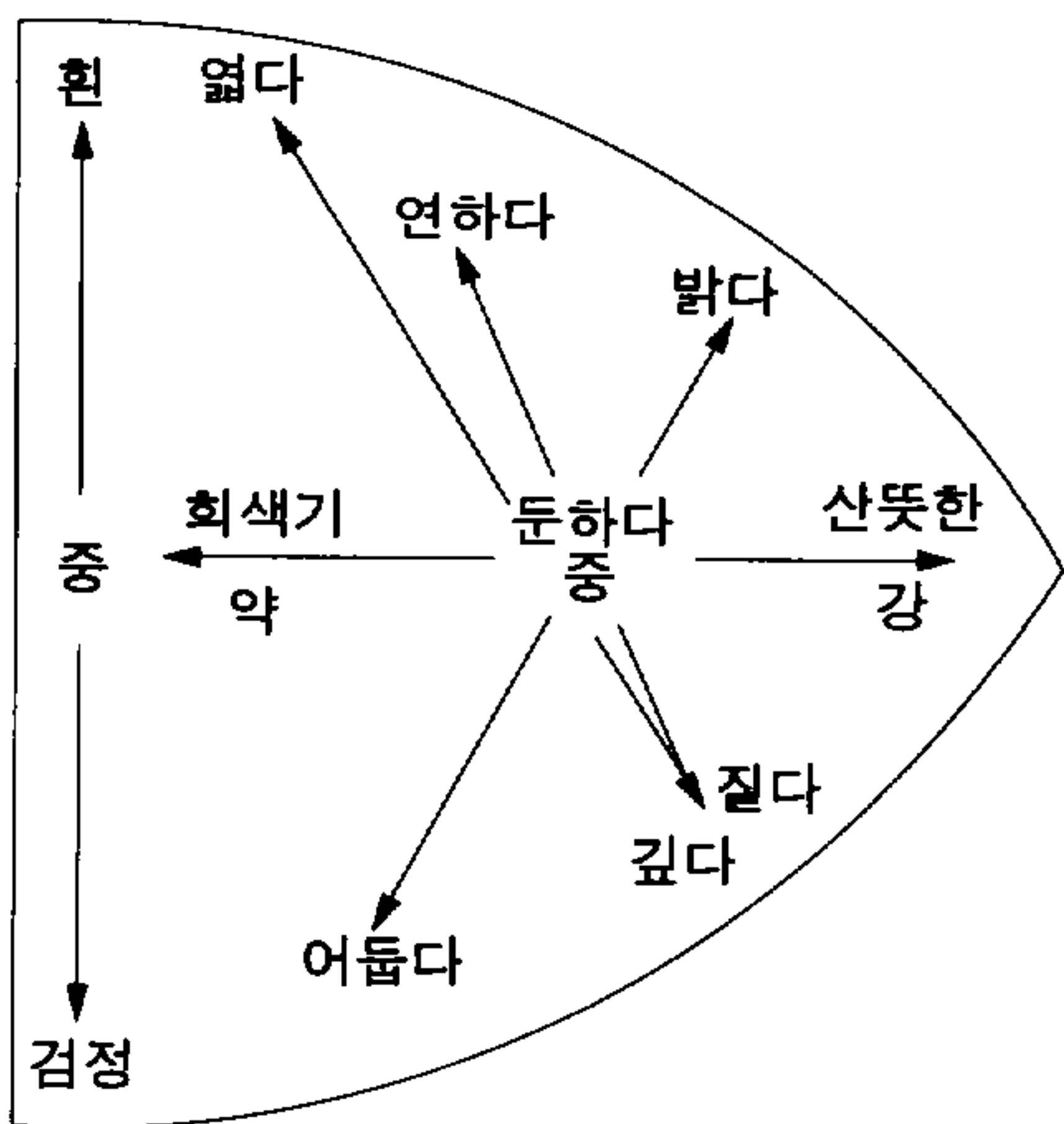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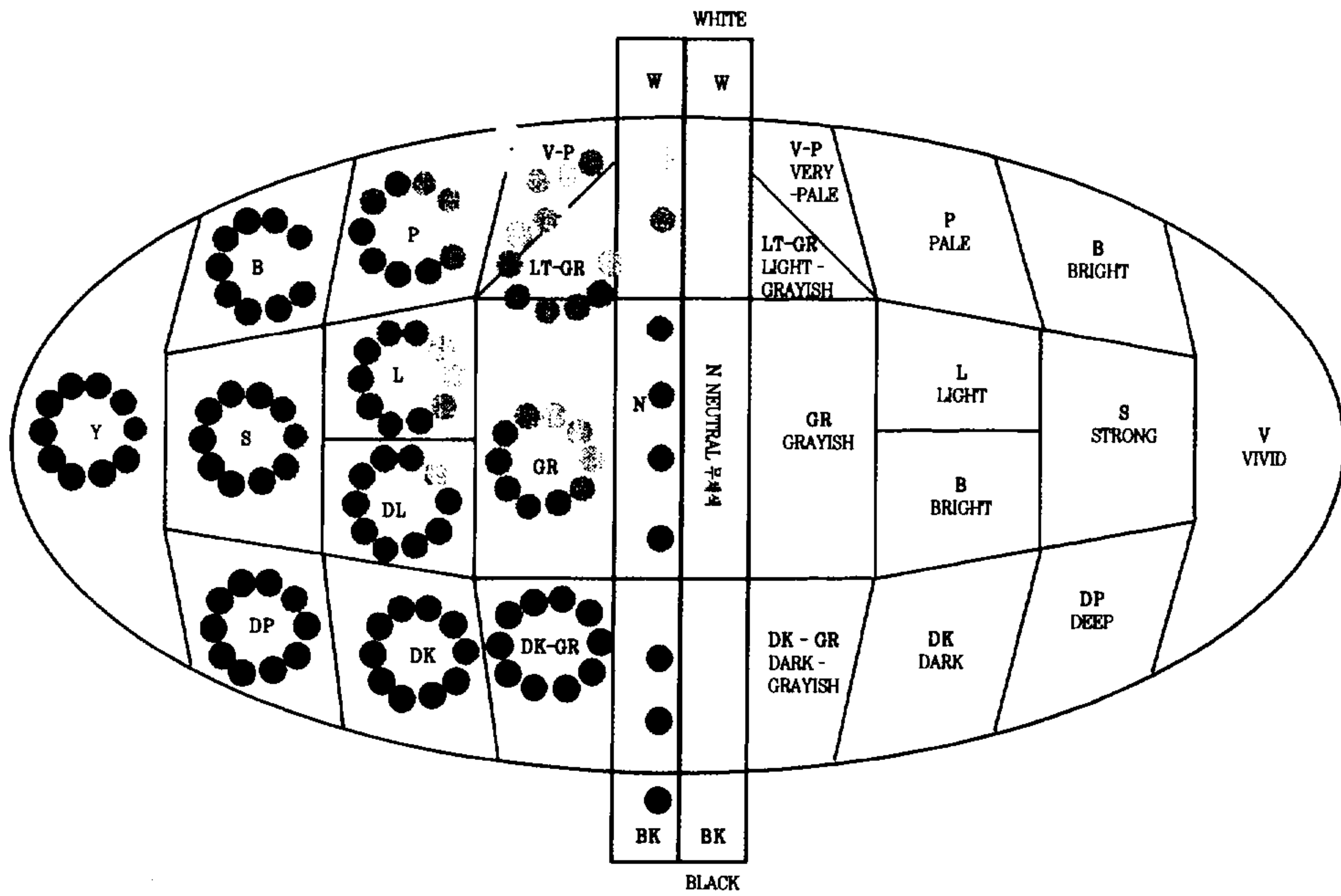
약호	대응영어	색채이미지
V	Vivid	활동적인, 힘있는
S	Strong	화사한, 동적인
B	Bright	싱싱한, 투명한
P	Pale	부드러운, 산뜻한
Vp	Very Pale	부드러운, 가벼운
Lgr	Light Grayish	정적인
L	Light	부드러운, 화사한
Gr	Grayish	수수한, 정적인
Dl	Dull	뻘뻘한
Dp	Deep	맛이 깊은, 깊이가 있는
Dk	Dark	단단한, 어두운
Dgr	Dark Grayish	안정된, 텁텁한, 단단한

그리하여 분류기호상으로는 색상, 명도, 채도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나 실제로 색을 취급하는 처지에서는 시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색의 위상을 그대로 응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이번 장에서는 12톤에 맞는 잡지 인쇄물을 스크랩하여 재구성해 보았고 여기에 메이크업 일러스트를 접목해 보았다.

각각의 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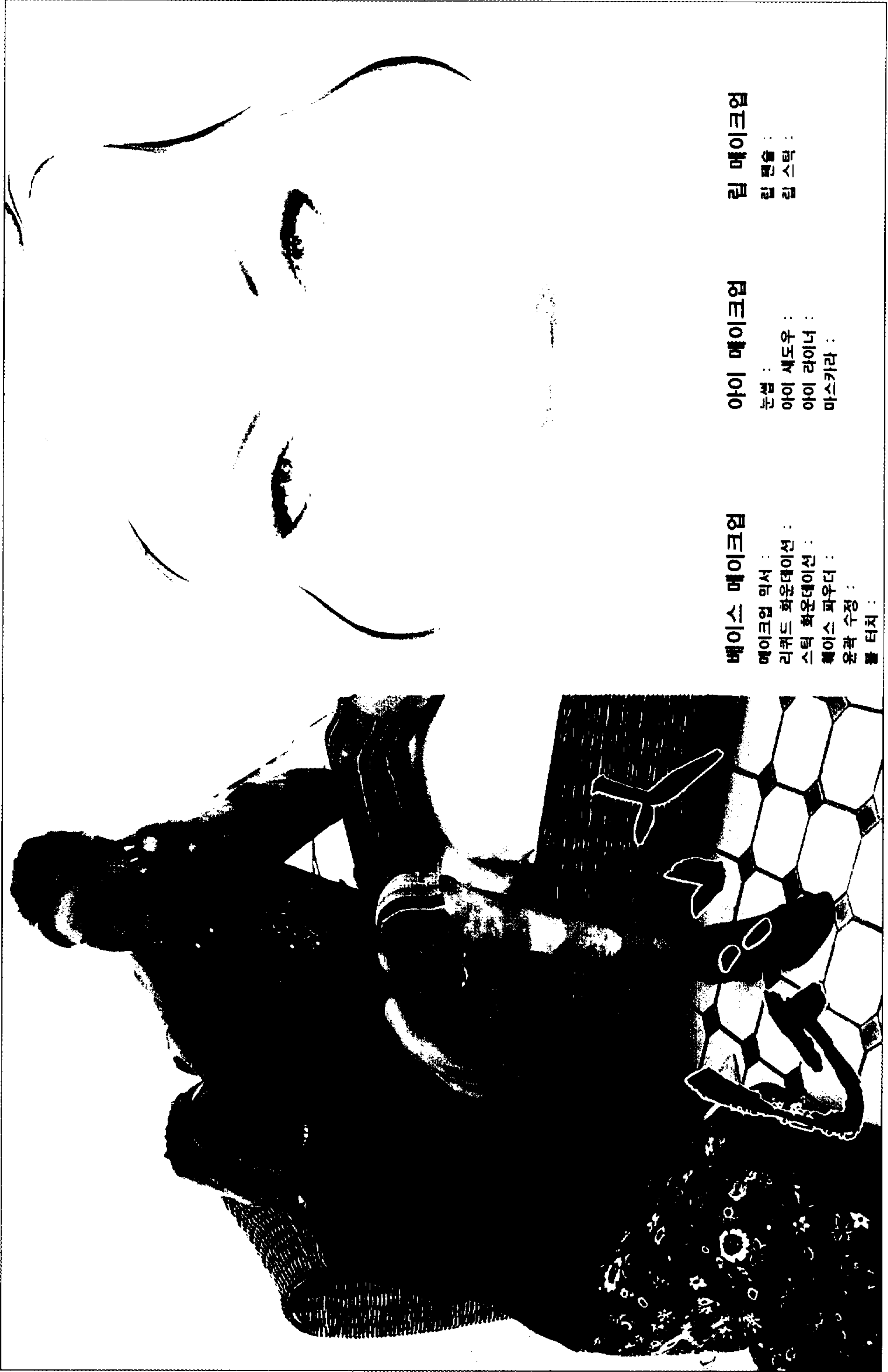
그림 24. 색조의 기본도



고채도	V-P	P	B
	LT-GR		
중채도	GR	L	S
		DL	
저채도	DK-GR	DK	DP
	저채도	중채도	고채도

표 11. 계통색 분류

	R	YR	Y	GY	G	BG	B	PB	P	RP	N
V	5R/V	5YR/V	5Y/V	5GY/V	5G/V	5BG/V	5B/V	5PB/V	5P/V	5RP/V	N9.5
S	5R/S	5YR/S	5Y/S	5GY/S	5G/S	5BG/S	5B/S	5PB/S	5P/S	5RP/S	8.5
B	5R/B	5YR/B	5Y/B	5GY/B	5G/B	5BG/B	5B/B	5PB/B	5P/B	5RP/B	8
P	5R/P	5YR/P	5Y/P	5GY/P	5G/P	5BG/P	5B/P	5PB/P	5P/P	5RP/P	7
Vp	5R/Vp	5YR/Vp	5Y/Vp	5GY/Vp	5G/Vp	5BG/Vp	5B/Vp	5PB/Vp	5P/Vp	5RP/Vp	6.5
Lgr	5R/lgr	5YR/lgr	5Y/lgr	5GY/lgr	5G/lgr	5BG/lgr	5B/lgr	5PB/lgr	5P/lgr	5RP/lgr	5.5
L	5R/L	5YR/L	5Y/L	5GY/L	5G/L	5BG/L	5B/L	5PB/L	5P/L	5RP/L	5
Gr	5R/Gr	5YR/Gr	5Y/Gr	5GY/Gr	5G/Gr	5BG/Gr	5B/Gr	5PB/Gr	5P/Gr	5RP/Gr	4
DI	5R/DI	5YR/DI	5Y/DI	5GY/DI	5G/DI	5BG/DI	5B/DI	5PB/DI	5P/DI	5RP/DI	3.5
Dp	5R/Dp	5YR/Dp	5Y/Dp	5GY/Dp	5G/Dp	5BG/Dp	5B/Dp	5PB/Dp	5P/Dp	5RP/Dp	2.5
Dk	5R/Dk	5YR/Dk	5Y/Dk	5GY/Dk	5G/Dk	5BG/Dk	5B/Dk	5PB/Dk	5P/Dk	5RP/Dk	2
Dgr	5R/Dgr	5YR/Dgr	5Y/Dgr	5GY/Dgr	5G/Dgr	5BG/Dgr	5B/Dgr	5PB/Dgr	5P/Dgr	5RP/Dgr	1.2



베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악서 :
리퀴드 화운데이션 :
스틱 화운데이션 :
베이스 파우더 :
윤곽 수장 :
볼 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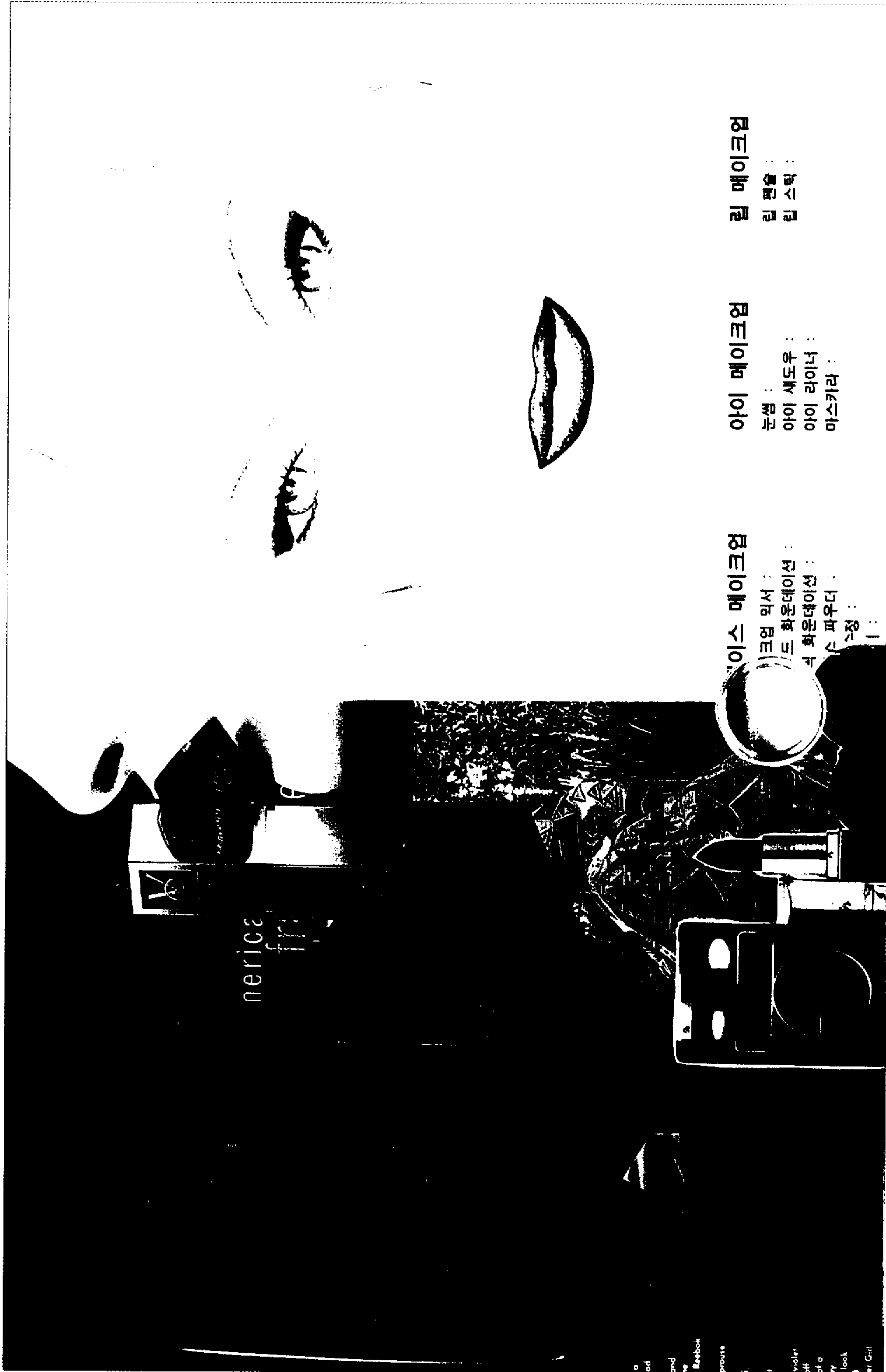
아이 메이크업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그림 25. Vivid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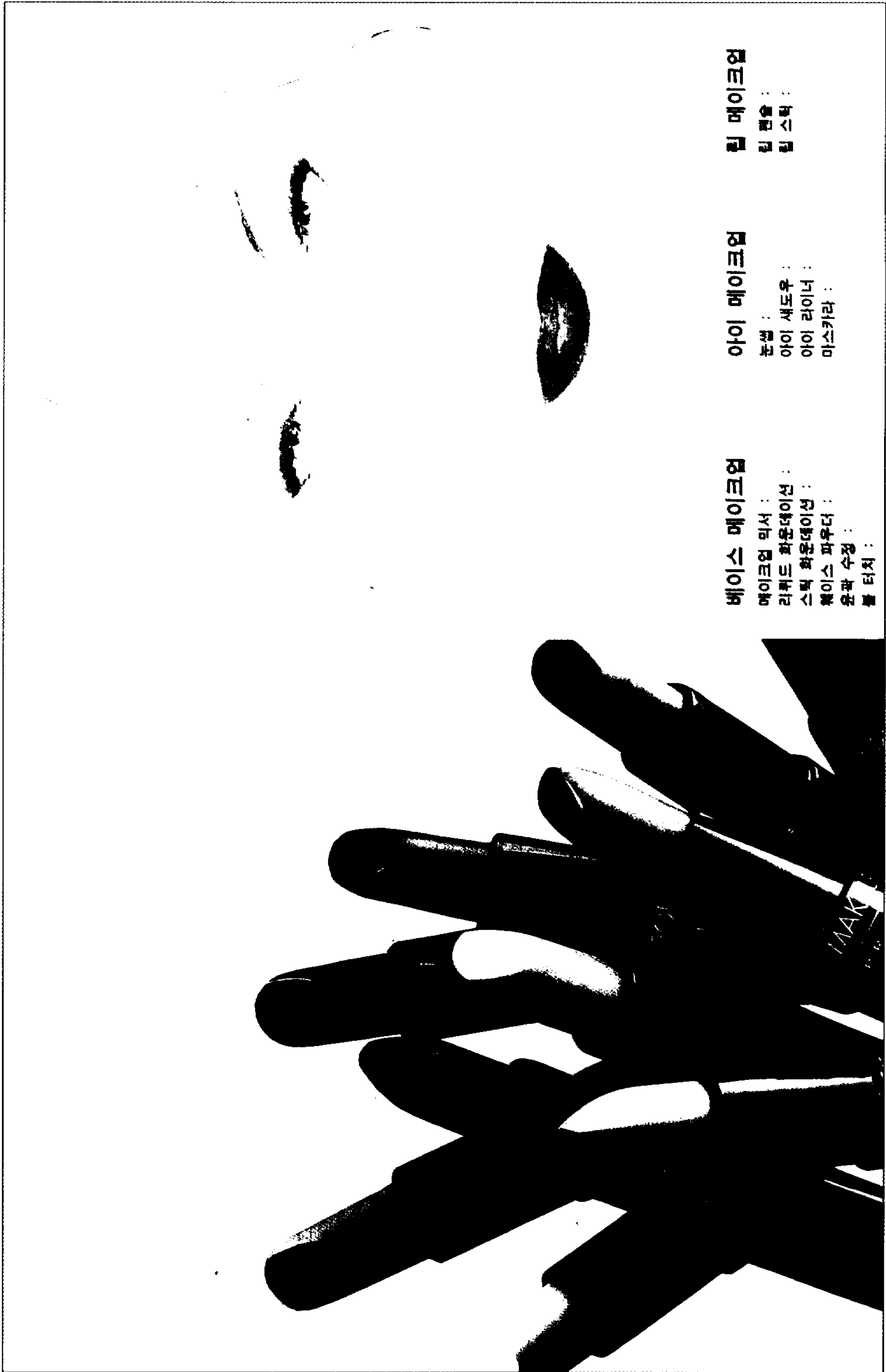
아이 메이크업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페이스 메이크업

크림 워셔 :
트 화운데이션 :
루 화운데이션 :
스 파우더 :
스장 :
스 :

그림 26. Strong



베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미서 :
리퀴드 화운데이션 :
스틱 화운데이션 :
웨이스 파우더 :
윤곽 수정 :
볼 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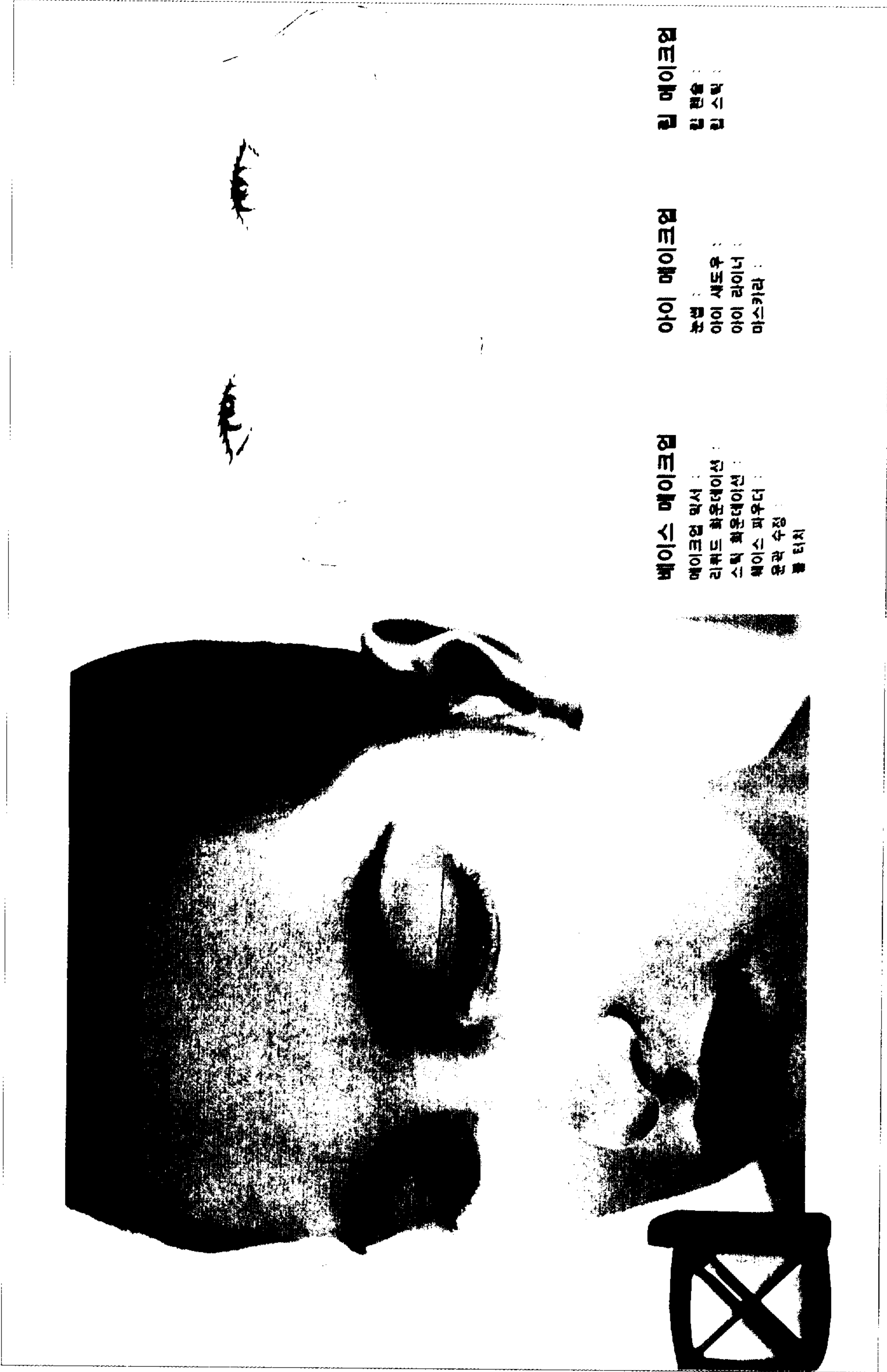
아이 메이크업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그림27. Bright



베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믹서 :
리퀴드 파운데이션 :
스틱 파운데이션 :
베이스 파우더 :
윤곽 수장 :
볼 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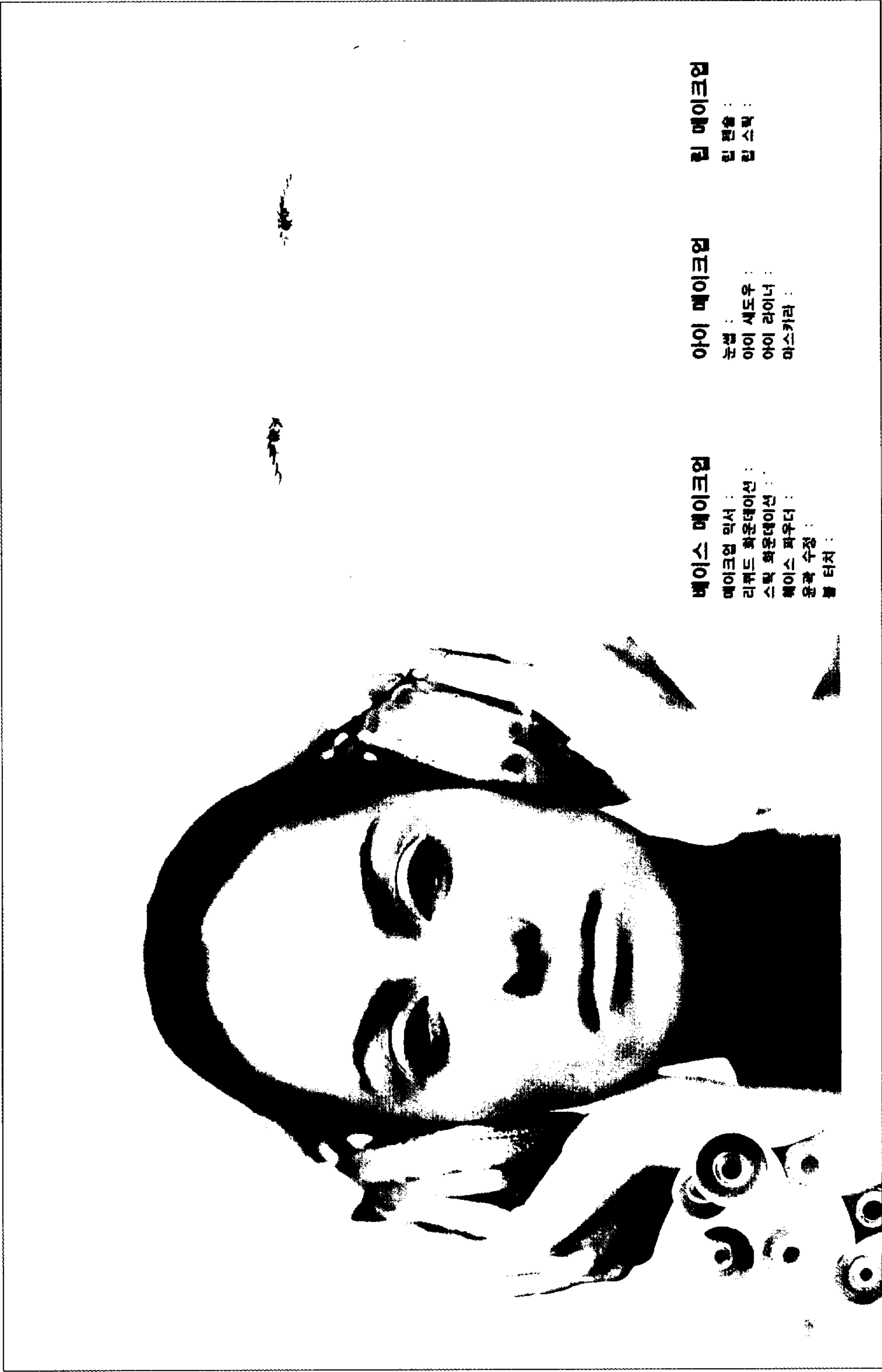
아이 메이크업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그림28. Pale



베이스 메이크업

- 메이크업 믹서 :
- 리퀴드 파운데이션 :
- 스틱 파운데이션 :
- 베이스 파우더 :
- 윤곽 수정 :
- 블 터치 :

아이 메이크업

- 눈썹 :
- 아이 섀도우 :
- 아이 라이너 :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 립 펜슬 :
- 립 스틱 :

그림29. Very pale



베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믹서 :
 클레드 화운데이션 :
 스틱 화운데이션 :
 페이스 파우더 :
 윤곽 수정 :
 볼 터치 :

아이 메이크업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그림30. Light grayish



베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믹서 :
리퀴드 화운데이션 :
스틱 화운데이션 :
베이스 파우더 :
윤곽 수정 :
블 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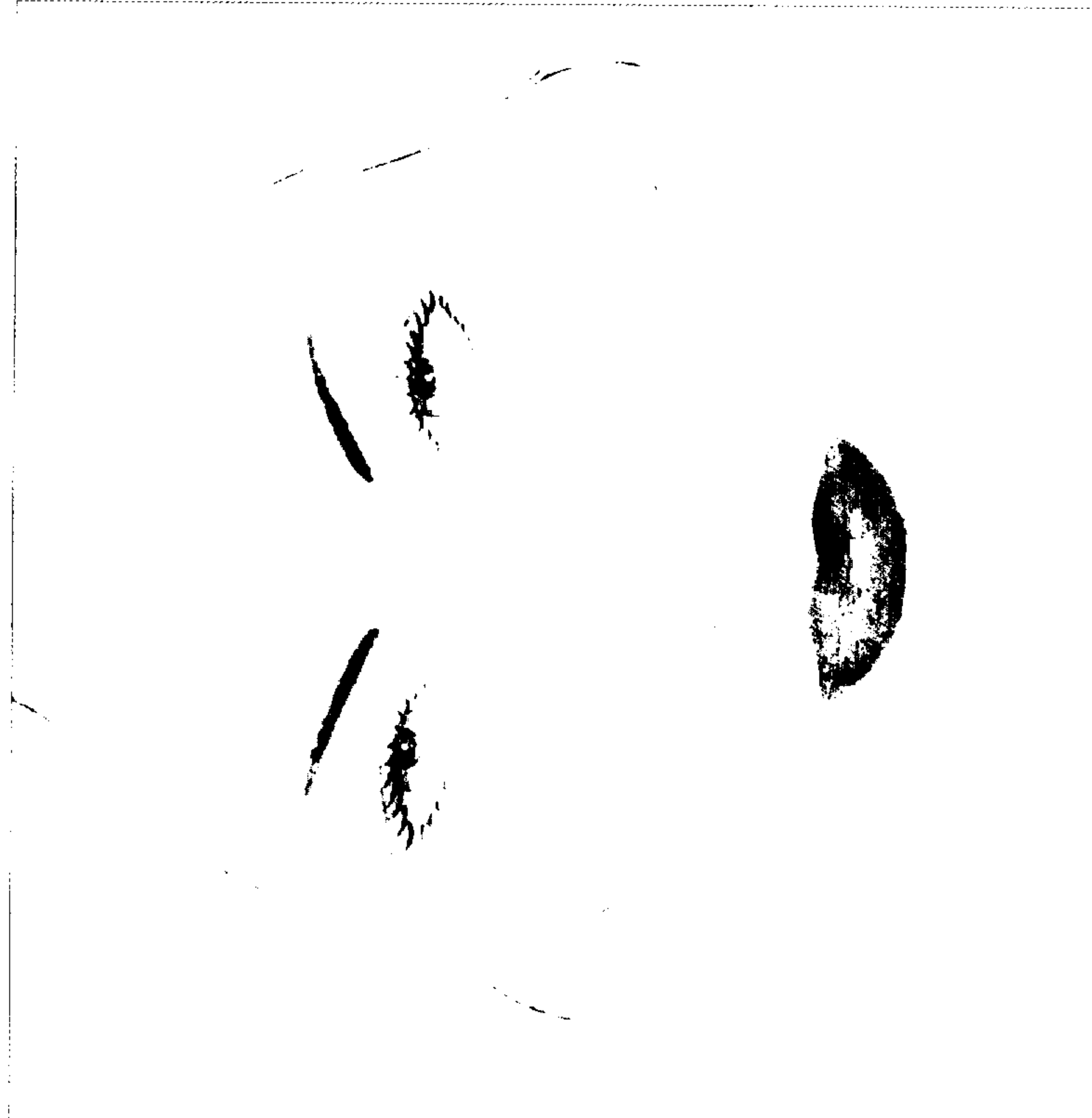
아이 메이크업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그림31. Light



베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믹서 :
리퀴드 화운데이션 :
스틱 화운데이션 :
페이스 파우더 :
윤곽 수정 :
볼 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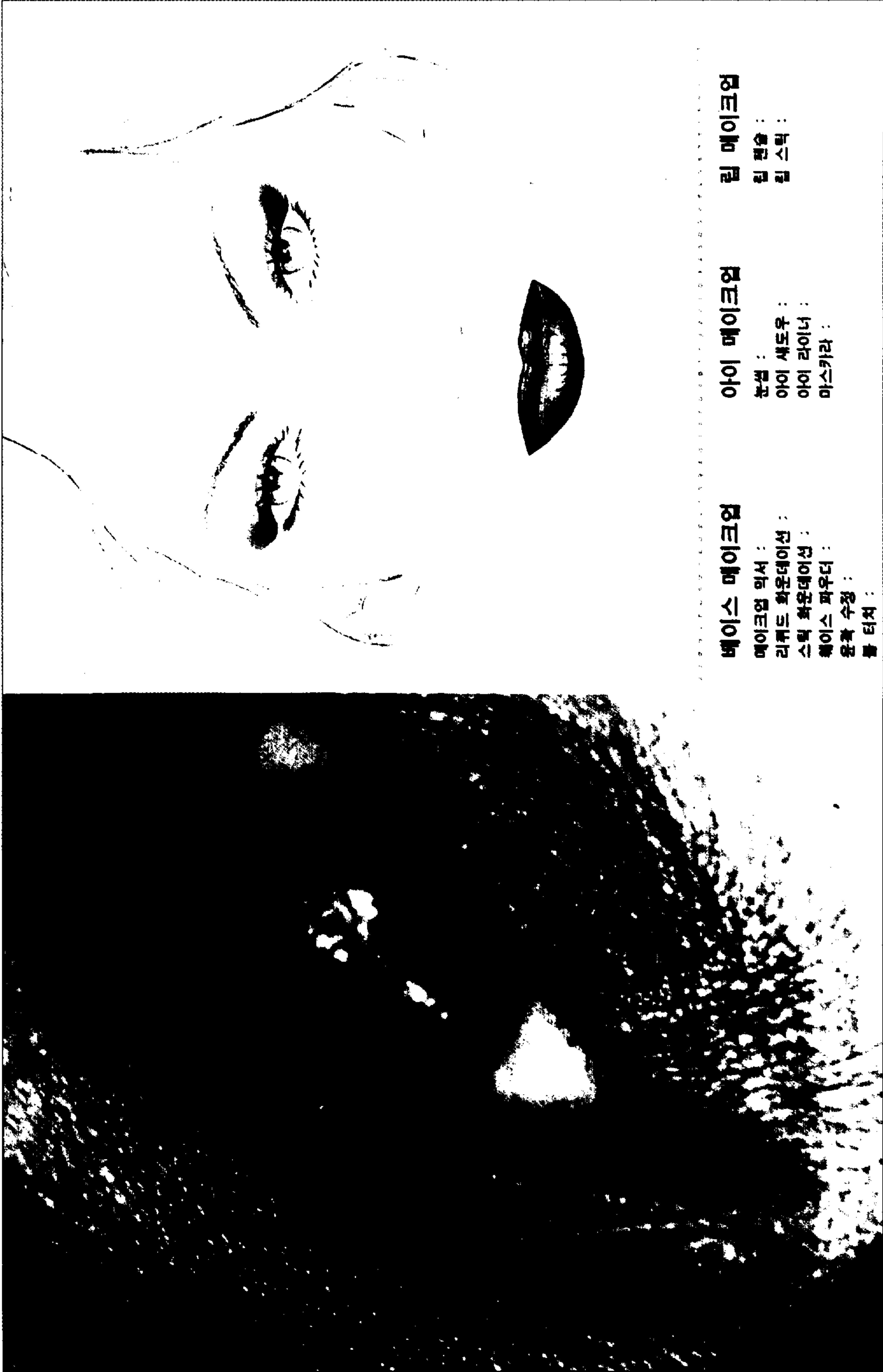
아이 메이크업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그림32. Grayish



베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의서 :
리퀴드 화운데이션 :
스틱 화운데이션 :
베이스 파우더 :
윤곽 수정 :
볼 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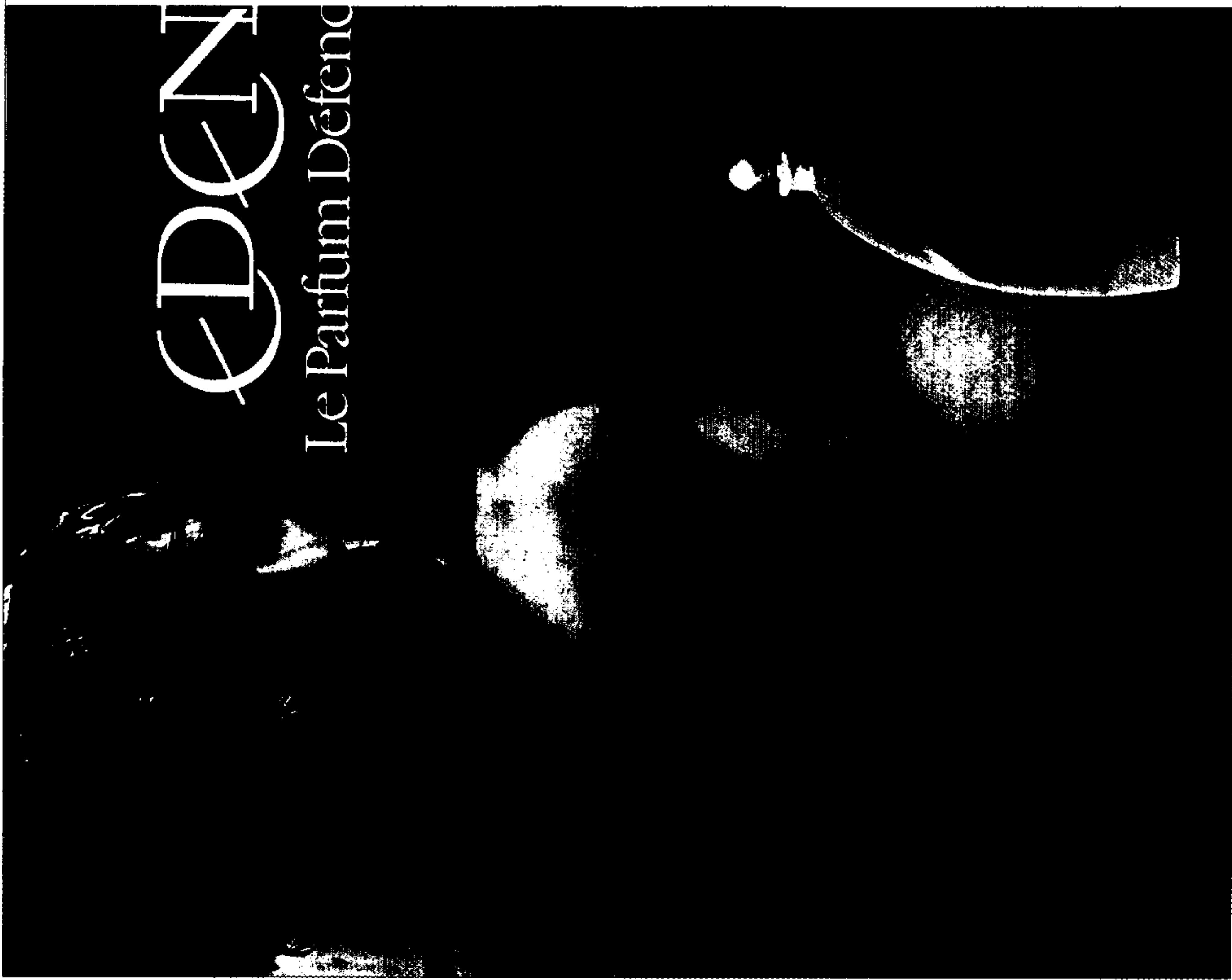
아이 메이크업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그림33. Dull



EDEN
Le Parfum Défense

.....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메이크업 믹서 : 눈섀 : 립 펜슬 :
리퀴드 화운데이션 : 아이 섀도우 : 립 스틱 :
스틱 화운데이션 : 아이 라이너 :
베이스 파우더 : 마스크이라 :
윤곽 수정 :
볼 터치 :

그림34. Deep



베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믹서 :
리퀴드 화운데이션 :
스틱 화운데이션 :
베이스 파우더 :
윤곽 수정 :
볼 터치 :

아이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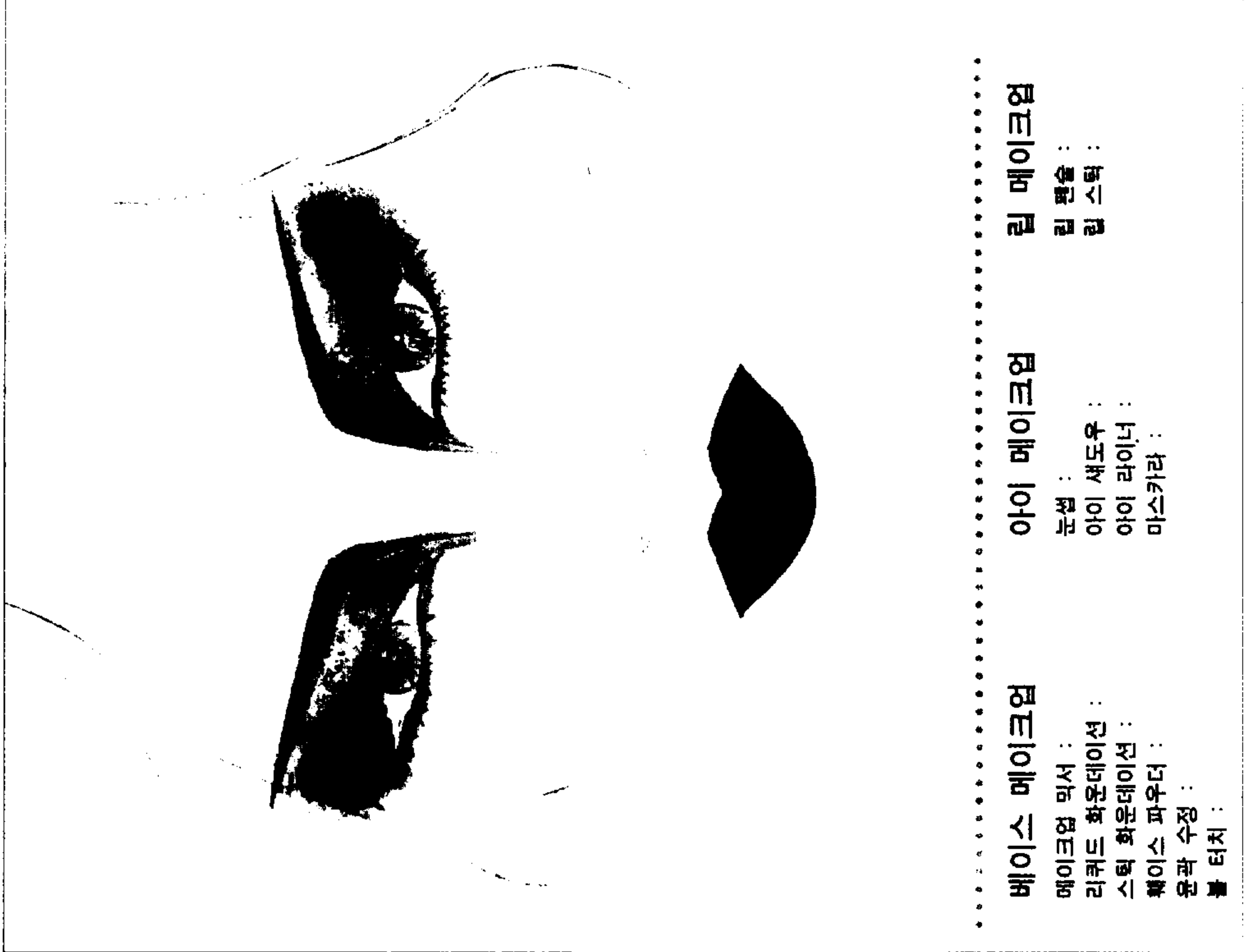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그림 35. Dark



베이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믹서 :
리퀴드 화운데이션 :
스틱 화운데이션 :
페이스 파우더 :
윤곽 수정 :
블 터치 :

아이 메이크업

눈썹 :
아이 섀도우 :
아이 라이너 :
마스카라 :

립 메이크업

립 펜슬 :
립 스틱 :

그림36. Dark grayish

2. 토털 코디네이트 개념의 계절이미지 메이크업

패션에 있어서 색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며 언제나 색채는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패션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과 함께 전체적 조화가 중시되는 토털 패션으로 되어가고 있다. 외관상의 통일미의 미를 이루는데 메이크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신의 개성 표현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등에 따라 더욱 메이크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패션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테크닉과 색감이 요구된다. 패션의 변화는 메이크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같이 발맞추어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상색과 조화되는 메이크업 색상군을 나누어 보고 계절감을 표현하는 이미지 메이크업을 알아 보겠다. 먼저 피부색에 따라 어울리는 의상색을 보면 동양인처럼 약간 노란기를 가지고 있는 황색 피부는 브라운, 카키, 올리브 그린등 중간색조의 의상이 무난하다. 이 색상은 대체로 품위있고 지적으로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의 의상을 선택하여도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¹³⁾ 서양인들처럼 흰피부는 파스텔톤의 핑크, 블루, 오렌지등의 색상이 연한 금발 또는 은발과 어울려 색채의 조화를 이룬다.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원색의 컬러대비가 화려한 의상을 입어 주면 검은 피부와 원색 의상이 절묘하고 강렬하게 매치되어 환상적이다.

의상색과 조화되는 포인트 메이크업 색상은 다음과 같다.(표12)

또한 의상색은 계절감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계절에 따라 의상색이 변함과 동시에 메이크업 색상도 함께 표현됨으로써 통일감과 세련미를 더해 주어 토털 코디네이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계절적으로 봄에는 누구나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낀다. 긴 겨울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사한 파스텔 계열이다. 미색, 분홍,

13) 현하, 현하의 차밍스쿨 패션 다이어트, 삶과 꿈, 1995, p79

표12. 의상색과 메이크업 포인트 색상의 조화

의상색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레드	브라운, 블루, 퍼플, 그레이	레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그린, 그레이	코랄, 레드
옐로우	브라운, 그린, 그레이	브라운, 레드
그린	브라운, 그린, 블루, 그레이	오렌지, 브라운
블루	블루, 퍼플, 그레이	핑크, 레드, 퍼플
퍼플	브라운, 블루, 퍼플, 그레이	핑크, 퍼플, 레드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그린	브라운, 오렌지
검정/흰색	브라운, 그린, 블루, 퍼플, 그레이	소프트한 로즈계

연보라, 소라색등 파스텔 계열 색상은 그 어느 계절보다 더욱 화사하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차가운 느낌의 색상을 선호하게 된다. 어디에나 열려 있는 이미지의 흰색은 신선하고 순수하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여름철 최고의 색상. 블루나 그린은 평화와 휴식, 시원한 바닷바람을 상기시켜주는 청량감 있는 색조이고 청보라색은 귀족적이면서도 품위가 있어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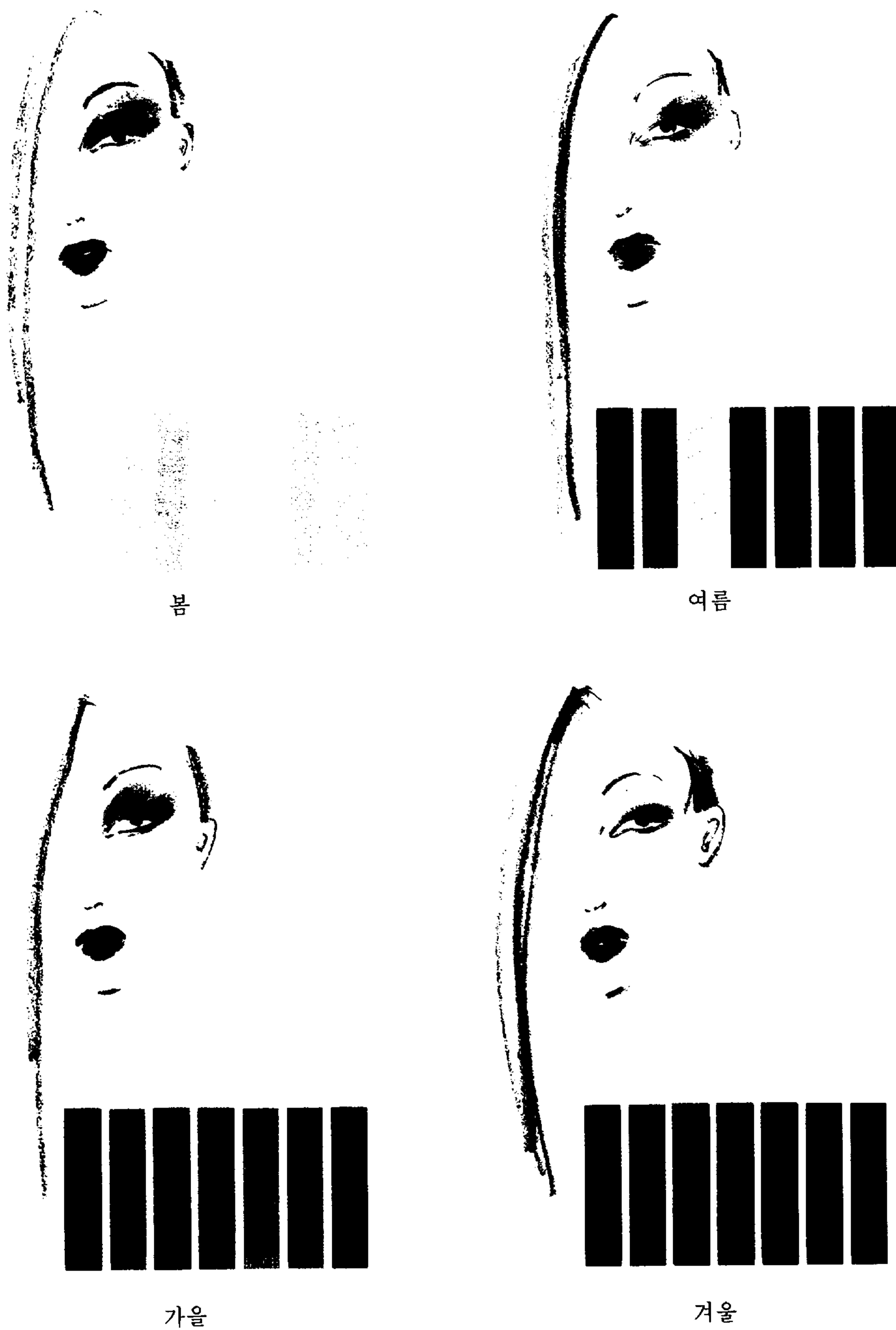
가을에는 브라운, 카키, 황금색, 자주색, 짙은 수박색, 낙타색 등의 약간은 칙칙해 보이는 중간색조가 제격이다. 색의 농담을 적절히 조화시킨 무드있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색들이다.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중간색 계열과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등의 원색계열이다. 단 너무나 선명한 원색보다는 한 톤이 내려간 색들이다.¹⁴⁾ 이렇게 계절에 따른 색상군을 나누어 그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이미지를 일러스트화 하였다.

14) 현하, 앞의 책, p81

그림37. 색으로 묘사되는 계절이미지 메이크업 일러스트

출처. 현하, 현하의 차밍스쿨 패션 다이어트, 삶과 꿈, 1995, p125



3. 개성적 이미지 연출을 위한 메이크업 기법의 제언

메이크업은 컬러에 따라 질감에 따라 또 바르는 테크닉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줌으로써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변신이 가능하다. 이제는 개성시대이므로 평범한 얼굴이라도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져 화려하거나 청순하게 그때 그때 분위기에 맞춰 새로운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성적이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화장기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눈길이가 짧고 눈꼬리가 눈꺼플로 덮인 눈 또는 눈은 크지만 약간 튀어나온 흘꺼플눈의 색조화장은 살짝만 하는데 핑크나 붉은기가 도는 색은 피하고 눈가에서 아이홀쪽으로 갈수록 열어지도록 그라데이션 해준다. 또한 브라운이나 오렌지 색도를 이용해 눈아랫부분을 살짝 그리면 눈이 크고 또렷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속눈썹 뿌리 부분을 꺾어 눈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흘꺼플눈이 귀엽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마스카라를 진하게 칠하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인 눈두덩이가 폭꺼진 형태에는 매트한 아이새도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진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펄이 함유되어 있는 펄아이새도로 넓게 펴 발라주면 눈이 훨씬 덜 꺼져 보여 젊고 생기있어 보인다. 입술은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기법 중 입술선이 흐린 경우에는 립펜슬로 입술 윤곽을 입술의 아랫부분과 입술산에 부분적으로 살짝만 그려 윤곽을 강조해 준다. 입이 너무 클 경우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입술도 같이 펴발라 입술색이 없어지도록 해준후 립스틱을 입술안쪽부터 누르듯이 펴발라 아담하게 표현한다. 이때 립그로스는 입술이 더 커보일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 입술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입술윤곽선보다 1mm정도 크게 립라인을 그린 다음 매트한 립스틱보다 립그로스가 더 도톰해 보이며 펄이나 화이트를 문질러 주면 입술이 더 도톰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얼굴 형태에 따라 교정하여 커버 메이크업하는 기법은 앞에서 언급하였고 또 다르게 연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단점을 감추지 말고 그대

로 보여주면서 장점을 극대화시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올바른 메이크업 기법은 너무 많이 감추려고 하다보면 더 강조될 때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추면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예쁜 곳은 확실하게 강조하는 그래서 흘꺼플, 각진 얼굴, 작은 눈도 그대로 당당하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개성있고 자신감에 넘친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겠다.

IV. 메이크업에 나타난 색채의 유행적 특성

1. 시대별 화장문화에 나타난 색채의 유행성

20세기에 들어와 화장이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대중사회'란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사회란 사회가 전통적인 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기본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개념으로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화, 도시화, 및 근대화의 경향으로 지적할 수 있다.¹⁵⁾ 서적, 잡지, 음반,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등의 대중매체는 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급증, 광고의 도입으로 더욱 저렴하게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현대는 대중매체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20세기에 나타난 이와같은 대중적 현대사회의 특징은 화장에 관련된 문화를 새롭게 재정의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산업화의 흐름과 더불어 화장품 공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화장의 보편화에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고 생활의 근대화로 편리와 여가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적인 것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이와 함께 패션에 관련된 모든 요소, 특히 의복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거대한 패션산업을 형성하였다. 또한 패션잡지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증가는 이상적인 미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화장을 확대시키고 유행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달수단이 되었다.

20세기 화장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배경의 하나는 화장품 산업의 발달이다. 화장품 산업의 발달과 함께 화장이 토털 패션으로서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화장의 형태 및 표현방법에서도 영향을 주었으며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특성과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또

15) 강상현, 채백(1993),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한나래, p.23

다른 배경의 하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증가와 다양화이다. 신문, 영화, 가정의 일상적인 도구로 여겨지게 된 라디오와 텔레비전등 다양한 대중매체의 출현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결과로서 도시화에 의해 야기된 대단위 수용자들 즉 '대중'이라는 집합을 바탕으로 나타났다.¹⁶⁾

현대의 대중적 전달 매체 가운데 특히 패션 잡지와 영화는 20세기의 화장문화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컬러가 도입되지 않았던 무성영화시대에서는 윤곽을 뚜렷히 하여 이미지를 전달하였고 영화기술의 발달과 컬러필름의 도입으로 보다 섬세하고 세련된 화장법과 색상으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패션잡지 및 영화에서 보여준 모델 및 배우들의 화장법이나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들의 의상은 패션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확일적으로 모방되었다.

이렇듯 화장은 여성미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이상적인 미에 접근하기 위한 특정한 화장 형태나 표현 방법이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확일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양한 미적 가치의 표출로 나타난 20세기 화장법과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주는 메이크업 색상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패션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1900 - 190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1900년부터 1909년까지는 패션사 뿐 아니라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19세기의 연장이었다. 이시기의 후반까지 여성들은 19세기의 흔적인 '코르셋'을 착용한 S자형 실루엣의 화려하고 과장된 여성미를 선호했다. 가슴은 지나치게 앞으로 나와 마치 비둘기 가슴을 연상시켰고 허리는 코르셋으로 조여 개미 허리를 연상시켰다. 조여진 허리와는 달리 hips는 둥글게 강조되었고 스커트는 발목을 덮

16) 강상현, 앞의 책, p.24

을 정도로 길게 아래로 늘어뜨렸다. 그러다 보니 신발이나 스타킹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만 장갑은 필수품으로 여름에도 꼭 착용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핸드백은 거의 들지 않았다. 이는 이 시대가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던 시기였음을 나타내고 중·상류층의 경우 물건은 배달시키고 대금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결제했기 때문에 굳이 가방을 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19세기 동안 지배적이었던 안한 듯한 자연스러운 화장이 계속되어 희고 투명한 피부에 대한 선호로 이를 위한 크림이나 로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듬지 않은 자연스러운 눈썹은 지녔다.¹⁷⁾

1907년 '현대 패션의 창시자'로 불리는 폴 푸아레(Paul Poilet)에 의해 엠파이어 실루엣(empire silhouette : 가슴 바로 밑에 절개선이 들어간 높은 허리선의 실루엣)이 발표되면서 여성들은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독립심 강한 신여성들이 진보적인 사고에 맞게 실용적이고 별로 화려하지 않은 합리적인 스타일을 지향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산업혁명을 통한 급속한 기술발달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화에 전기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사람들은 기차를 이용해 자주 여행을 떠났다. 초기 단계였지만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고 자동차는 매년 늘어났다.¹⁸⁾

2) 1910 - 191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1910년대 초반은 1900년대말 등장한 폴 푸아레의 코르셋을 없앤 엠파이어 라인이 대중에게 전파되던 시기였다. 특히 1913년부터는 패션의 주도권이 상류층에서 젊은층으로 이동하면서 '젊음'과 '자유'를 주제로 한 새로운 패션이 태동되는 가장 혁명적인 패션시기 중 하나였다.

한편 1912년에는 현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거를 회상하는 듯 동양

17)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p29

18) Harper's BAZAAR, 1999, 1월호, p53



그림38. 오리엔탈풍의 색채화장
1910년대 'Paul Poiret'

과 고대, 중세 스타일에서 영향 받은 많은 스타일이 변형되어 선보였는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유럽이 아닌 중동과 극동 중동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었다. 이는 1900년대 말에서 1910년 초로 넘어오는 시기에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공연에서 먼저 오리엔탈 붐이 일어났다. 디자이너 폴 푸아레에 의해 전개된 오리엔탈 분위기의 의상과 이에 어울리는 동양적인 신비스럽고 강한 색조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화장의 색조도 풍부해지기 시작하였다.(그림38)

밝은 색이 인기를 끌게 되어 핑크와 붉은 입술화장이 등장했으며 속눈썹을 위로 말아 올리고 눈썹을 검게 칠하는 새로운 기법의 눈

화장이 터키, 아라비아등 중동지역의 영향으로 유행하였다. 또한 눈을 옆으로 길어 보이게 하는 아이라인, 눈썹과 눈사이에 황색분이나 강렬한 색을 바르는 동양적인 분위기의 눈화장등 패션을 의식하는 선도적인 여성들에 의해서만 일부 시도되었다.¹⁹⁾ 한편 영국에서는 얼굴에 문신을 하는 방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의 색조화장에 대한 거부감으로 화장 대신 문신으로 속눈썹과 붉은 색의 입술을 맨 얼굴에 약하게 표현하던 방법이었으나 일반에게 널리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화장한 얼굴이 크게

19) 青木英夫, 西洋化粧文化史, 原流社, 1979, p.57

보편적이지 않았다.²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질 무렵 옷은 젊은 세대들에 의해 주도되어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계속된 전쟁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였고 이들이 기능적인 옷차림이나 유니폼으로 인해 의상에 의한 계층 구분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한편 유럽 패션가에는 코코 샤넬(Coco Chanel)이 진보적이고 편안하고 남성적인 스타일을 선보임으로 당시 여성들이 지나치게 장식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1918년 진보적인 여성들에 의해 참정권 획득으로 여성들은 여성미의 상징으로 여겼던 긴머리를 과감하게 짧게 잘랐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온 남성들에게 단발머리, 진한 화장, 장판지를 드러내는 슈미즈 드레스를 입은 달라진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10년대 말기에 이르러 전쟁 때 힘든 노동으로 여러 계층에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계층에 의한 빈부 격차가 사라졌고 미국 패션이 '기성복의 메카'로 자리 매김해 유행과 계절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었다. 패션과 더불어 미용사의 수가 늘어나고 화장품 사용도 늘어 웨이브있는 염색머리가 유행했다. 여성들은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를 모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미용사 유젠과 네슬은 '퍼머넌트 웨이브'의 편리함과 매력을 선전해 당시에 퍼머를 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질 정도였다.²¹⁾

상업적인 오락 역시 1910년대에 발전을 거듭해 음악회가 열리는 극장과 영화관은 늘 만원이었다. 자연스럽게 영화나 쇼에 나오는 여성스타들은 사회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그들의 외모와 의상은 바로 대중화되어 일반인들에 의해 모방되었다. 대표적인 배우로는 진하게 눈화장을 한 사악하고 음탕한 모습을 하고 머리띠에 이국적인 의상을 입은 '원조 뱀프(vamp)' 테다 바라(Theda Bara)와

20) 조은별, 앞의 책, p30

21) Harper's BAZAAR, 1999, 2월호, p47

여성스럽고 귀여운 모습과 나부끼는 어깨길이의 금발로 인기를 끈 매리 픽포트(Mary Pickford)등이 있다.

3) 1920 - 192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꿈과 이상주의 시대인 20년대는 재즈의 빠른 리듬과 에너지 넘치는 춤, 그리고 자유를 찾아 패션과 행동에서 관습을 깨뜨린 '말괄량이' 라는 뜻의 플래퍼(Flapper)시대였다.

1920년 상업적인 라디오 방송의 시작과 1926년 최초의 텔레비전 시스템의 성공은 새로운 매스미디어 시대를 예고했고 1927년에는 세계 최초의 발성 영화인 알 졸슨(Al Jolson)주연의 'Jazz singer' 가 개봉되어 영화산업은 무성영화 시대를 끝내며 일대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다.²²⁾

20년대의 포스터 걸은 플래퍼로 그들의 옷차림을 빗대 '플래퍼룩'은 젊은 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는데 선명한 화장으로 작고 둥근 얼굴, 뾰족 내민 입술, 둥근 눈에 오뚝한 코를 강조하였고 짧은 단발의 보브(bob) 헤어스타일, 깃과 소매가 없는 드레스가 특징이었다. 또한 오리지널 말괄량이인 가르손느(garconne)룩도 등장했다. '플래퍼' 혹은 '가르손느' 라는 명칭을 가진 이들은 1차 세계대전 동안 남성을 대신하여 노동과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얻어 사회진출의 증가로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되었다. 남녀 평등사상을 주장하며 여성해방을 실천하였고 성개방 풍조에 의한 자유연애를 공공연히 추구하였다.²³⁾ 20년대 중반경에 이르면 유행을 쫓아 앞서가는 여성들에 의해 '엘리자베스 아덴' 과 '헬레나 루빈스타인' 같은 회사들의 화장품이 자유로이 사용되어 얼굴에 파우더를 바르고 눈가에 검정색의 라인을 그렸으며 눈꺼플에도 검정 음영을 주었다. 눈썹을 가늘게 다듬거나 연필로 정교하게 그렸는데 이러한 눈

22) Harper's BAZAAR, 1999, 3월호, p52

23) 조은별, 앞의 책, p32

썸은 이전까지의 자연스러운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서 화장한 얼굴을 더욱 낮설고 눈에 띄어 보이게 하였다. 또 입술을 아주 선명하고 진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대중적인 오락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영화의 발달로 일반 대중들은 헐리웃 영화스타들의 화장 형태와 패션 심지어는 행동이나 태도까지도 추종되고 모방되었다. 대표적 영화스타로는 클라라 보우(Clara Bow), 글로리아 스완슨(Gloria Swanson)등이었다.(그림39,40)

그림39. 1920년대 전형적인 Flapper
Clara Bow '메이크업과 패션'



그림40. Gloria Swanson
'Fashion Today'



이상에서와 같이 20년대에는 전후의 젊고 활기찬 시대 분위기와 함께 화장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과거의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다듬거나 그린 얇은 눈썹, 또렷하고 선명하게 강조된 작은 입술 화장은 이상시되는 영화 배우의 등장에 의해 더욱 확대되어 20년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화장 형태가 되었다.

4) 1930 - 193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1930년대는 경제 대공황과 대량 실업, 파시즘의 부상과 2차 세계대전의 예고 등의 절망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패션은 할리우드와 파리, 런던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대중화되었다.

1930년 초의 패션은 눈에 띄게 여성스러워진 것이 특징이다. 1929년에 닥친 경제공황은 젊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어두운 색상과 모자, 헤어스타일 등 모든 선이 아래로 처지고 길어지기 시작하였다.²⁴⁾ 화장에서도 20년대와는 다르게 변화된 새로운 이미지의 여성을 만들었는데 과거보다 더 진하고 숙련된 기술로서 성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파운데이션으로 완벽하게 덮은 얼굴에 눈의 윤곽선을 선명하고 더욱 기교적으로 그렸으며 작게 오므린 입술은 이제 유행에 뒤쳐진 형태가 되었고 크게 그려진 입술이 얼굴의 강조점이 되었다. 또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치웨어의 중요성도 커졌고 차양이 달린 모자 등은 필수품이었다. 화장품회사 헬레나 루빈스타인은 '여러분은 테니스, 골프, 수영, 일광욕을 즐기기 전에 얼굴과 몸에 이것을 부드럽게 바르라'는 문구를 써넣은 선제품을 소개하여 검게 그을린 피부를 유행시키기도 하였다.²⁵⁾

30년대의 여성들은 누구나 화장품을 사용하고 세부 기술을 배워 스타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모방하고 추종하였다. 당시 불황이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화장을 비롯하여 세련된 치장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불확실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 도피를 하고자 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²⁶⁾

30년대 영화스타들의 모습은 각이 진 어깨와 얼굴, 크게 강조된 눈과 입, 어

24) David Bond저 (1992), 20세기 패션, 정현숙역, 경춘사, p92

25) Harper's BAZAAR, 1999, 4월호, p57

26) 조은별, 앞의 책, p34

그림41. Greta Garbo의
신비스러운 성숙미
'ELLE 1999. 11'



그림42. Marlene Dietrich의
가늘고 긴 눈썹
'Beaute 1997.10'



깨 길이까지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대표적 배우로는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나 마를린 디트리히(Marlen Dietrich), 진 할로(Jean Harlow), 존 크로포드(Joan Crawford)등(그림41,42)으로 가르보의 움푹 꺼진 눈과 가늘고 정교하게 정리하여 그린 눈썹, 디트리히의 가는 눈썹과 야윈 볼, 진 할로우의 그래머한 백금색의 머리카락, 존 크로포드의 나비 형태로 뚜렷하게 강조된 입술등 영화배우의 모습과 화장은 당시의 패션의 이미지를 주도하였다. (이때 매혹적인 여성을 뜻하는 '글래머러스'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따라서 이 시기 대부분의 여성들은 영화배우의 인위적이고 인상적인 모습을 모방하기 위하여 화장과 머리 염색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얼굴 전체에 팬케이크를 이용해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턱을 좁게 하는 어두운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바른 뒤 눈이 움푹 들어가 보이도록 아이새도를 펴 바른다. 눈썹을 그리는 연필로 가늘고 정교하게 눈썹을 그리고 부드러운 솔로 얼굴에 남아 있는

는 파우더와 볼연지를 부드럽게 털어낸 뒤 속눈썹을 마스카라로 검게 하고 인조 눈썹을 덧붙여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입술은 연필을 이용하여 크고 선명하게 그리고 립스틱으로 안을 칠한다.²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년대 여성의 이상적 유형이 경제적 불황과 침체의 어두운 현실에 의해 진지하고 성인다운 세련됨이 강조되자 화장도 성숙

27) Geogina Howell (1975), In Vogue, London : Ramdon House, p.110

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갖는 정교하고 가늘게 그린 긴 눈썹이 유행하였고 크고 선명한 입술이 강조점이 되어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획일적으로 모방되었다.

5) 1940 - 194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이 일시적으로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뉴 룩'의 시대가 탄생하였으며 미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 스포츠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귀족적 현대 착장미의 표현인 뉴룩의 화장은 입술과 눈썹을 아주 섬세하고 윤곽을 뚜렷하게 표현하여 의복과 조화를 이루게 했다. 헤어의 부피를 작게 표현해야 뉴룩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당시의 머리는 머

그림43. Katherine Hepburn
'Vogue 1942.12'



리 꼭대기에 있는 쪽진머리 안으로 부드럽게 빗어 넘기거나 한쪽으로 빗어 말아 올렸다. 모자는 더욱 작아졌고 더 부드러운 모양이었으며, 베일링이나 깃털몽치로 가볍게 장식한 필 박스(Pill box)나 베레모가 유행되었다. 전쟁 중인 유럽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화장과 매혹적인 머리스타일, 세련된 의상을 기꺼이 이용할 수 있는 '패션 유포피아'였다.²⁸⁾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유능하고 성숙돼야 한다는 가치 성향이 더욱 자극되어 크게 그린 입술과 힘차게 그려진 두꺼운 눈썹이 일하는 여성의 얼굴에 자리 잡았으며, 존 크로포드, 캐서린 헵번과 같은 영화스타 들이 이러한 강인한 이미지를 대표했다.(그림 43) 특히 존 크로포드 립스라는 나비 모양의 직선적이며 뚜렷한 입매가 크게 모방되었다. 화장은 이전보다 더 두꺼워졌다. 맥스 팩터 (Max Factor)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의 분장용으로 개발된 완벽하게 피부를 덮어주는 팬케익을 사용하여 피부표면에 부드러운 바탕색을 만든 뒤 파우

28) David Bond저, 앞의 책, p136

더로 덮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한 눈화장과 풍만하고 진하게 강조된 입이 초점이었다. 특히 선명하고 반짝이는 빨간 입술과 이에 어울리는 빨간색 손톱과 발톱을 매치하는 것이 당시 유행하는 화장법이였다. 또한 금발이나 붉은 머리색상이 유행함에 따라 두드러지게 염색을 하였다.²⁹⁾

한편 컬러 필름의 등장으로 영화속에서의 화장 및 패션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화장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가늘지만 뚜렷한 표현이 가능한 눈썹용 펜슬이 고안되었으며 광택있는 입술 등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색조 화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 패션디자이너로 엘자스키아라벨리(Elsa Schiaparelli 1890-1973)는 패션뿐 아니라 화장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색채 감각은 유니크하고 흑과 백을 기초로 하였으나 쇼킹 핑크라는 분홍색을 유행시켰는데 활기없는 시대에 이 쇼킹 핑크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느끼게 했다. 또한 입술연지 매니큐어 등 모든 화장품에 유행색이 되었다.³⁰⁾

이와 같이 40년대는 2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성적 여신(sex goddess)이란 말로 표현되는 육체적으로 관능적인 외모를 나타내어 두껍고 또렷하게 곡선적인 형태를 띠는 눈썹등 생동감있는 표현형태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6) 1950 - 195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전쟁의 산물인 첨단 공장시설과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의 노동력은 1950년대를 번영과 왕성한 소비, 대량생산의 시대로 변모시켰다. 전후 50년대의 사회는 전쟁동안 남성들의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었던 여성들에게 그들의 능력보다 가정적이고 외적인 꾸밈만을 강조하였다.³¹⁾ 냉전의 긴장으로 인한

29)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화장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p111

30) 김희숙, 앞의 책, p112

31) Harper's BAZAAR, 1999, 6월호, p57

보수주의, 반여성 해방주의자인 프로이드 학파의 유행으로 여성의 본성을 복종적, 순종적이며 모성애적 신비주의로 미화시킴으로써 여성을 집에서 남편에 의지하여 가정을 지키는 모습 또는 남성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성적 대상물로서만의 존재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러한 가치 지향은 그 당시 대부분의 영화가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안정적인 모습 또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행복한 결혼을 선택하는 모습을 찬미함으로써 더욱 확산되었고 여성들도 결혼이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남성에게 매혹적으로 보이지 위한 걸치장, 외모, 섹스어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화장은 여성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 여성들의 화장은 뚜렷한 입매의 강조에서 벗어나 두꺼우면서도 여성적으로 곡선을 이룬 눈썹과 아이펜슬로 눈을 강조하여 회색이나 녹색의 아이새도를 칠한 후 검정색의 아이라인을 진하고 길게 꼬리를 늘여 그려 야성적이고 정열적으로 표현하였다. 입술은 상대적으로 흐리거나 옅은 분홍색으로 풍만하고 여성적으로 표현하였고 피부는 하얀 핑크조를 나타내게 되었다.(그림44) 이러한 눈화장은 전쟁중 화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화장품의 등장에 따라 더욱 가능하였다. 전시에 외과의 수술용으로 제작되었던 심이 부드러운 연필은 전쟁이 끝나자 눈썹화장용 연필로 사용되었고³²⁾ 미국 할리우드의 영향으로 색조화장을 위한 아이새도의 대중화는 화장에 있어서 입술화장 도구인 루즈의 탄생 후 가장 큰 혁명적 변화와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50년대 말이 되자 립스틱은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의 변화를 가질 만큼 다양해졌으며 녹색과 은색을 비롯한 차가운 색이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³³⁾

50년대 여성의 미는 당시 전세계적으로 이상시 되었던 영화스타들의 모습이 여성의 외모에 주도적인 영향을 주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그림45)와 에바 가드너는 그들의 숨은 관능적인 모습과 통통한 몸매로 50년대의 매혹적인 이

32) 青山行夫(1976), おしやれの文化史(History of Beauty Culture), 東京, p.208

33) 조은별, 앞의 책, p43

그림45. Elizabeth Taylor
'Beaute 1997. 10'



그림46. Grace Kelly의 완벽한
숙녀다움 'Beaute 1997. 10'



그림47. Audrey Hepburn의 굵은
눈썹 '메이크업과 패션'



그림44. 50년대 치켜올린 아이라인과 얇은 입술화장
'메이크업과 패션'



그림48. 50년대 sex symbol-Marilyn Monro
'100 Ans de Beateue'



상형으로 사랑을 받았다. 그레이스 켈리와 오드리 헵번(그림46,47)의 세련미와 우아함은 시크하고 모던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헵번의 짧은 머리 모양과 불규칙한 앞머리, 굵은 눈썹도 인기였다. 한편 모성애적이고 순진하면서도 애인과 남성에게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요부의 모습을 대표하는 마릴린 몬로(그림48)는 가늘고 불안정한 목소리, 부드럽고 풍만한 신체곡선, 지적으로는 조금 모자라는 듯한 모습으로 관능적인 여성의 모습을 이상화 시켰다.³⁴⁾ 성적관능을 한층 높여준 밝은 금발, 빨간색으로 강조된 윤기있는 입술은 당시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유행하였다. 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가는 동안 여성들의 모습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준 사람은 프랑스의 브리짓트 바르도였다.³⁵⁾(그림49)

그림49. Sex Kitten, Brigitte Bardot 'Beaute 1997. 10'



그는 관능적인 금발을 고의로 흐트러 놓은 듯한 긴 머리와 어린아이와 같은 짧은 앞머리, 눈은 진하게 화장하면서도 밝은 분홍빛의 입술화장과 풍만한 육체의 노출로 60년대의 반항적이면서도 더욱 자유로워지는 성적 표현의 전조를 보여주었다.³⁶⁾

한편 50년대 후반에 대중적 풍요와 레저문화로 젊은 십대(teenager)의 등장을 가져왔는데 그들이 표출하는 특유의 에너지와 위기, 급함, 순진함과 활동적임, 적극적, 자유로움등과 젊음이 합해져 화장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는 전조가 나타났다.³⁷⁾

34) Robin Tolmach Lakoff & Raquel L. Scherr (1984), Face Value-The politics of Beauty, Rougedge & Kegan Paul, p362

35) David Bond저, 앞의 책, p.191

36) Lois W. Banner(1983),. American Beauty, New York : Alfred A. Knopf Inc., p.286

37) David Bond (1992), Glamour in fashion, Guinness Publishing, p.241

7) 1960 - 196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산 소외 현상에 따라 반항 의식, 여성 해방운동, 인종 차별, 베트남 전쟁과 반전운동 등 1960년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였다.³⁸⁾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화도 이제까지 영화 스타들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모방의 단계에서 벗어나 연령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회 구성원에 따라 표현형태의 다양성, 개성이 중시되어 새롭게 미를 표출하게 되었다. 60년대 화장은 인조 속눈썹등으로 극단적으로 강조된 눈이 중심을 이루면서 자유롭고 기괴하며 사이키델릭한 상징이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화장형태는 60년대의 빠른 변화의 물결과 젊음의 새로운 감성과 의식의 대두로 기성세대의 균형과 질서를 중시한 심미적 가치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적가치를 형성하게 되며 나타난다. 6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화장은 더욱 장식화 되고 극단적으로 대담하게 전개되었다. 분홍, 초록, 보라색으로 염색된 기하학적이 가발과 함께 유선형으로 두껍게 그린 아이라인에 흑백을 번갈아 바르고 인조 속눈썹에 마스크라를 칠해 더 인위적으로 만든 눈화장이 강조점이었다. 미술사조의 하나인 옹아트와 기하학적인 표현을 눈의 화장 패턴으로 응용하거나 아이라이너의 강조로 눈 밑에도 진하게 그려 눈꼬리에서 두줄로 만나도록 그리기도 하였다.(그림50,51,52) 또한 패션에서 이브 생 로랑은 65년 '몬드리안 룩'을 발표했는데 이는 네덜란드 추상파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이 30년대에 발표한 기하학적인 선과 대담한 배색의 구성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특히 삼원색(빨강·파랑·노랑)과 무채색(흰색·회색·검정)의 색채 배합은 몬드리안의 구성주의를 복식에 가장 잘 응용한 '아트와 패션의 만남'이라는 평을 들었다.³⁹⁾ 그리고 우주 시대 개막과 함께 '스페이스 룩'이 탄생되면서 흰색 아이새도 크림과 함께 은색, 흰색의 립스틱이 나와 파스텔조

38) Bevis Hillier 저 (1993), 20세기 양식, 조규화 역, 수학사, p.196

39) Harper's BAZAAR 1999, 7월호, p60

그림50. 과장되게 분인 인조 속눈썹
'Radical Rag'



그림52. 기하학적 패턴의 아이새도우
'Radical R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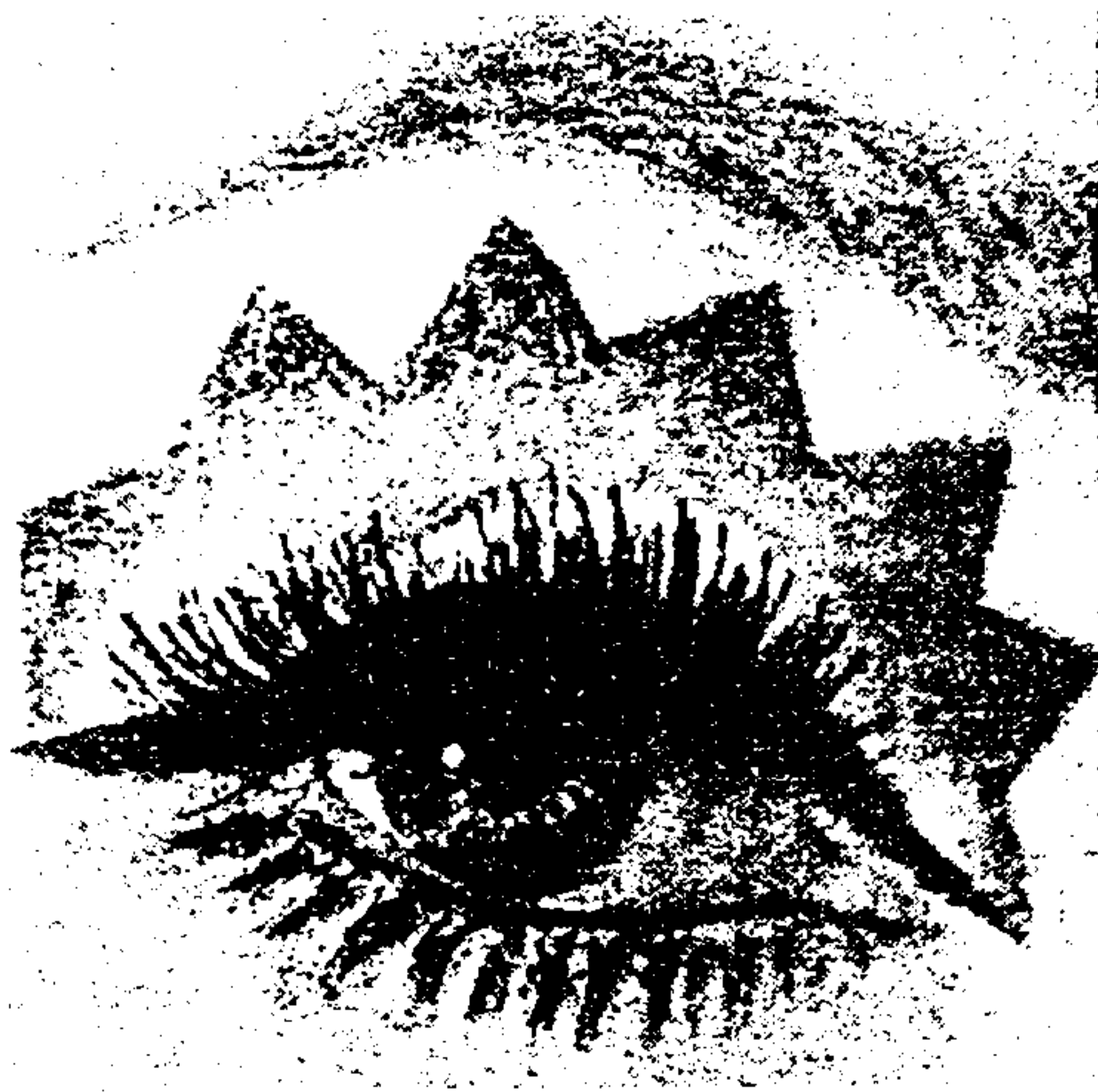


그림51. 옵아트 패턴을 응용한 눈화장
'ÆTwentieth-century ornament'



창백한 입술이 연출되었다.(그림53) 이러한 화장은 밝음, 대담함, 짧고 경쾌하게 노출된 신체등 당시 패션특징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60년대 말에 등장한 모델 튀기(Twiggy)는 어린아이처럼 크게 강조된 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려진 조그마한 입과 5피트 6인치의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의 모습에서 초연

함, 고뇌, 염세, 현대인의 냉철함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모델이었다.⁴⁰⁾(그림54) 영화, TV, 잡지로부터의 다양한 이미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진에 찍히는 미는 단순한 효과보다 더욱 새로운 충격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제는 디자이너와

40) Robin Tolmach Lakoff & Raquel L. Scherr(1984), p.312

그림53. 흰색 아이세도우와 립스틱 'NOVA'



그림54. 60년대를 대표하는 모델 Twiggy
'100 Ans de Beaute'



아트 디렉터, 헤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진작가의 총체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산되는 상품이 되었다.⁴¹⁾ 상업주의에 의한 패션잡지나 패션광고,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유명해진 전문 모델들이 미에 대한 소비를 자극하여 일반대중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기형일 정도로 가느다란 신체적 미는 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가치를 바꾸어 다이어트나 그 외의 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자기 조절의 결과가 남성에게 있어 전문적인 일의 성취나 성공과 비교될 만큼 중요시되고 이에 관련된 화장품의 소비를 더욱 자극하였다.⁴²⁾

60년대 후반에는 전반부의 기하학적, 인위적인 형태, 상업주의에 대한 반발로 초기의 새로운 이상을 표출하는 히피룩이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다.(그림 55) 헤어스타일은 남녀 모두 앞가르마를 타고 긴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리거나 머리

41) 조은별, 앞의 책, p.53

42) Lois W. Banner(1983). American Beauty. New York : Alfred A. Knopf Inc, p.289

그림55. 남녀 Hippies 'NOVA'



위에 스카프를 맨 남미 인디언 스타일을 즐겼다. 화장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극단적이고 기하학적인 표현 대신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경향을 띄었다. 복숭아색, 갈색, 회색 등 자연스러운 색상

과 함께 이국적 혹은 민속적 패턴이 등장하였다. 꿈과 같이 환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가면과 같은 장식적인 화장이 등장하였는데 새, 동물, 나비들의 형상을 인위적이고 장식적으로 그렸다. 소녀들은 머리에 꽃을 꽂고 얼굴과 눈에 꽃을 닮은 형태의 포인트를 그려 잔잔하거나 꿈꾸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⁴³⁾

한편 젊은 세대의 남녀 성에 대한 도전으로 유니섹스 룩(unisex look)을 등장시켰고 화장은 남녀를 불문하고 내적 성의 무질서와 해방을 표출하기 위한 항거와 반항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속옷의 개념에서 벗어난 브래지어는 여성의 신체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포인트로 응용되었다. 브래지어 룩의 등장은 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육체의 자유를 누리 고자 하는 여성들의 내적 갈망 표출로 여기에 먹는 피임약까지 발명되면서 여성들의 성해방 풍조는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남녀의 성차의 구별을 흐리게 하였다.⁴⁴⁾ '아름답다'는 말은 이제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남성에게도 불리어지는 개념이 되었으며 남녀 모두 다양하게 스타일을 의식하고 추구하였다. 따라서 화장은 일반남성에게도 그들의 외적인 꾸밈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 남자도 눈썹을 뽑고 여성용의 화장품, 향수를 사용하는 등 여성과 남성의 유니섹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림56)

43) 조은별, 앞의 책, p.55

44) Harper's BAZZAR, 1999, 7월호, p64

60년대의 미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의식과 감성의 등장으로 자유롭고 기하학적이며 심지어는 기괴하기까지 한 상징으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게 되면서 화장도 여성의 전유물에서 연령과 성별의 확대를 가져와 각 구성원의 다양한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림56. 60년대 젊은 남녀의 모습 'Twentieth-century ornament'



그림57. Zandra Rhodes 환타지 화장
'The Art of Zandra Rhodes'



그림58. 환타지 경향의 화장 1970년초
'In Vogue'



8) 1970 - 197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70년대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그룹인 흑인, 여성,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기성 세대에 저항하며 '알몸으로 거리를 뛰는' 스트리킹(streaking)을 선보였다. 60년대 히피에서 영향받은 '에스닉풍' 과 '복고풍' 이 유행했던 70년대 초 페전트 드레스의 유행은 '노스탈지아' 라고 불리는 복고풍 로맨티시즘의 영향으로 건강 식품, 생태계 보호, 세계 평화에 대한 관심이 패션을 통해 나타난 것이었다.⁴⁵⁾

60년대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서 절약이 미덕인 시대로 바뀌었고 패션도 합리성과 실용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용적이고 저렴한 옷을 여러 벌 겹쳐서 입는 레이어드 룩과 헐렁한 루즈(loose)룩이 유행했고 에스닉과 조화를 이루어 모던한 오리엔탈 풍으로까지 발전했다. 환타지 경향의 화장과 함께 패션의 색상이 민속조의 바랜듯한 화려함과 복고풍으로 여성스러움이 재현되었다. 화장은 자연스러운 피부 톤에 전원적인 느낌의 인공 주근깨를 그려주거나 옷에 따라 빨강, 보라, 흰색, 금색 등 기발한 색을 아이섀도에 사용하는 컬러시대였다.(그림57)

머리는 핑크와 그린으로 염색하고 얼굴에 꽃이나 무지개, 줄무늬 그리고 낙하하는 모습 등으로 채색되었으며 얼굴뿐만 아니라 목걸이, 머리,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색칠하는 환타지 경향이 계속되었다.(그림58) 1970년 3월 1일에 발행된 보그에는 당시의 유행하는 화장법으로서 눈 주위에 빨강과 파란 등의 색반점을 그리는 것이었다. 이는 크리스찬 디오르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93가지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⁶⁾ 60년대에 극단적으로 강조하던 눈과 창백한 입술 등 실험적인 젊음을 표현하였던 화장형태는 70년대

45) Harper's BAZAAR, 1999, 8월호, p64

46) 青木英夫(1976), 西洋化粧文化史, 源流社, p.187

중반으로 갈수록 얼굴전체에 풍부한 색조를 부여한 성숙한 이미지로 변하였다. 이러한 화장경향은 30년대 불화에 의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상시되었던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등장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60년대의 밝고 혁신적인 시대에서 70년대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눈썹은 과거 30년대와 같이 정교하고 얇아졌으며 마스크라와 립스틱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입술의 외곽선을 뚜렷하게 그리고 반짝이게 칠했다. 7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미는 환상적이기 보다는 인위적이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실의 산물, 자연스러움 그 자체의 젊고 자발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이 현대미의 기준이 되었다.⁴⁷⁾ 따라서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차 자연스러운 눈썹형태와 많은 색상을 부여하지 않은 눈화장 및 입술화장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제 수동적인 자세와 전적으로 이상화되었던 고전적인 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이상형인 '현대적' 여성의 이미지가 등장하였다. 70년대 말에는 악화일로에 있는

그림59.60 핑크 스타일과 화장 'Twentieth-century ornament'



47) Robin Tolmach Lakoff & Raquel L. Scherr (1984), Face & Value - The politics of Beauty, Routledge & Kegan Paul, p.100

국제정세와 실업률의 증가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느낀 저소득의 하층 계급 젊은이들이 반항적인 펑크(punk)라는 하위문화를 형성하였다.(그림 59,60)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사회의 기존질서에 대한 반항과 거부를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패션과 장식 및 퇴폐적인 이미지의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화장으로 표현하였다. 펑크화장은 남녀의 구분없이 창백하게 표현한 얼굴 위에 직선적으로 굵게 그린 눈썹과 눈 주위를 강한 검정색이나 여러 가지 색으로 기하학적인 화장을 하였으며 입술도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붉은 색으로 공격적이고 퇴폐적으로 표현하는 등 불쾌감을 주었다. 개의 목끈이나 안전핀, 면도기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파괴적인 이미지를 조성하였으며 바지 가랑이는 사슬로 연결하고 안전핀을 귀와 심지어 코에까지 꿰었다. 머리카락은 남미 인디언과 같이 머리위로 앞에서 뒤까지 높이 세우거나 끝을 뽀족하게 자르고 자극적인 여러 색상 즉 밝은 분홍색이나 초록색으로 염색하거나 줄무늬와 조각 효과를 주었다.⁴⁸⁾

이러한 전위적인 펑크패션은 곧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바디 맵(Body Map)등에 영감을 주어 70년대 말과 80년대 패션의 주된 테마로 응용되면서 차차 대중패션으로 전파되었고 진하게 강조한 눈썹과 눈, 입술의 화장형태가 일반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70년대 이후에는 성별을 초월한 하나의 개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의식의 새로운 화장형태가 등장하였다. 여성은 짙은 눈썹과 아이라인만으로 눈을 강조하고 짙고 어두운 색의 립스틱으로 이목구비를 강조한 남성적인 화장,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였고 남성들은 여성과 같이 밝은 색채 화장과 화려한 장신구를 사용함으로써 한가지 성 위에 다른 성의 요소를 각각 공유하여 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그림61) 이들의 전반적인 화장경향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남녀를 떠나 아름다움과 추함을 초월하여 다양하게 시도되는 새로운 미적 감성의 표현

48) 조은별, 앞의 책, p.63

형태를 가지며 전위성을 띄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남녀성의 혼돈과 변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적 성을 해방하여 하나로 통합된 보다 완전한 인간의 존재에 접근하려는 하나의 모색이었다고 본다.

그림61. Androgynous 남녀 화장 'Getting it on'



9) 1980 - 198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80년대의 주체적 세대들은 60년대 이후 출생한 또다른 아방가르드한 영세대와 30년대가 된 전후 베이비붐 세대로 볼수 있다. 70년대 후반 30세가 된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에 진출하여 책임이 강조된 활동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였다. 패션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이 매우 높은 여피(Yuppies)들은 클래식한 스타일의 고품격 지향적인 의복과 상표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통해 그들의 성공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여성들도 남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70년대의 자연스러움과 달리 화려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로 변하였다. 눈과 입 모두

그림62. 마돈나의 에로틱한 이미지
'The Fashion Book'



가 강조되었는데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두
껍고 진한 눈썹과 선명한 빨강의 공격적이
면서도 단호한 이미지는 남성과 같이 능력
있어 보이는 넓게 각진 어깨와 가슴, 힙, 다
리 모두를 강조하는 80년대의 거대한 성인
다운 이미지와 조화 되면서 더욱 강인한 여
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80년대는 사춘기 이
전의 모델들이 등장하여 이제까지 성인의
세계였던 미와 패션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
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의 미를 대표하였다.
이는 좀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흥미, 쾌락적
대상의 추구에서 나타난 가부장적인 남성

지배사회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과거에 대한 향수, 복고
풍의 영향으로 섹시하면서도 진한 화장이 유행하였다.

한편 대중적인 팝스타로 우상시되었던 마돈나의 에로틱한 란제리룩과 섹시
모드는 더욱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여성을 강조하며 일반여성의 화장 및 패션
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그림62)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이제껏 남성의 만
족을 위한 전시, 혹은 경쟁을 위한 의도적인 꾸밈이 아닌 여성의 자아와 관련된
새로운 미의 타입이 등장했다. 점차 일부 여성사이에서 여성의 체형관리가 단
지 전시하기 위해서라든가 이기적인 자만심에서가 아닌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내적 충족과 완성감을 이루는 관리차원이란 개념으로 확산되었다.(그림63) 이
로써 여성들은 이제까지 남성들의 특권적 시각에서 정의되어왔던 여성의 모습
에 대한 뚜렷한 도전을 한 것이다. 여윈 가느다란 체격은 강한 근육질로 대치되
었으며 그을린 모습이 이상적인 심벌이 되었으며 제인 폰다(Jane Fonda)의 에
어로빅 붐이 일어났다.⁴⁹⁾ 이에따라 화장도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주기 위해서

49) 김희숙, 앞의 책, p121

그림63. 1979년 여성의 체형미 대회 'American Beauty'



하기 보다는 자신의 건강함과 관리차원으로 변하게 되었다.

10) 1990-1999년대 패션사에서 보여진 메이크업 유행스타일 및 색상

지구촌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촌의 위기감은 리사이클과 내추럴리즘을 강조하여 패션의 색상, 소재,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다.⁵⁰⁾

에콜로지(Ecology)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는 정신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된 세련된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에스닉, 그린지, 네오 히피, 노출 패션, 스트리트 패션, 복고풍등으로 나타났다. 유행은 시즌 중에 바뀔 정도로 발빠르게 진행되었고 빠른 패션 정보는 패션 매거진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었다.

90년대 가장 압도적인 패션사조라면 바로 '미니멀리즘'이다.

모더니즘의 형식적이고 극단적인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화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패션의 분야에서도 비합리성과 전통성에의 회복,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8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60년대, 70년대 및 고딕, 고대 등의 과거를 재현하는 듯한 복고적 분위기와 아프리카, 남미, 동

50) Harper's BAZAAR, 1999, 10월호, p72

구권등 이국적이고 민속적인 감각의 등장은 현사회의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초의 화장 경향은 30년대 진 할로우의 짙고 붉은 입술, 40년대의 뚜렷한 눈매, 50년대 오드리 헵번의 굵게 강조된 눈썹, 60년대 브리지트 바르도의 가짜 속눈썹과 반짝이는 분홍빛 입술 등 모든 과거의 스타일이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었다.

92년대에 들어서며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로맨틱한 스타일과 자유로운 감성의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 흐르는 듯한 유연함이 강조되었다.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보존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돌아가기 위한 재활용(Recycle), 생태학(Ecology)이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면서 천연 소재를 사용한 자연스러운 질감과 색상에 대한 선호가 레이어드, 그린지, 네오 히피 스타일, 오리엔탈리즘, 내추럴리즘, 퓨처리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융해되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에 조화를 이루는 화장경향으로 색조가 옅어지고 가벼워졌으며 과거의 히피풍을 재현하여 투명하고 거의 그리지 않아 희미하게 보이는 옅은 눈썹과 흐린 입술색이 주조를 이루거나 거리의 부랑아, 방랑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다양한 텍스처의 펠제품을 사용해 샤이닝한 느낌을 강조하여 테크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화장품의 전개가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유해한 환경과 공해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단순히 장식을 하는 치장의 도구에서 나아가 보호와 관리차원의 기능적 화장품을 등장시켜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상적인 모델로는 케이트 모스(Kate Moss)와 같은 작고 왜소한 타입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2. 세기말 메이크업 색채의 유행성

이상과 같은 패션사에 있어서의 메이크업 패턴 및 색상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메이크업에 나타난 유행 색상은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유행색 협회와 소재전 등을 통해 미리 제시된 트렌드를 기준으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전

개되고 있으며 개인 각자의 자유로운 내적 미의식의 표출로써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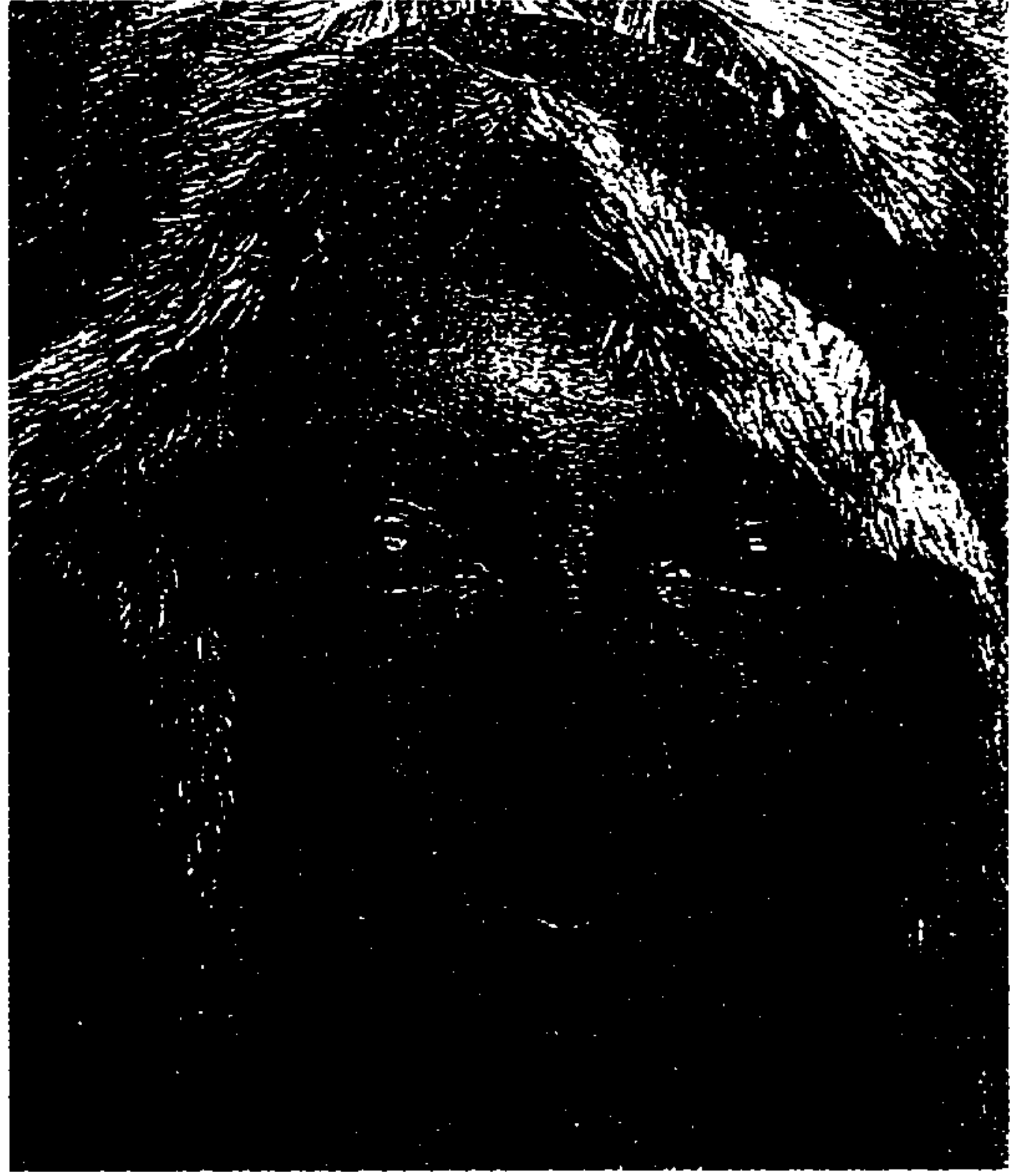
그럼 현시점에서 메이크업의 유행적 특성을 간략하게 다루어 보겠다. 세기말의 혼란 때문인지 패션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는 극단적인 대비가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었다. 세기말 메이크업 유행의 가장 큰 특징은 정석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레트로(Retro), 화려하고 다채로운 포크로어(Folklore), 미래지향적인 첨단 소재와 기능이 두드러지는 퓨처리즘(Futurism) 등 이질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과거와 미래가 융합되어 퓨전(Fusion)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실루엣의 색상과 패턴, 소재들이 자유롭게 믹스되고 조화되어 환상적인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다양한 텍스처의 펄과 반투명의 글로스 제품을 사용해 미래를 낙관하는 희망적인 빛의 이미지로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으로 같은 시즌에 다양한 유행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순수와 열정으로의 회귀본능에 90년대 말의 색채와 개성을 가미하여 모던하고 로맨틱하면서도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코스메틱 브랜드들도 매시즌마다 유행패턴을 제시할때 독특한 기법이나 제품을 선보이기에 골몰한다. 개성이 강조되고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메이크업 패턴이 제시되는데 이는 10년을 주기로 바뀌었던 유행이 이제는 계절마다 바뀔만큼 사이클이 짧아졌고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1999년 봄과 여름을 지배한 유행적 특성은 바로 내츄럴이었다. 건강하게 피부를 표현하고 입술에 반짝이는 기운을 주기 위해 립그로스를 바르며 매트한 메이크업보다는 시머하게 하고 아이메이크업도 간편하게 표현했다. 크림 색도등의 제품으로 단순한 음영만을 주고 정교한 라인이나 그라데이션은 생략했고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을 중요시하지않고 착용감이 간편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를 표현하였다. 이는 패션에서 보여준 미니멀리즘의 모던함과 절제를 그대로 반영하며 자연으로의 회귀를 표현하는 것이다.(그림64)

이와 함께 2천년이 더 가까워지면서 60-70년대 유행적 특성이 새로운 모습

그림64. Retro 이미지 'In Vogue'



그림65. Hippie 이미지 'In Vogue'



으로 해석되어 복고풍 히피 메이크업(그림65)으로 표현되고 테크노적인 사이버 메이크업으로 미래를 상징하였다.

2천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최초의 출발점으로 모여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눈썹이므로 먼저 아이브로의 유행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50년대 화난듯한 일자눈썹이나 90년대 중반의 헤비클래머 스타일의 과장된 눈썹과는 다르게 굵고 풍성한건 사실이지만 그 모양이나 색감이 그로테스크하다기보다는 훨씬 클래식하고 로맨틱한 정통 스타일의 아이브로인 것이다. 시대별 화장문화를 통해서도 알아보았지만 입술이 강한 시대에는 대개 눈썹이 얇고 열어지며 입술이 누드톤이면 눈썹을 비롯한 눈화장은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시머하고 채도가 낮은 컬러의 립메이크업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눈화장이 좀더 진해지고 강조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유행적 특성 중 하나는 바로 강한 아이라이너의 복귀이다. 눈꺼플 전체를 도색할만큼 두껍게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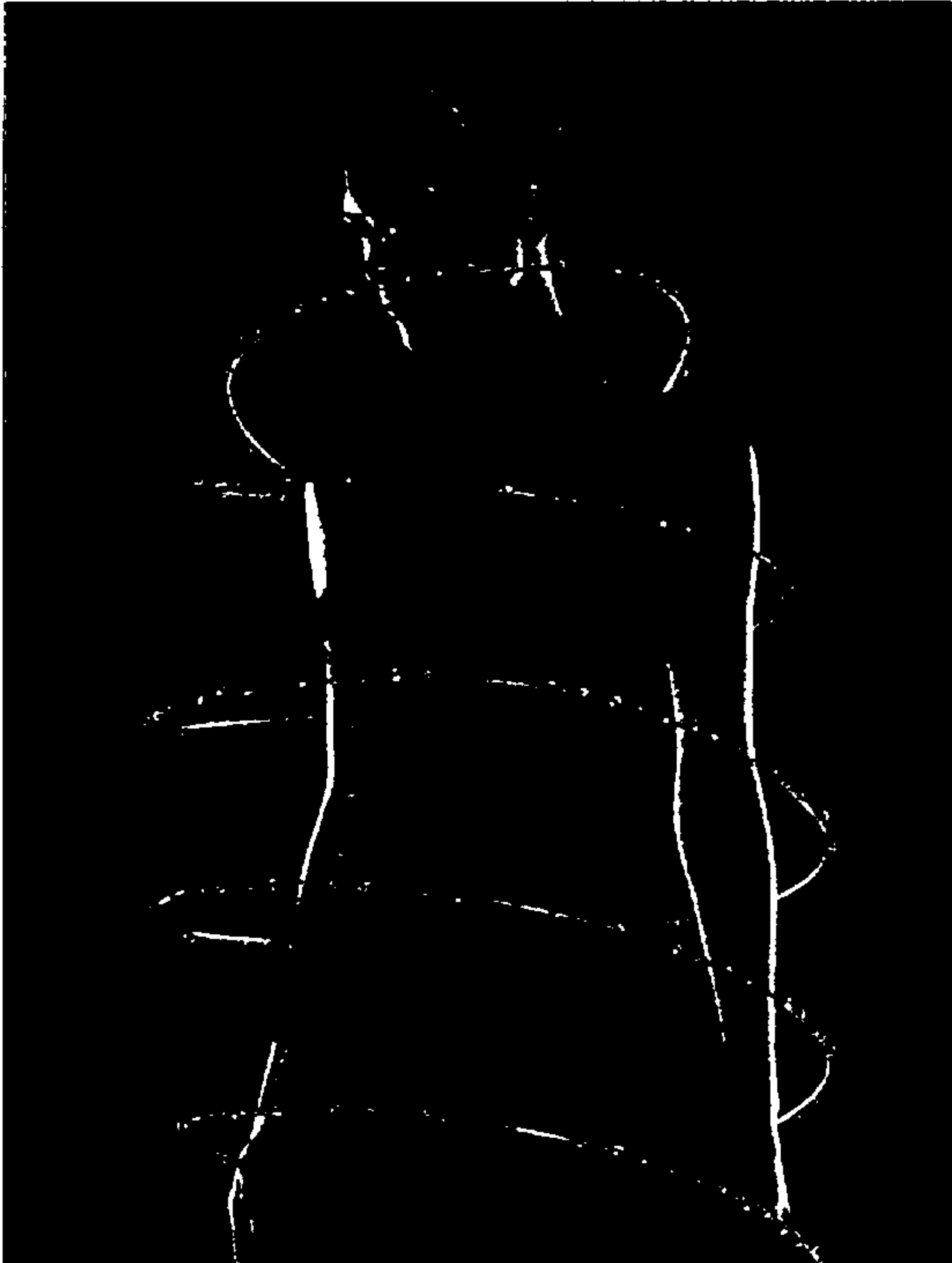
눈길이의 반정도를 더 길게 표현한 아이라이너는 강한 눈매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이라이너외에 아이메이크업을 위한 요소로는 눈두덩이에 주로 발라주던 새도를 눈아랫부분이나 옆부분에 더욱 치중해 발라주고 길고 진하게 표현하는 인조 속눈썹이다. 이는 인상적인 눈매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이메이크업에 표현되었다. 여성스럽고 예쁘게만 보이려던 메이크업의 혁명으로 그래픽 이미지의 새로운 눈화장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아이라인 메이크업은 눈꼬리를 연장해 그리면서도 끝은 뾰족하게 그려왔는데 그래픽적인 느낌을 주는 요즘의 라인메이크업과 달리 동양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더 강했다. 심미적인 면에서 라인메이크업의 장점은 무엇보다 작은 눈을 옆으로 길어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래픽 이미지의 라인 메이크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옷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심플한 실루엣과 모노톤 컬러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와 절제된 느낌을 동시에 갖춘 그래픽 무드였던 것이다. 라인메이크업을 볼수 있었던 해외컬렉션

그림66. 아이라인을 강조한 메이크업 'In Vogue'



무대는 구찌와 샤넬, 그리고 유리간등의 가을 겨울 컬렉션으로 대표된다. 구찌 쇼의 메이크업은 끝을 뾰족하게 처리, 광택 소재옷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샤넬은 눈언저리를 전체적으로 그어 명확한 경계선을 만든 메이크업을 선보였다.(그림66)

그림67. Cyber 이미지 'In Vogue'



마지막으로 21세기를 향한 사이버 메이크업(그림67)은 피부 본래의 자연스러운 빛을 강조하며 테크노틱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 사이버 메이크업은 피부표현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펴이 함유되어있는 시머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얇게 펴바르는데 가능하면 파우더를 생략하여 윤기있고 매끄러운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이다. 그위에 아이새도는 가능한 열게 혹은 생략하고 차가운 색상의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눈매를 표현한다. 이

때 다소 과장된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반짝이를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입술은 상대적으로 열게 투명한 컬러의 립그로스를 사용하며 반짝이게 표현한다.

이 사이버 테크노 메이크업은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대변하여 음악, 기계, 자연이 믹싱되어 모든 장르에서 자유로움을 표출하는 것이다. 메이크업의 깊은 눈매에서 느껴지는 오묘한 분위기로 청동 기계 같은 차가움과 화려함을 동시에 내포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현시점에서 보여지는 메이크업의 유행적 특성을 보면 메이크

업에 나타나는 패턴 및 색상은 일정시간을 지나 다시 재해석되어 또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맞이할 21세기는 90년대에 이어 아름다움과 함께 기능적이고 과학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며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질것이다. 매스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미디어도 매스미디어도 아닌 개인을 겨냥하는 미디어가 주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성들을 하나로 수렴하는 트렌드는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트렌드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어울리게 활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지혜롭게 트렌드를 받아들여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편이 될 것이며,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해가며 아름다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V. 結 論

이상과 같이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색채 조화에 관하여 색의 3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세기 밀레니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메이크업은 하나의 유행만 쫓는 획일화된 미가 아니라 시대별로 미의 가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개성화된 거대한 문화로 형성되고 있다. 여성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극대화시켜 표현하고 단점은 감추어 효과적으로 미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아름다움은 형태와 색채와 재료의 미가 종합되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 형태와 색채이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외모에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완벽한 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메이크업이라 하겠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달된 화장품 공업으로 인해 메이크업은 보편화되었고, 토털패션으로 얼굴형태와 의상에 따른 폭넓은 색상의 구사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표현하며 여성에게 성숙된 자아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족감의 추구, 정신적인 풍족함을 얻기 위한 조형예술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은 토털패션의 개념에서 존재하며 색채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기에 본 논문은 색의 3속성 즉 명도, 채도, 색상이 메이크업에 적용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20세기 패션사에서 보여지는 메이크업 유행색 및 패턴을 고찰하여 메이크업에서 색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색채조화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색을 물리적으로 이루는 세가지 요소인 색상, 명도, 채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그 3요소가 메이크업 효과에 극대화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메이크업에서의 색상이라 하면 얼굴색을 떠올리고, 얼굴색의 정도에 따라 눈썹, 입술, 눈, 머리의 모양과 색을 조성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겠다. 보통의 흰 피부에는 핑크, 퍼플 계열의 화사한 포인트 색상들이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며, 어두

운 오크 계열의 피부에는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 짙은 와인 계열이 잘 어울린다. 명도와 채도는 얼굴 형태를 교정해 주거나 눈, 입술을 보다 더 깊이있고 볼륨감있게 만들어 준다. 메이크업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즉 돌출된 부위나 팽창되어 보이고자 하는 부위는 명도를 높여 주고, 새도 처리되는 부분(후퇴되어 보이고자 하는 부위 혹은 축소되어 보이고자 하는 부위)은 명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각각의 다른 얼굴형을 이상형에 가깝게 만들어 주며,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색상과 색조가 가지는 상징적 이미지에 따라 메이크업의 많은 변화를 알 수 있다. 레드, 오렌지, 옐로우같은 난색 계열의 색상은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메이크업에서 보여지는 느낌 또한 여성적이고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린, 카키, 브라운 같은 중간색상은 침착하고 편안하며 조용한 이미지로써 지적인 차분함을 보여준다.

한색계열의 블루나 퍼플 색상은 냉정하고 수동적 이미지를 느껴 신비로우며 차가운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명도와 채도를 같이 묶어 색조로 표현되는 12단계에서는 색상은 서로 다르나 같은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있어 통일감을 형성하여 준다. 각각의 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Vivid, Strong, Bright, Pale, Very pale, Light grayish, Light, Grayish, Dull, Deep, Dark, Dark grayish이고 이들 색조의 서로 다른 색채 이미지에 의해 메이크업의 패턴이 다양하게 구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패션과 메이크업의 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색상에 의한 조화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조화되며 발전되어 왔다. 의상색에 따라 메이크업의 색조를 달리하여 보다 세련된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자기 만족과 정신적인 풍족함을 높여 여성에게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의상색과 메이크업 색상을 매치시킴에 있어 계절감이 주는 이미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정보화, 국제화된 세계속에서 각 시즌마다 패션스타일과 색상이 함께 바뀌고 분위기를 연출해 가기 때문이다. 이에 메이크업의 패턴과 조화로운

색상의 사용은 패션의 토털화를 추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넷째, 20세기 패션사에 나타난 메이크업 유행색상과 패턴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자유로운 내적 미의식의 표출로써 다양하게 나타났다. 패션 잡지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증가로 이상적인 미를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보다 섬세하고 세련된 화장법과 색상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거대한 화장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20세기 메이크업은 빠르게 변화해온 패션의 실루엣과 색상의 조화속에서 메이크업 패턴과 유행색을 창조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토털패션으로서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은 색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그 색상의 조화는 점점 더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높여 주는 화장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여성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고유색상에 조화로운 메이크업 포인트 색상의 사용과 절제, 패션 색채의 조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고 개성화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외적미와 자신감에서 얻어지는 내적 존재가 함께 표출되어 감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 매체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메이크업은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하며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자신감을 얻게 하는 관리행위로써 현대와 나아가 앞으로 변화된 모습의 인간에게 있어 더욱 필수적인 생활문화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것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가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색상의 폭넓은 구사로 우리의 화장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이크업 이미지가 색채 심리적인 측면에 많이 좌우되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표현 테크닉에 있어서 폭 넓은 실험과 경험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본 논문은 메이크업이 새로운 실용 학문으로 자리 매김하려는 시점에서 하나의 시도이고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학문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1. 나경남, 화장품광고를 위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2. 김효주, 한국여성의 복식색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3. 최영훈,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87
4. 김희숙.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5. 김용훈, 멋과 맵시의 색채와 디자인, 1994
6. 이학재, 분장의 길,
7. 현하, 현하의 차밍스틀 패션다이어트, 삶과 꿈, 1995
8. 공연예술총서⑤ 분장, 예니, 1996
9. 최운학 역, 베스트 메이크업, 유신문화사, 1992
10. 강상현, 채백,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한나래, 1993
11. David Bond저,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1992
12.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화장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대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13. 배은우, 색깔로 나를 바꾼다, 경향신문사, 1996
14. 지현 역, 화장술의 역사, 시공사, 1998
15. (주)태평양미용과학연구소, 결혼은 선택 화장은 필수, 오름시스템, 1995
16. 김용훈, 색채와 시각정보, 세진사, 1996
17. 김문숙, 패션과 색채, 경춘사, 1988
18. 미스메이크업, 효성출판사, 1995
19. 노선옥, 20세기 메이크업 아트 연구, 관동대 미술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20. 파버 비렌, 김화중 역,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21. 색의 이해, KBS한국색채연구소
22. 프랭크 H. 만케, 색채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국제사
23. 박옥련, 색채이론과 활용, 형설출판사
24. 색의 현장1.2.3, 일본시각디자인 연구소, 태학원
25. 컬러이미지와 코디네이션, 라사라
26. B.M.웰런, 컬러하모니, 미진사
27. 모턴워커, 파워오브컬러, 교보문고
28. 송민정,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29. 이화순, 한국여성의 메이크업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30. 남우임, 색채의 하모니를 통한 이미지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31. 이용도, 색채이미지와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6
32. 허인의, 색채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33. 이해영, 복식에 나타난 배색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34. 금기숙,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35. 황정호, 기하학적 형태에 색채 조화를 응용한 복식, 1991
36. 최영경,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1997
37. Bevis Hillier저,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 수학사, 1993
38. Arnold Hauser저, 백락청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편, 창작과 비평사, 1979

40. R. A. Eckstein저, 김향순 역, 바이오코스메틱연구, 중원코스메틱스, 1992
41. 김명자, 화장품의 세계, 정음사, 1985
42. 마르끄 알랭 데캥저, 이연숙 역, 유행심리, 동국출판사, 1993
43. 백영자. 이효순,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89
44. 유지나. 변재란, 페미니즘. 영화. 여성, 여성사, 1993
45. 강현두. 원동진. 전규찬,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46. 유태순, 의상디자인의 유행분석과 예측, 효성여대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47.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94
48. 정상호, 현대 패션모드, 교문사, 1990
49. 조은영, 영화의상을 중심으로한 대중패션의 분석, 대구 효성카톨릭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50. 홍병숙, 우리나라 여성의상의 유행에 관한 연구, 중앙 석사학위논문, 1974
51. 유인상, 마스크와 현대사회, 지식산업사, 1988
52. Harper's BAZAAR(한국판), 1999 1월-11월
53. Robin Tolmach Lakoff & Raquel L. Scherr, Face & Value-The politics of Beauty, Rouhedge & Kegan Paul, 1984
54. Lois W. Banner, American Beauty. New York : Alfred A. Knopf Inc. 1983
55. David Bond, Glamour in fashion, Guinness Publishing, 1992
56. 青山行夫, おしやれの文化史(History of Beauty Culture), 東京, 1976
57. Geogina Howell, In Vogue, London : Ramdon House, 1975

58. 青木英夫, 西洋化粧文化史, 原流社, 1979
59. Diana Lewis Jewell, MAKING UP by REX, Clarkson N, Potter, Inc, 1986
60.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Books Inc, 1965
61. Caroline Rennold Millbank, New York Fashion, Harry N, Abrams Inc, 1989
62. Cordwell & Rudoy, Hair dressing and fashion, New York : Crown Publishers Inc, 1956
63. Di Biggs & Maxi Meah, Art of Make-up, New Jersey : Chatwell, 1980
64.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 B.T Batsford Ltd, 1987
65. Gearhart Susan, Opportunities in beauty culture, VGM, 1982
66. James Laver, A Concise History of Costume, London : Thames & Hudson Ltd, 1969
67. John Ligget, The Human Face, New York : Stein and Day, 1874
68. Jonathan M. Woodham, Twenties-Century Ornament, London : John Calmann and King Ltd, 1990
69. Joseph Hansen & Evelyn Reed, Cosmetic, Fashion and the Exploitation of Women, New York : Pathfinder Press, 1986
70. Kenneth Clark, Feminine Beauty, New York :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0
71. Lucille Khornak, Fashion 2001, Viking Press, 1982

72. Kevyn Aucoin, The Art of Make up, New York : Haper Colins Publishers, 1996
73. Michael & Batterberry,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Columbus books, 1977
74. Mike Brake, The Sociology of Youth Culture and Youth Subcultures, London : Routedge & Kegan Paul Ltd, 1980
75. Rita Freedman, Beauty Bound, London : Columbus Books, 1986
76. Valerie Steel, Paris Fash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77. Valerie Steel, Woman of Fashion Twenties Centry Designers, New York : Rizzolie, 1991
78. Zandra Rhodes & Anne Knight, The Art of Zandra Rhodes,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79. Vogue(미국판) 1961-1999
80. The Face of The Century, 100years of Make up and Style, A Kate de Castelbajac Rizzoli, New York
81. Richard Corson, Fashion in Make up
82. Vogue(Paris) 1999. 1-10
83. ELLE(Korea) 1999. 1-11
84. marie claire(Korea) 1999. 1-11

ABSTRACT

The study of the tint effect and technique in make-up.

Lee, Sun-Joo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study of interrelation between expression technique and tint-harmonization is done in this paper. Most of all, it(this paper) zeros in on pursuing various beauty through a broad variation of tint and an absence of using tints.

This paper will focus on beauty and fashion make-up, which are regarded as essence in make-up. And it deals with so-called make-up image which is created by trying different hues. And only make-up-for-correction patterns and tint effect which is applied on parts of face will be handled in this paper. And the focus is given to popular make-up color and pattern in the 20th century in a bi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int in the make-up.

For this study, at first I looked into historical documents related to fashion, tints, complexion and human body. And other magazines and photographs regarding fashions and make-up are introduced in this papers.

The result of this study in tint effect and expression technique can boil down to as follows.

First, the full understanding of three essential elements for coloring-tint, brightness, and contrast can maximize the effect of make up. Brightness and Contrast help the correction of face shape, And they make eyes and lips look

more distinguishable.

Second, the symbolic image of color and tint can give many variations to make-up. And according to these tints-vivid, strong, bright, pale, very pale, light grayish, light, grayish, dull, deep. dark, very grayish, various partners are applied to make-up.

Third, in terms of matching fashion and make-up,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harmonious color use. In other words, make-up has had very close relationship. Just a simple effort to match make-up with clothes color can generate vary beautiful and sophisticated image. This will without fail let a woman get confidence in herself.

Fourth, looking over the 20th-fashion history, we can find the then popular make-up color and fashion pattern reflecting the then society and cultural environments. In a short, make-up color and fashion pattern can be used as a way to express a person's internal beauty.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silhouette and make-up color has created new fashionable color. Even it represents a woman's social status and her value in a society. Given the fact that informationization and glottalization keep gaining their momentum in the world, a perfect combination of expression technique and harmonious color in make-up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essence to accomplish the totalization of fashion.

Just as looking over it above, it's impossible for us to think of hair style, make-up, and fashion as separated in terms of fashion. These elements(hair style, make-up, and fashion) can be more beautiful only when a perfect color-matching is achieved between them. This harmonious combination can boil down to the so-called total fashion. For this, I would like to offer a few suggestions. When making-up, it's very important for a woman to figure out

her skin color and to use harmonious make-up color for her face. But she should keep it in mind that the use of make-up color should be followed by an effort not to abuse the color. This perfect color-matching can bring her up to self-confidence in terms of not only her external beauty but also her internal beauty. Considering this, make-up technique should be recognized as an artistic method to express an individual's thoughts and sense. I strongly believe that make-up will emerge as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people who live in the rapid-changing modern society. So this study I hope will contribute to our make-up culture.

But this study has an obstacle that make-up image may be ambiguous, due to the fact that it can be subject to so-called psychological tint effect.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the endless effort, based on broad experiments and experiences, should be given for this study. This paper is a bid to develop make-up into a practical academy. Therefore, from the academial perspective, following study should keep going on.